

中央語文學會

第26次 全國 學術大會

- ◇ 기획주제 :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 인지 의미론 (인지 언어학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11년 5월 21일 (토) 1:00-5:30
- ◇ 장 소 :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보건의료학관 6층 시청각실 1,2,3호.
- ◇ 주 최 : 중앙어문학회,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학부
- ◇ 후 원 : 남서울대학교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式 順

■ 회원등록 (1:00-1:15)

■ 개회사 및 공로패 전달 (1:15-1:30)

사회 : 허만욱 (남서울대)

① 회장 개회사

② 공로패 전달

■ 분과별 발표 및 토론(1:30-5:00)

■ 폐회식(5:00-)

〈국어학〉

사회: 조재형(강원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30~2:05	합성어의 어휘관계와 은유	김진해 (경희대)	이유미 (중앙대)
2:05~2:15	토 론		
2:15~2:50	/ㄴ, ㄹ/ 연쇄의 자유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 음운론적 연구	임현열 (호서대)	이봉원 (나사렛대)
2:50~3:00	토 론		
3:00~3:20	휴 식		
3:20~3:55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이지용 (고려대)	심지연 (동국대)
3:55~4:05	토 론		
4:05~4:40	pro의 본질에 대하여	엄홍준 (중앙대)	이영제 (고려대)
4:40~4:50	토 론		
4:50~5:00	정 리 (종합 토론)		

* 35분 발표, 10분 토론, 발표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고전문학〉

사회: 이명현(중앙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30~2:05	宮女를 소재로 한 愛情敍事의 스토리텔링 樣相 연구: 「雲英傳」과 「英英傳」을 中心으로	유권석 (남서울대)	함복희 (강원대)
2:05~2:20	토 론		
2:20~2:55	조선전기 사대부의 기생 점유 양상 고찰: 여악 폐지론을 중심으로	김정욱 (경희대)	신현규 (중앙대)
2:55~3:10	토 론		
3:10~3:25	휴 식		
3:25~4:00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	이은희 (강원대)	유형동 (중앙대)
4:00~4:15	토 론		
4:15~4:30	휴 식		
4:30~5:00	종합 토론		

* 35분 발표, 15분 토론, 발표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문학〉

사회: 오혜진(남서울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30~2:05	정치 경제적 근대화와 소외의 양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 작품을 대상으로	양윤모 (극동대)	김효석 (순천향대)
2:05~2:20	토 론		
2:20~2:55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양상: 「관부연락선」과 「변명」을 중심으로	손혜숙 (남서울대)	손종업 (선문대)
2:55~3:10	토 론		
3:10~3:25	휴 식		
3:25~4:00	애도와 물신 사이에서: 『조선영화』를 중심으로 본 1990년대 북한영화	김선아 (단국대)	오창은 (중앙대)
4:00:~4:15	토 론		
4:15~4:30	휴 식		
4:30~5:00	종합 토론		

* 35분 발표, 15분 토론, 발표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차

<국어학> 사회: 조재형

합성어의 어휘관계와 은유	김진해 /	3
/ㄴ 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연구	임현열 /	19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이지용 /	31
pro의 본질에 대하여	엄홍준 /	51

<고전문학> 사회: 이명현

宮女를 소재로 한 愛情敍事의 스토리텔링 樣相 연구: 「雲英傳」과 「英英傳」을 中心으로	유권석 /	59
조선전기 사대부의 기생 점유 양상 고찰: 여악폐지론을 중심으로	김정옥 /	71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	이은희 /	85

<현대문학> 사회: 오혜진

정치·경제적 근대화와 소외의 양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 작품을 대상으로	양윤모 /	103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양상: 「관부연락선」과 「변명」을 중심으로	손혜숙 /	115
애도와 물신 사이에서: 『조선영화』를 중심으로 본 1990년대 북한영화	김선아 /	127

중앙어문학회 제26차 정기학술발표회

국어학

사회: 조재형

합성어의 어휘관계와 은유 /
김진해 (경희대)

/ㄴ, ㄹ/ 연쇄의 자유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 음운론적 연구 /
임현열 (호서대)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
이지용 (고려대)

pro의 본질에 대하여 /
엄홍준 (중앙대)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해석과 결합관계 연구

김진해 (경희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국어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합성명사가 서술어와 맺는 결합관계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명사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합성명사의 구성요소(N1, N2) 간의 의미 관계 및 의미 해석은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는 합성명사에 대한 의미해석은 결합관계를 통해 그 해석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에 대한 고찰은 은유적 합성명사가 이중 지시작용(dual reference)을 갖고 결합관계를 통해 이에 대한 의미 고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합성명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여전히 구성요소의 형태·통사론적 특성과 구성요소 간의 서술적 기능 관계를 규명하는 형태론적/조어론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¹⁾ 인지언어학의 도입으로 합성명사 자체의 의미 해석이 시도되고 있고, 여기에 합성명사 형성에 생산적으로 적용되는 은유와 환유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 은유이론이나 혼성이론, 영상도식이론 등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은유적 합성명사’란 용어가 새로 사용되고 있다(채현식 2006,²⁾ 노진서 2010). 은유적 합성명사는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구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은유는 하나의 목표영역(target domain)을 다른 근원영역(source domain)과의 사상에 의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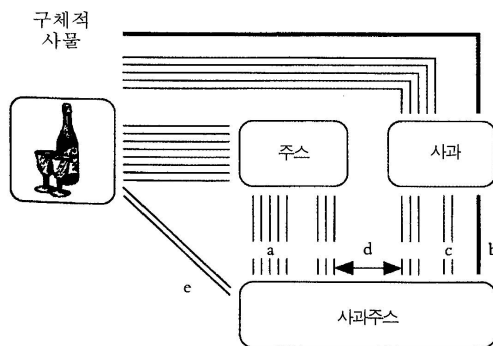
1) 형태론적/조어론적 관점에서 합성어는 유속합성어·병렬합성어·융합합성어(최현배 1937, 서정수 1981), 주종합성어·병립합성어·혼일합성어(이희승 1955) 등으로 구분되었다. 구성요소의 품사별 분포에 따라 등위, 부체, 목적, 보충 구조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이석주 1995, 나은미 2007).

2) 채현식(2006)에서는 ‘은유표현 합성명사’로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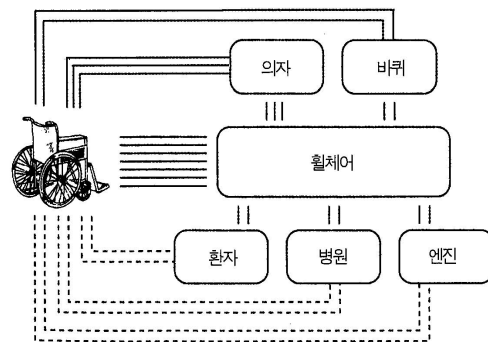
II. 본론

1. 은유적 합성명사와 ‘이다’ 조건: 내심합성어와 외심합성어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해석을 위한 접근을 위해 인지언어학에서 합성어의 의미에 대한 기본 견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Ungerer & Schmid(2010: 140~144)를 통해 잘 알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은 합성명사가 우측 머리어의 하위어(hyponym)의 위상을 가진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즉, 그동안 분류관계(taxonomy)에 따라 ‘사과주스’는 ‘주스’의 하위어이고, ‘휠체어’는 ‘체어(의자)’의 하위어라고 단정지어 왔는데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체 합성명사의 의미에서 수식어가 담당하는 기능이 적지 않고, 두 구성요소에서 산출되지 않는 의미 속성들도 있기 때문에 ‘수식어-머리어’ 배열의 엄격함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림 1> ‘사과주스’의 속성 연결



<그림 2> ‘휠체어’의 속성 연결

다시 말해 ‘사과주스’의 속성 목록을 표상한 <그림 1>에서, (a)는 ‘주스’에서 빌려 온 속성이고,³⁾ (b)는 ‘사과’의 현저한 특징적 속성,⁴⁾ (c)는 ‘사과’에서 빌려 온 속성,⁵⁾ (d)는 ‘주스’와 ‘사과’에서 함께 빌려 온 속성이다.⁶⁾ 또한 (e)는 두 구성요소에서 도출되지 않는 ‘비파생적 속성’을⁷⁾ 보여 준다.

특히 ‘사과주스’의 구성요소인 ‘주스’와 ‘사과’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은 ‘비파생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파생적 속성은 ‘세상사 지식’에 의존한다. 이는 ‘휠체어(wheelchair)’와 같은 합성명사에 더 두드러지는데, 이 합성명사의 기초가 되는 인지적 범주는 두 구성요소(wheel, chair)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적 범주에도 많이 의존한다. 예컨대 휠체어는 환자용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 엔진과 브레이크 등과도 관련된다. 합성명사 ‘김밥’도 ‘김밥은 밥이다’처럼 상하위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식어 ‘김’에서 도출되는 속성이 적지 않다.⁸⁾ 더욱이 ‘김밥’의 의미 해석에는 언어로 기호화되지 않은 비파생적 속성들(노란무, 당근, 시금치,

3) ‘주스’에서 빌려 온 속성 목록: 액체, 무알코올, 병이나 판지에 담김, 유리잔에 따름 등

4) ‘사과’의 현저한 특징적 속성 목록: ‘사과로 만들’

5) ‘사과’에서 빌려 온 속성 목록: 노란색이거나 비슷한 색, 과일맛 등

6) ‘주스’와 ‘사과’에서 함께 빌려 온 속성 목록: 달콤하거나 새콤달콤한 맛, 건강에 좋음, 맛이 좋음

7) 비파생적 속성 목록: 소다수와 섞임, 자연스럽게 흐림

8) ‘김밥’의 색깔, 맛과 관련된 속성은 ‘김’에서 주로 빌려 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햄, 참기름, 참깨 등이 함께 들어간다거나, 김밥의 전형적인 모양에 대한 이미지 등)이 추가된다.⁹⁾

Ungerer & Schmid(2010: 145~146)의 지적처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속성에 의해 합성어를 기술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어형성 분석 및 상하위 관계에 대한 논리적 견해보다 설명력을 갖는다. 특히, 합성명사의 의미구조는 의미 해석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머리어와 이를 상술하는 수식어의 합성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표준 견해는 ‘김밥, 사과주스’ 등 이른바 전형적인 합성명사조차도 의미해석에서 수식어의 의미적 기여 및 비파생적 속성의 역할 등의 측면을 간과하거나 축소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합성명사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욱이 개념적으로 지배적인 범주(머리어)가 반드시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합성어에 대한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Langacker(1999: 473)에서 언급하듯이 언어현상은 완전한 합성성보다는 부분적 합성성을 보인다. 이를 합성명사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기존의 ‘N1-N2’ 구성의 합성명사의 의미는 두 구성요소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특정 국면(facet)과 연결된다. 의미적으로 투명한(transparent) 합성명사라고 하더라도 전체 의미는 구성요소의 의미가 구체화(specialization)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합성명사의 합성성은 이분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주지하다시피 합성명사를 포함한 합성어를 정의할 때 제시되는 기준으로 Alen(1978: 105)의 ‘이다’ 조건(IS A Condition)을 들 수 있다. ‘이다’ 조건은 합성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조건이다.

(1) [()X ()Y]Z라는 합성어에서 Z는 Y이다. (Allen 1978: 105)

지금까지 합성어에 대한 형태론적 접근에서 ‘이다’ 조건을 기준으로 통사·의미론적 머리어(head)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와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로 구분해 왔다.¹⁰⁾ 내심 합성어는 전체 합성어가 오른쪽 구성요소(N2)의 하위어(hyponym)인 경우를 말하고, 오른쪽 요소가 전체 합성어의 의미부류를 명세하지 못할 때 이를 외심 합성어라고 불려왔다. ‘이다’ 조건은 어휘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하위 관계’를 형식화한 것이다.

국내에서 합성명사에 대해 형태론적·어휘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대상은 주로 ‘이다’ 조건을 지키는 내심 합성어 중심이었다. 최경봉(1992: 34), 시정곤(1994: 53), 신희삼(2008: 110) 등에서 외심합성어로 처리되는 융합합성어는 의미적으로 합성성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므로 ‘어휘적 관용어’로 처리하여 합성어의 의미형성 및 해석과 관련된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서 ‘어휘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명사의 의미를 추출/해석하는 데 그 내부 구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없고 구성요소로부터 의미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심합성어는 ‘합성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신희삼 2008: 110).¹¹⁾

9) ‘김’에 ‘밥’만을 짠 것은 ‘충무김밥’이라고 달리 명명된다. 원형적 ‘김밥’에서 주변적(유표적)이다. 또한 전형적으로 ‘김밥’은 김으로 밥을 말아 싸서 만든 둥근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경우에는 ‘삼각김밥(모양 차이)’, ‘누드김밥’(‘김’과 ‘밥’의 위치 바꿈) 등으로 달리 명명된다.

10) 이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어휘부를 고찰한 Williams(1981)의 전통으로 이어진다. Williams(1981)에서는 오른쪽 성분이 형태론적인 복합구성의 머리어 기능을 한다는 ‘우측-머리어 규칙(Right-Hand Head Rule)’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다’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11) 같은 이유로 ‘마소, 논밭’과 같은 병렬합성어도 합성어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합성어보다는 구(이은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머리어 중심의 내심/외심의 구분은 불충분하다. 통사 범주적 측면에서 ‘이다’ 조건이 갖는 설명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이다’ 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¹²⁾ 예컨대 신희삼(2010)에서는 ‘이다’ 조건을 어기는 합성명사는 합성명사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도 아래와 같은 합성명사는 합성어의 기능과 관련시켜 인접성의 원리, 다의어에 의한 형성 원리, 유추, 하위범주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2) 개머리, 산머리, 개구리참외, 까치발 -- 인접성
- (3) 상다리, 책상다리, 병목 -- 다의어
- (4) 개구리밥, 노루귀, 쥐꼬리 -- 유추
- (5) 쌀밥, 고추잠자리, 먹구름 - 하위범주화

‘이다’ 조건을 기준으로 합성어 포함 여부를 결정한 후에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위의 예들을 합성명사에 포함시켜 그 요소의 기능에 따라 하위분류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한편, 은유적 합성명사가 그 구성요소인 머리어가 분류학적 종(種; kind)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미꽃, 호박꽃, 할미꽃’은 ‘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꽃, 뽕꽃, 종이꽃’ 등은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Wierzbicka(1996: 270~274)에서는 예를 들어 ‘typewriter ribbon’ 같은 예에서 ‘ribbon’은 ‘ribbon’의 일종(kind)이 아니라, ‘ribbon과 같은(A typewriter is like a ribbon)’으로 처리하여 다의화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합성명사에서 ‘이다’ 조건을 엄밀하게 준수하고 있는 예가 생각보다 적다는 걸 말해준다.¹³⁾

본 발표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도 ‘이다’ 조건이 은유적 합성명사에서는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유적 합성명사는 현상적으로 합성명사의 두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합성명사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6) 벼락부자, 올챙이국수
- (7) 이야기꽃, 바늘귀, 물벼락, 술고래, 입씨름, 눈사람, 책벌레, 꾀등
- (8) 종이호랑이, 맥주병, 돌부처, 바지저고리, 두꺼비집, 오리발, 병목

여기에서 ‘이야기꽃’은 ‘꽃’인가? ‘꾀등’은 ‘등’인가? ‘입맛’은 ‘맛’인가? ‘이다’ 조건(IS A condition)에 의하더라도 이들을 ‘꽃’/‘등’/‘맛’의 하위어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다’ 조건은 부류 포섭 관계(상하위 관계)를 검증하는 기제로서, 이 기제에 따르면 ‘이야기꽃’은 ‘꽃’의 일종(a kind of)이지만, 그렇다고 ‘장미꽃, 할미꽃’과 동일한 부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렇게 합성명사의 구성요소가 은유화하여 범주적·존재론적으로 다른 관형구성(소위 종속합성어)과 다른 해석을 해야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¹⁴⁾

결국 이들 논의는 ‘이다’ 조건을 지키는 관형구성(종속합성어)만을 합성어 범주에 포함시킨다.

- 12) 같은 차원에서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적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체 의미는 부분 요소들의 의미 합에 의해 산출된다고 보는 Frege의 합성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 13) 물론 Wierzbicka(1996)의 이 언급은 은유의 본질적 성격인 불가능한 문자적 해석을 은유적 해석을 통해 철폐시키고 굴복시킨다는 점에서 ‘~와 같은’과 같은 직유적 해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Ricoeur 2003: 302).
- 14) 이 지점에서 ‘은유(metaphor)’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은유는 ‘의미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은유 아닌 언술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 주지 않으며, 비양립성(incompatibility)만이 유일한 표지’라고 하는 정희경(2000: 8)의 견해를 수용한다. 은유는 ‘양립 불능의 각 자질들이 통합체에 계속 남아 새로운 의미적 통일성을 만들어낸다. ... 양립 불능의 자질들이 연합함으로써 논리적 범주를 폐지하고 재범주화를 낳는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상상력, 비전에 의해

요컨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다’ 조건을 중심으로 한 내심합성어와 외심합성어의 구분은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Fabb(1998: 67~70)에서의 의견대로, 내심합성어와 외심합성어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합성명사의 구성요소들 간의 의미적 관계를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외심합성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심과 외심을 구분하는 ‘이다’ 조건 또는 의미 투명성(transparency) 기준은 정도성의 문제가 된다. 본 발표에서도 내심합성어와 외심합성어의 구분은 엄밀하지 않으며 정도의 문제로 본다.

2. 은유적 합성명사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해석

Lakoff, Johnson, Fauconnier, Turner 이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합성명사의 의미해석에 대한 총체적 설명은 Ryder(1994), Coulson(2000), Fauconnier & Turner(2002), Benczes(2006) 등에서 시도되었다. 특히 Benczes(2006)에서는 인지언어학의 대표적 설명 기체인 개념적 은유/환유 이론과 혼성이론을 통해 합성명사 전체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enczes(2006)에서는 그 동안 합성명사(합성어)를 설명할 때 자주 제기되었던 내심합성어와 외심합성어의 구분은 합성명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은유와 환유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특히 합성명사를 이루는 구성요소 자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선택된다면, 은유 및 환유 기반의 합성명사는 일상적인 언어 현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apple tree’(사과나무)와 ‘information highway’(정보고속도로) 간의 차이는 투명성(transparency)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의 문제라고 본다. 후자가 단어형성에서 좀 더 창조적인 과정을 표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합성명사를 은유-기반 합성명사(metaphor-based compounds), 환유-기반 합성명사(metonymy-based compounds), 은유-환유-기반 합성명사(metaphor-and metonymy-based compounds)로 분류하고, 은유 또는 환유가 합성명사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 5가지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은유적 합성명사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만 제시하기로 한다.¹⁵⁾

(9) 은유의 작동방식에 따른 은유적 합성어의 하위유형

- ㄱ. 수식어(on the modifier)
 - ㄴ. 윤곽 결정소(on the profile determinant)
 - ㄷ. 둘 모두(on both constituents of the compound)
 - ㄹ. 전체(on the compound as a whole)
 - ㅁ. 구성요소 간의 관계(on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nstituents of the compound)
- Benczes(2006: 89~140) 참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개념적 은유 또는 혼성이론을 통해 합성명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한다.¹⁶⁾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제시하도록 한다.

세계를 주관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정희경 2000: 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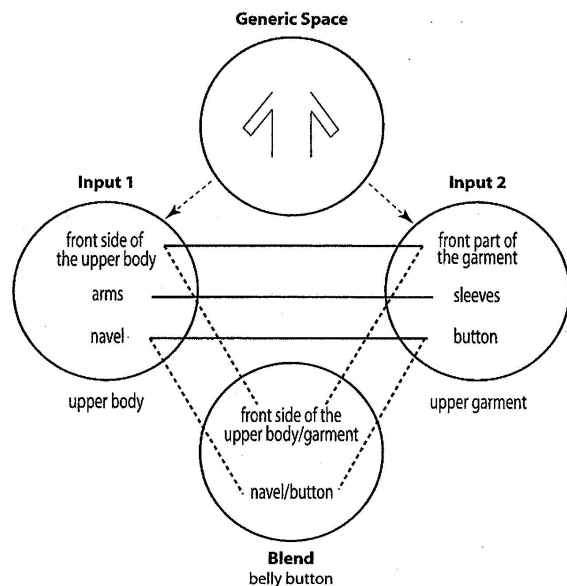
15) 마찬가지로 환유-기반 합성명사도 환유의 작동 방식에 따라 5가지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한다.

16) 노진서(2010)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차용하되 수식어와 윤곽 결정소(머리어)의 의미적 발현 양상에 따라 4가지로 하위 분류하고 있다: (1) N1(은유적 수식어) + N2(머리어), (2) N1(수식어) + N2(은유적 윤곽 결정소), (3) N1(은유적 수식어) + N2(은유적 윤곽 결정소) (4) N1(수식어) + N2(윤곽 결정소).

- (10) ㄱ. armchair (팔 의자) - “안락의자”
 ㄴ. belly button (배 단추) - “배꼽”
 ㄷ. flame sandwich (불 샌드위치) - “논쟁적인/까다로운 논평”
 ㄹ. bar-code hairstyle (바코드 머리스타일) - “바코드 머리스타일”
 ㄴ. beanpole family (콩 쥔 가족) - “키다리 가족”
 ㅂ. beanpole (콩 쥔) - “키다리”

(10ㄱ) ‘armchair’는 수식어(N1)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예로서, 수식어 ‘arm’은 의자의 팔걸이를 뜻하는 은유로 해석된다.¹⁷⁾ 안락의자의 기능이 팔을 올려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정 사물을 나타내는데, 이를 ‘arm’이라는 신체 부위명으로 대신 나타내기 때문이다.

(10ㄴ) ‘belly button’은 피수식어(N2)가 은유적인 윤곽 결정소로 사용된 예이다. 이를 혼성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여기에서 <입력공간 1>은 목표영역으로서 상체(上體) 영역을 나타내고, <입력공간 2>는 근원영역으로서 상의(上衣) 영역을 나타낸다. [상체는 상의]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상의의 영상은 상체 영상으로 사상된다. 상의의 앞 부분은 상체의 앞 부분과 연결된다. 옷의 앞에 달린 <단추(button)>는 상체의 앞 부분에 사상되는데, 아래에 달린 단추는 <배꼽>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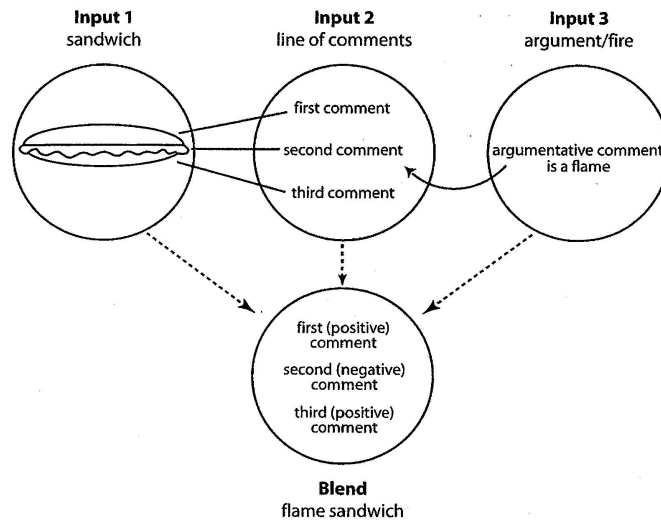
<그림 3> belly button의 혼성이론적 분석

국어 합성명사 중에 ‘바늘귀’가 여기에 해당된다. 바늘을 신체로 은유화하여 ‘실을 꿰는 구멍’과 신체 기관인 ‘귀’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¹⁸⁾

(10ㄷ) ‘flame sandwich’는 수식어(N1)도 은유이고 윤곽 결정소(N2)도 은유인 예이다. 이 합성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세 개의 입력공간을 상정해야 한다. <입력공간 1>은 ‘샌드위치’ 영역, <입력공간 2>는 ‘일련의 논평’ 영역, <입력공간 3>은 ‘논쟁/불’ 영역이다. <입력공간 3>은 [논쟁은 불]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의해 ‘논쟁’ 영역과 ‘불’ 영역이 통합되어 있어 그 자체로 혼성공간이다. <입력공간 1>의 ‘sandwich’는 논평의 구조를 제공한다. 즉, 빵 사이에 들어 있는 속처럼 긍정적인 논평 사이에 부정적인 논평이 놓이는 구조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입력공간 1>의 ‘샌드위치’ 영역과 <입력공간 2>의 ‘일련의 논평’이 사상되는데, 양쪽의 빵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긍정적인 논평과 연결되고, 가운데 ‘속’은 ‘가운데 (부정적인) 논평’으로 사상된다. 그렇지만中间的의 논평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샌드위치’ 영역이 아니라, <입력공간 3>의 개념적 은유 [논쟁은 불]과 사상되며, 이것 때문에 합성명사의 수식어로 ‘flame’이 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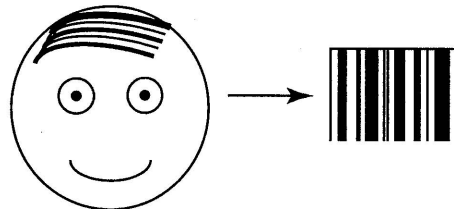
17) ‘armchair’의 수식어 ‘arm’은 팔을 쉬는 행위를 대신한다면 [OBJECT FOR ACTION]이라는 기제에 따라 환유로도 해석할 수 있다.

18) 바늘을 신체로 은유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바늘귀’ 외에 ‘바늘허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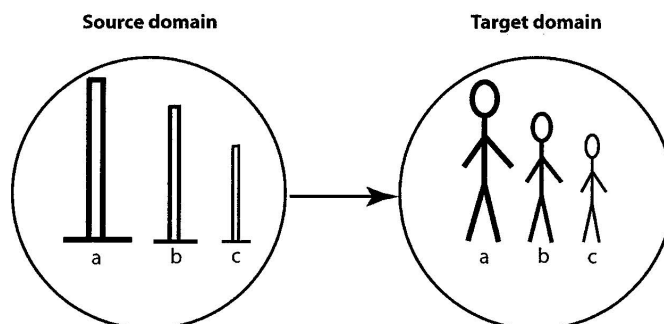
<그림 4> flame sandwich의 혼성이론적 분석

(10ㄷ) 'bar-code hairstyle'은 두 번째 요소인 'hairstyle'을 첫 번째 구성요소인 'bar-code'로 은유적으로 해석한 예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대머리의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의 모습을 바코드의 선 모양으로 비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간단한 이미지 기반 은유(image metapho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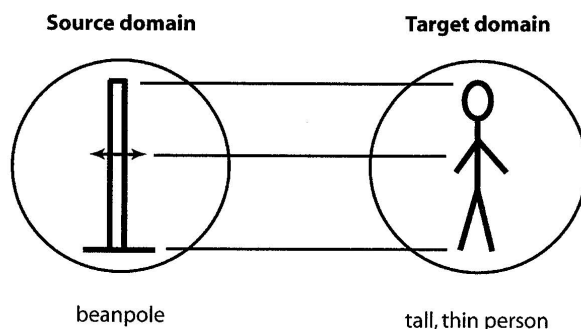
<그림 5> bar-code hairstyle의 이미지 기반 개념화

(10ㄱ)과 (10ㄴ)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0ㄱ) 'beanpole family'에서 가족 구성원 (어린이, 부모, 조부모 등)은 목표영역이고, 줄기가 가는 식물을 지탱해 주기 위해 꽂아 두는 꼬챙이인 'beanpole'은 근원영역이 된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을 통해 다양한 높이의 콩 싹처럼 가족 구성원을 개념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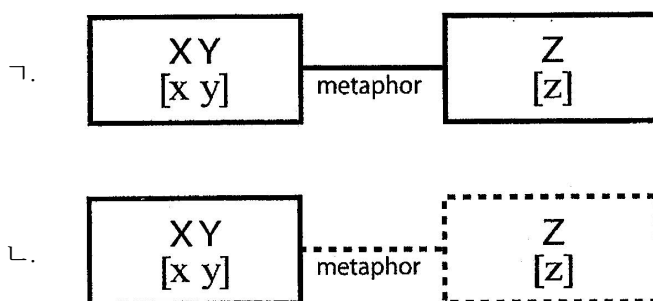
<그림 6> beanpole family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

그런데 (10b)처럼 ‘beanpole’만 사용하여 ‘콩 쉼처럼 키가 크고 훔쭉한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 ‘beanpole family’의 경우에는 근원영역(‘beanpole’)과 목표영역(‘family’)이 모두 표상이 되지만, ‘beanpole’의 경우 <그림 6>에서 보듯이 합성명사에서 윤곽 결정소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림 7> beanpole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

이는 다음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은유적 합성어의 전형적인 도식은 근원영역(XY)과 목표영역(Z)이 함께 표현되는 것이다(⌈). 반면에 (⌋)은 목표영역(윤곽 결정소 Z)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요소(목표영역 Z)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성명사의 구조는 표현되지 않은 윤곽 결정소의 속성을 상속받는다. 머리어가 합성명사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합성명사를 진정한 외심합성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미지 기반 은유의 목표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전체 합성명사의 의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7> 목표영역(윤곽 결정소)의 존재 여부에 따른 구성의 차이

국어에서도 ‘종이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여 근원영역(‘종이호랑이’)과 목표영역(‘선생님’)을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종이호랑이’만으로 ‘허세만 부리는 사람’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 예에 해당한다.¹⁹⁾ 목표영역이 주도적 의미 기능을 한다는 것은 ‘조용히 해. 종이호랑이 온다!’처럼 ‘종이호랑이’를 [인간] 속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아닌 목표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은 대부분의 은유적 합성명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19) 비슷한 예로 ‘병목 현상’을 들 수 있다. ‘병의 목 부분처럼 넓은 길에 갑자기 좁아짐으로써 일어나는 교통 정체 현상’을 목표 영역인 (‘교통정체’) 현상’이 표현되지 않고 ‘병목’만으로도 표현된다.: 예) ㄱ. 병목 구간 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29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처리의 병목이 되면서... ㄷ. 산 정상 부근에 병목이 빚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를 만했다.

수 있다.

3.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 합성명사의 이중 지시작용

합성명사는 이미 어휘화(lexicalization)되었고, 의미는 단일하며 내부 구성요소의 의미기능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합성명사 ‘말귀’와 결합하는 서술어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일단은 사전 뜻풀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1) ‘말귀’의 사전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ㄱ. 말이 뜻하는 내용.(예: 말귀를 못 알아듣다.)

ㄴ.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예: 말귀가 밝다/말귀가 어둡다.)

‘말귀’라는 합성명사의 의미 중 하나가 ‘말이 뜻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귀’의 구성요소의 어떤 의미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가? 또한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라는 뜻은 ‘말귀’의 어떤 의미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냥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 흐름에 의해 다의화되었다고 보면 설명이 끝난 것인가?

본 발표는 합성명사의 구성요소 간의 내적 관계가 후행 서술어와의 결합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모한다고 본다. 즉, 합성명사 ‘말귀’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후행 서술어에 따라 구성요소의 의미적 역할이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다’의 경우에는 두 구성요소 중에서 ‘말’의 의미속성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는 ‘말을 알아듣다’라는 구성과 조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말귀가 밝다/어둡다’는 ‘귀’의 의미속성이 더 많이 반영된다. 이는 반대로 ‘귀가 밝다/어둡다’라는 구성과의 대응 때문이다.

(12) ㄱ. 말귀를 알아듣다 - 말을 알아듣다

ㄴ. 말귀가 밝다/어둡다 - 귀가 밝다/어둡다

여기에서 ‘귀가 밝다/어둡다’에 쓰인 ‘귀’의 의미가 ‘청력’을 뜻한다고 하는 설명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치)가 없다. 발표자는 Sánchez(2006)의 다음 견해에 동의한다.: 즉, 한 단어의 의미를 정할 때, ‘연어에 의한 의미’가 갖는 모호성 또는 설명의 순환성이 있다. 예컨대 영어의 대표적 연어구성인 ‘strong case’와 ‘strong tea’에 각각 쓰인 ‘strong’의 의미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전자의 ‘확고하고 강력한’이라는 뜻과 후자의 ‘카페인’이 많은, 진한’이라는 뜻은 어떻게 획득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strong tea’에서 ‘tea’ 속에 ‘카페인’의 의미가 애초에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strong’ 속에 ‘카페인’이 많은, 또는 진한’이라는 의미가 애초에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Sánchez(2006)는 연어구성에 의한 의미(meaning by collocation)가 아니라 연어구성 자체의 의미(meaning of collocations themselves)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ánchez 2006: 145~152 참고).

마찬가지로 ‘귀가 밝다/어둡다’에 쓰인 ‘귀’의 의미에 ‘청력’이 들어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그것이 ‘밝다/어둡다’ 때문에 활성화되거나 ‘새롭게’ 획득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밝다/어둡다’ 속에 ‘청각 능력’과 관련된 의미속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귀가 밝다/어둡다’의 의미가 ‘청력이 좋다/나쁘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의미는 명사와 형용사라는 분리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의 덩어리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청력이 좋다/청력이 나쁘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말귀가 밝다/어둡다’가 ‘귀가 밝다/어둡다’와 대응한다는 말이 이 구성에서 ‘귀’의 ‘의미’만이 ‘청력’으로 쓰이고 ‘말’은 별다른 의미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언어적 결합방식의 유사성 때문에 합성명사 ‘말귀’의 의미적 기능 또는 결합적 양상의 현저성 면에서 ‘귀’가 도드라진다는 뜻이다. 반면에 ‘말귀를 (못) 알아듣다’의 경우에는 (‘귀’가 아닌) ‘말’이 현저한 기능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단위(unit)가 된 합성명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다른 단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의미적 역할에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다.

합성명사의 특성-두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언어단위도 동일하다고 보는데-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두 구성요소가 전체로서의 한 단위(unit)를 구성하면서도 구성요소의 의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이중 지시작용(dual reference)’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전체로서의 합성명사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구성요소의 동시적 지시.

이중 지시작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구성요소와 전혀 다른 제3의 관용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다. 다음 예는 하나의 의미단위를 형성한다고 알려진 관용표현이 의성·의태어의 수식을 받는 현상을 보여준다(김진해 2010b: 48).

- (13) 가슴에 {대}뭇을 {광광} 박다
간이 {통통} 붓다
고개를 {질레질레/잘래잘래/설레설레/살살} 젓다
단물(울만) {쭈쭈/쭈쭈} 빨아먹다
땀을 {푹/살짝/듬뿍} 들이다
바가지를 {박박} 긁다

김진해(2010b)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수식 현상, 부분 수식 현상, 수량화 현상 등을 들어 관용표현이 관용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직설적 의미(축자 의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맥락에서도 그것을 담는 매체(vehicle)인 표현 자체(expression itself, signifiant)는 그 기능을 잃지 않고 관용적 의미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관용표현은 ‘관용적 의미(목표영역)’와 ‘축자적 의미(근원영역)’가 이중 지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김진해 2010b: 60).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두 구성요소가 합성어라는 하나의 ‘단위(unit)’로 결합하면 그 내부구조와는 다른 단일한 통사·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관용표현에 대한 의성·의태어의 수식 등의 현상이 관용표현이 내부구조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어휘화된 죽은 은유(dead metaphor)가 아님을 보여주듯이, (합성명사를 포함한) 어떤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은유가 죽은 은유, 즉 어휘화되어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죽은) 은유와 관습적 사용(conventional use)을 혼동한 결과이다.

또한 탕바(Tamba)의 이론을 도입한 정희경(2000: 38~39)의 언급대로, ‘어떤 은유의미든 언술을 이루는 사항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하는데, 이는 은유의미가 ‘어휘단위들이 정해진 통사범주 안에서 일정한 발화행위상황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관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합성명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다른 예에 다시 적용해 보자.

- (14) 눈총을 주다
 눈총을 받다
 눈총이 쏠리다
 눈총을 피하다
 X-의 눈총과 마주치다
 눈총을 맞다
 눈총을 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제어 ‘눈총’에 대하여 ‘눈총을 맞다’와 ‘눈총을 쏘다’만 관용구로 처리하고 나머지 ‘눈총을 주다/받다’ 등은 뜻풀이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이 적용된 예로 처리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뜻풀이에 쓰인 머리어 ‘시선(視線)’과 결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았는가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14)의 예를 보면 ‘눈총’의 ‘총’이 기원적으로 ‘銃’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눈총을 맞다/눈총을 쏘다’가 합성명사의 우측 머리어 규칙에 좀 더 가까운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예들은 ‘눈총’이 의미적 추상화를 한 단계 더 겪은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예들은 후행머리어인 은유적 윤곽 결정소 ‘총’이 아닌 수식어 ‘눈’의 결합관계인 ‘눈을 주다/눈을 받다/눈이 쏠리다/눈을 피하다/눈과 마주치다’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모든 합성명사는 의미의 특정화(specialization, particularization)를 겪는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명사의 의미 특수화 현상은 구성요소의 의미 기능을 고정화시키지 않는다. 합성명사의 구성요소 간의 의미적 역학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적 합성명사에 대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결합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해석 또는 의미생성은 어떤 서술어와 결합하느냐를 통해 그 의미가 통사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결합관계는 합성명사 구성요소 간의 의미적 역학관계를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통로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후행 서술어와의 결합관계가 매우 제약적인 경우가 있다.

- (15) ㄱ. 이야기꽃을 피우다
 ㄴ. 도끼눈을 뜨다

합성명사 ‘이야기꽃’은 ‘이야기’의 이어짐과 풍성함을 ‘꽃’의 ‘開花’로 은유화한 것이다. ‘꽃’의 성장과정 전체를 표상하지 못한다. ‘이야기꽃’은 오직 ‘피기만’ 할 뿐, ‘이야기꽃이 지거나, 이야기꽃이 싹트거나, 시들다’처럼 이야기의 종료나 시작의 술어와 결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끼눈’은 ‘뜨다’와 결합하지 ‘감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도끼눈’을 통해 형성되는 ‘분하거나 미워서 매섭게 쏘아보는 눈’의 의미만 발현되기 때문에, ‘(도끼)눈을 감음’으로써 형성하는 의미는 없다. 그것은 도끼눈을 뜬 상태, 다시 말해 ‘분하거나 미워서 매섭게 쏘아보는 눈의 상태만이 부각(highlighting)되고 나머지 가능한 눈의 상태(감다, 비비다, 깜박이다 등)는 소거된다(hidden).

은유적 합성명사는 관련된 사건(event)이나 대상(object)의 특정 국면(facet)만을 부각시킨다. 결합관계를 통한 합성명사 의미의 특정화(specification)는 합성명사가 발현하는 의미가 특정 의미로 제한된다는 것을 통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를 살펴보면 수식어의 기능이 단지 합성명사 내적 의미구성에만

관여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합성명사의 의미가 합성명사의 구성 단계에서 폐쇄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와의 결합관계를 통해 구성요소 간의 의미적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합성명사 ‘입맛’을 살펴보자.

- (16) ㄱ. [입맛]이 있다/없다
 ㄴ. [입맛]을 자극하다
 ㄷ. [입맛]을 사로잡다
 ㄹ. [입맛]을 다시다

위의 예에서 ‘입맛’은 후행 서술어에 따라 입(N1)과 맛(N2)의 의미적 역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인지언어학 방식처럼 말한다면 서술어와의 결합관계에 의한 합성명사 구성요소의 활성화(activation), 현저화(salience) 또는 부각(highlighting)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과제는 이를 혼성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상(representation)’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다. 합성명사 내부의 의미의 혼성과 그 외부에 있는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합성명사의 구성요소가 후행 서술어와의 결합관계에 따라 다르게 활성화/현저화/부각된다는 것을 간단히 도식화해 본 것이다.

(17) 서술어와의 결합관계에 의한 합성명사 구성요소의 활성화 차이

입	맛	있다/없다
입	맛	다시다
말	귀	밝다/어둡다
말	귀	알아듣다
도끼	눈	뜨다

이러한 도식화는 궁극적으로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가능성(analyzability)을 통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Ⅲ. 결론

언어 단위(unit)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atom)와 다른 점은 원자가 그것을 쪼갬을 때 최소 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만, 언어 단위는 그것을 쪼개더라도(즉,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검토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기능이나 개별 요소로서의 기능이 이분법적으로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중적 인식 능력의 결과로 보인다.

인지언어학에 대한 불만족 중의 하나는, 언어 의미와 인지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다른 이론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의미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의미가 통사적 양상과 어떤 관련성을 맺으며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인지언어학이 언어표현을 통한 인지체계를 밝히는 것이 궁극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표현 자체의 특성, 언어표현이 만들어내는 의미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

“이 컵은 자연을 생각합니다(This cup thinks the nature).”라는 광고 문구는 ‘X-가 Y-를 생각하다’라는 구문의 의미적 관찰이라고 볼 수 있다. 은유의 편재성은 이러한 구문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컵’이 ‘생각하는 존재’, 즉 사람으로 의인화되는 것은 ‘컵’의 의미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X-가 Y-를 생각하다’라는 구문(construction)에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어휘(‘컵’)만을 두고 ‘사물의 의인화(personification)’라고만 말하는 것은 구문에서 발생한 결과적 해석일 뿐, 현상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X-가 Y-를 생각하다’라는 구문에 어떠한 ‘X’가 와도 의인화가 된다는 점에서 의인화의 동기 또는 출발은 구문에 있지 해당 명사에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적 역동성은 서술어와의 결합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 혼성이론은 두 명사 간의 의미적 관계 및 개념 혼성의 결과로 보고, 또한 이는 생성보다는 해석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그렇다면 합성명사의 결합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혼성 공간의 통사적 준거 또는 변수(variable)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합성어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에 대한 반성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해(1982),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김진해(1998), 「다의화 유형에 따른 합성어 의미 연구」, 『경희어문학』 19,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pp. 269~296.
김진해(2010a), 「개념적 은유와 문법 범주 -시간 은유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3, 중앙어문학회,

- pp. 149~174.
- 김진혜(2010b), 「관용표현 연구의 새로운 쟁점」,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pp. 37~64.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型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 김해연(2009), 「합성명사의 형성과 번역의 언어적 동기」, 『담화와인지』 16-1, 담화인지언어학회, pp. 1~23.
- 나은미(2007), 「합성어 구성 성분의 의미 결합 양상 -합성명사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6, 한성대한성어문학회, pp. 19~43.
- 남영신(1997), 『흔+ 국어사전』, 성안당.
- 노진서(2010), 「영어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 양상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52-1,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pp. 171~187.
- 박영순(2006), 「은유 연구의 성과와 방법론」, 『한국어의미학』 20, pp. 1~28.
-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4 합본, 한글학회.
- 신희삼(2007), 「합성어 기능에 따른 합성명사의 형성 원리」, 『한국어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pp. 141~163.
- 신희삼(2008), 「N1+N2의 의미구조 연구」,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pp. 103~122.
- 이석주(1995), 「복합어 구성성분의 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7·88 합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247~269.
- 이유미(2006), 「한국어 은유의 근원영역 특징」, 『한국어의미학』 20, pp. 187~203.
- 이재인(1991), 「국어 복합명사 구성의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1),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pp. 612~628.
- 이재인(1996), 「국어 합성명사 형성에서의 의미론적 제약 현상」, 『배달말』 21, 배달말학회, pp. 75~93.
- 이희숙(2010), 「합성어에 대한 일고」, 『언어학연구』 16, 한국중언언어학회, pp. 225~243.
- 정원수(1990), 「복합명사 의미의 몇 문제」, 『한국언어문학』 28, 한국언어문학회, pp. 519~536.
- 정희경(2000), 『은유, 그 형식과 의미작용: 마르그리트 뒤라스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출판부.
- 채현식(2006),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pp. 5~23.
- 최상진(1995), 합성어의 의미적 공기관계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2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 50~71.
- 최상진(1997), 「합성어 의미형성의 유기체적 관계론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pp. 155~170.
- 최현배(1937/1978),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Allen M. R.(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Benczes R.(2006), Creative Compounding English -The Semantics of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Noun-Noun Combinatio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oulson S.(2000), Semantic Leaps: Frame-shifting and conceptual blending in meaning constr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ignan A.(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Fabb N.(1998), Compounding, In Spencer A. & Zwicky A. M.(eds.)(1998), *The Handbook of Morphology*, Blackwell, pp. 66~84.
- Fauconnier F., & Turner M.(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Basic Books.(김동환 · 최영호 옮김(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념적 혼성과 상상력의 수수께끼』, 지호.)
- Francisco José Ruiz de Mendoza Ibáñez(2000), The role of mapping and domains in understanding metonymy, In Barcelona A.(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pp. 109~132.
- Geeraerts D.(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김종도 옮김(1999), 『인지문법의 토대 I : 이론적 선행조건들』, 박이정.)
- Libben G. & Jarema G.(eds.)(2006), *The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Compound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 Ricoeur P.(2003), *The Rule of Metaphor*, Routledge Classics.
- Ryder M. E.(1994), *Ordered Chaos: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Noun-Noun Compoun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ánchez M. A.(2006), *From Words to Lexical Units*, Peter Lang.
- Tamba I. 지음, 정인봉 옮김(2009), 『의미론』, 고려대출판부.
- Ungerer F. & Schmid H-J. 지음, 임지룡 · 김동환 옮김(2010), 『인지언어학 개론(개정판)』, 태학사.
- Wierzbicka A.(1996), *Semantics: Primes and Universals*, Oxford University Press.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연구

임현열 (호서대학교)

목차

1. 서론
2.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접근
3.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의 출현 양상
4.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분석
5.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분석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형태소가 서로 다른 발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동일한 형태소에 대한 서로 다른 발음의 적용이 해당 형태소의 기능이나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에 이를 자유변이현상으로 본다.²⁰⁾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자유변이현상 가운데 특히 비음 /ㄴ/와 유음 /ㄹ/의 연쇄에서 이것이 유음화되기도 하고 비음화되기도 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ㄴㄹ/ 연쇄가 나타내는 자유변이현상의 실현 양상을 살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지음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대상 : 한국어 /ㄴㄹ/ 연쇄의 특성

한국어는 음소 배열의 특성상 /ㄴㄹ/ 연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일부 외래어에서 /ㄴㄹ/ 연쇄를 실현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한국어의 발음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의 발음 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가령,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 외래어의 발

20) 임현열(2011:1)에서 언급되었듯이 프라그마학파의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자유 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있다. 하지만 프라그마학파에서의 '자유 변이'라는 것은 '결합 변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음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이음'의 존재를 염두에 둔 용어의 사용인 데 반해, '자유변이현상'이라는 용어는 언어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변이'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언어 형식이 그 자체의 기능과 의미에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서로 다른 발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자유변이현상'의 정의 및 범위 한정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발표문의 2장에서 언급할 것이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임현열(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음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는 많은 예들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에 대한 발음이 [온#라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²¹⁾ 이는 한국어의 발음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어의 발음 방식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한국어의 발음 방식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 가운데 영어 교육을 많이 받은 화자들에 있어서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순치음을 발음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한국어의 음운 체계나 음운 현상을 논의하는 데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ㄴㄹ/ 연쇄는 고유어에서 나타나지 않고 한자어와 외래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우선, 한자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ㄴㄹ/ 연쇄가 발생하고, 이것이 유음화되어 발음된다.

(1) 簡略[갈략] 鍛鍊[달련]	管理[갈리] 滿了[말료]	暖流[날류] 文理[물리]	論理[놀리] 本來[볼래]	段落[달락] 分類[볼류]
----------------------	------------------	------------------	------------------	------------------

그러나 (1)의 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경우 유음화만 발생하고 비음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자유변이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2)의 예들과 같이 동일한 형태소가 유음화되기도 하며, 비음화되기도 하는 경우가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

(2) 牽引力[견일력~견인력] 一段落[일달락~일단난]	保管料[보팔료~보관료] 音韻論[으물론~으문논]	宣陵[설릉~선능] 全裸[절라~전나]
----------------------------------	------------------------------	------------------------

또한, 외래어에서도 /ㄴㄹ/ 연쇄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아래와 같은 단어는 외래어에서 /ㄴㄹ/ 연쇄가 나타나서 그것이 유음화 또는 비음화 되어 발음되는 예들이다.

(3) 원룸[윌룸~원눔] 온라인[올라인~온나인]	그린란드[그릴란드~그린난드] 다운로드[다올로드~다운노드]
-------------------------------	------------------------------------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ㄴㄹ/ 연쇄가 한자어와 외래어에서 나타날 뿐 고유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²²⁾ 이는 /ㄴㄹ/ 연쇄가 한국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음소 배열의 한 형태임을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에서 /ㄴㄹ/ 연쇄가 발생하는 것은 한자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 형태소의 독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 시기의 측면에서 대체로 고유어나 한자어에 비해 늦은 외래어에서 /ㄴㄹ/ 연쇄가 발생하는 것은 외래어의 어원이 되는 외국어의 본음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형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 관찰 대상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된다.

21) 본 연구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구체적 음성적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음소적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이므로 IPA에 의한 정밀 전사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 자모를 통한 일종의 약식 전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가령,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를 [on#lain], [onlain], [on#rain], [onrain] 등과 같이 표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한글 전사 방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22) 이진호(1998:97)를 비롯한 /ㄴㄹ/ 연쇄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고유어에서는 /ㄴㄹ/ 연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현상은 주로 한자어를 통해 살펴야 하며, 최근에는 외래어에서 등장하는 /ㄴㄹ/ 연쇄를 살펴 /ㄴㄹ/ 연쇄의 실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연구원(2002b)에서 조사된 현대 국어 어휘 사용 빈도 조사의 어휘 목록의 검색을 통해서도 고유어가 /ㄴㄹ/ 연쇄를 보이는 예는 검색되지 않았다.

물론, /ㄴㄹ/ 연쇄뿐만 아니라 /ㄹㄴ/ 연쇄도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소 연쇄가 아니지만, 이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ㄹㄴ/ 연쇄에서는 모두 유음화로 실현될 뿐 동일 형태소에 대해 유음화와 비음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자유변이현상이 나타나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1.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자료의 범위와 서술 방식

이 연구는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처리 모델에 의해 구축된 언어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언어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중의 발음 사용 양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방식으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2001, 2002a, 2002b) 등의 조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이진호(1998), 김경아(2004), 박선우(2007) 등에서 제시된 /ㄴㄹ/ 연쇄 관련 자료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에서 조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발음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발표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개념 정의와 범위 확정을 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ㄴㄹ/ 연쇄의 발음 실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자료와 발음 실태 조사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인지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5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2.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접근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제시와 분석에 앞서 여기서는 자유변이현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접근의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2.1. 자유변이현상 : 개념과 범위

현대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 동일한 형태소가 서로 다른 발음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소에 대해 서로 다른 발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형태소 자체의 기능이나 의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발음 현상을 동일 형태소가 나타내는 자유변이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형태소에 대한 서로 다른 발음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도 몇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만 자유변이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임현열(2011)에서는 동일한 형태소에 대한 서로 다른 발음의 적용이 실현된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자유변이현상으로 연구되는 항목들은 시간적 조건, 공간적 조건, 언어 환경적 조건, 보편성의 조건 등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언급하였다.²³⁾

23)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구체적 소개를 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상세한 소개는 임현열(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자유변이현상은 동일 형태소에 대한 서로 다른 발음이 동일 시기에 출현을 해야 하며, 공간적으로도 동일 공간에서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령, 동일 형태소에 대한 이형의 발음의 존재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시기의 것이 아니거나 동일한 지역에서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면 동일 형태소가 나타내는 자유변이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 환경적 측면에서는 동일 형태소가 출현하는 환경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는 조건이 설정된다. 다만, 이는 한자 형태소의 경음 정보 획득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도입된 조건일 뿐이며 본 연구에서의 /ㄴㄹ/ 연쇄가 나타내는 자유변이현상과는 관계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할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변이현상은 보편적 현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다. 가령, 특정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발화 실수나 착오는 자유변이현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2.2. 인지음운론적 접근 : 영역 일반 인지 능력의 작용

음운론 연구에서의 인지적 접근 방식은 기능주의 언어학의 한 유형인 Bybee(2001)에 의해 체계화된 바 크며,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Bybee(2010:6~8)에서 명시적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특히, Bybee(2010:6~8)에서는 영역 일반 인지 능력의 작용이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언어 처리에 작동하는 인간의 영역 일반 인지 능력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 뭉치 인식(chunking), 풍성한 기억 공간(rich memory), 유추(analogy), 교차감각적 연상(cross-modal association) 등을 언급하였다. 이런 개념들 가운데 특히 한국어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뭉치 인식, 빈도 효과, 유추 등은 매우 유용한 개념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가. 뭉치 인식

뭉치 인식이란 인간이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할 때 작용하게 되는 기억의 단위를 말한다. 인간의 기억 단위는 절대적인 크기나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지 이미 기억된 최소의 단위를 바탕으로 그것이 다시 더 큰 단위로 융합되는 과정으로서 뭉치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순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ybee(2010:34)에서는 형태통사적인 그리고 그것의 위계적 조직에 대한 인지적 기본을 이루는 것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경험의 뭉치 인식이라고 보고 있으며, 뭉치 인식이 인지 체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뭉치 인식의 발현은 인간이 언어를 발화할 때의 유창함에 영향을 미치고, 인식할 때의 수월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이 언어의 단위를 좀 더 큰 단위로 묶어서 기억하게 됨으로써 발화에서는 연쇄하여 산출할 수 있는 단위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고, 이해에서는 이미 맥락화되어 기억된 언어 연쇄의 일부를 청취함으로 이후에 나타날 내용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뭉치 인식이 반드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단위에 대한 분할로서 뭉치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시나 어떤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당초에는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뭉치처럼 인식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지만 어린 아이가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언어의 사용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했던 것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문치 인식의 단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인식한다는 것이다.(Bybee 2010:35)

나. 빈도 효과

그런데 앞서 언급한 문치를 형성하는 데에는 그것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해당 단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빈도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빈도는 처음에 어느 정도는 문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촉발적 역할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문치가 형성이 되고 나면 문치 인식이 누적되어 가는 속도는 더더지게 된다. 최근은 음운론 연구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빈도 효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빈도란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수학이나 통계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과학에서도 빈도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언어학에서는 과거 형식주의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실제 발화에서 어떤 특정 단어나 표현 또는 패턴의 빈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그러나 사용기반이론에서는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로서 빈도 효과가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실제로 빈도에 의해 언어 실현이 영향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다. 유추

유추는 이전에 경험한 발화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발화가 창조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인간의 언어 처리에서는 이러한 유추에 의한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역사언어학에서도 유추를 언어 변화의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유추 작용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언어 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평준화에 의한 유추가 있는데, 이는 패러다임에서 ‘대치의 상실’을 가리키며, 주로 어떤 형태에서 정규적으로 적용되는 이형태들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빈도가 높게 적용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유추의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추에서는 유추적 확산으로 분류되는 유추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패러다임의 평준화와 달리 대치할 이형태가 애초에 없었던 경우이다. 즉, 언어 사용 과정에서 유입된 새로운 형태에 대한 선호의 증가로 인해 신형 발음이 구형 발음을 교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추가 언어 변화에서 작용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빈도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빈도 효과와 관련하여 유추가 고빈도에서 항상 나타나고 저빈도에서 항상 변화를 거부하는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어서 흥미롭다. 또한, 유추의 작용에는 앞서 살핀 문치 인식과 범주화 능력이 작용한다. 가령, 언어 단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 유추 작용이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 범주에 속한 것에서 유추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범주에 속한 것에서 유추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높다.

3.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의 출현 양상

/ㄴㄹ/ 연쇄는 단어의 구성에 따라 발음 양상이 달라진다. 어떤 유형의 단어 구성에서는 자유변이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또 다른 어떤 유형의 단어 구성에서는 자유변이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자유변이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들 가운데서도 유음화로 발음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비음화로 발음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단어의 유형에 따라 자유변이현상이 출현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는 단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의 자료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는 외래어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항목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4)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언중이 /ㄴㄹ/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보였다.

(4) 그린란드	다운로드	로큰롤	매킨리	먼로
산레모	스탠리	스테인리스	온라인	원룸
아웃렛	옷로비	햇라인		

하지만 위의 예들 가운데 ‘매킨리, 산레모, 스탠리’ 등의 단어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설문지 방식의 발음 조사에서 현실 발음 상황이 적절히 조사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먼로’의 경우는 배우인 ‘마릴린먼로’의 이름을 읽는 방법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먼로’로 제시했을 경우와 ‘마릴린먼로’로 제시했을 경우가 발음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네 단어를 제외한 외래어들에서 발음 실태가 어떠한지를 제시한다.²⁴⁾

- (5) 그린란드 : ㄴㄹ 110, ㄴㄴ 89, ㄴㄹ 168
 다운로드 : ㄴㄹ 42, ㄴㄴ 108, ㄴㄹ 217
 로큰롤 : ㄴㄹ 35, ㄴㄴ 231, ㄴㄹ 99, ㄹ 2
 스테인리스 : ㄴㄹ 72, ㄴㄴ 166, ㄴㄹ 129
 온라인 : ㄴㄹ 94, ㄴㄴ 150, ㄴㄹ 123
 원룸 : ㄴㄹ 92, ㄴㄴ 185, ㄴㄹ 90
 아웃렛 : ㄴㄹ 288, ㄴㄴ 34, ㄴㄹ 29, ㄷㄹ 16
 옷로비 : ㄴㄹ 63, ㄴㄴ 147, ㄴㄹ 71, ㄷㄹ 86
 햇라인 : ㄴㄹ 157, ㄴㄴ 91, ㄴㄹ 88, ㄷㄹ 24, ㄷㄴ 7

3.2. 국립국어연구원(2002a)에서의 자료

또한, 국립국어원의 또 다른 자료인 국립국어연구원(2002a)에서는 (6)의 단어를 중심으로 ‘비음화와 유음화’ 항목을 설정하여 발음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였다.

24) /ㄴㄹ/ 연쇄가 각각 /ㄹㄹ/, /ㄴㄴ/, /ㄴㄹ/ 등의 모습으로 실현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한글 자모 뒤의 숫자는 그러한 형태로 응답한 피험자의 수를 가리킨다.

(6) 몰나르 클린룸	보틀넥 선루프	인라인스케이트 스킨로션 곤로	풋라이트
----------------	------------	--------------------	------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몰나르’와 ‘보틀넥’의 경우는 /ㄴㄹ/ 연쇄가 아닌 /ㄹㄴ/ 연쇄이며, 실제로 이 연쇄에서 비음화되는 발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풋라이트’의 경우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발음 실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와 관련된 항목들만 제시하면 그 내용은 (7)과 같다.

- (7) 인라인스케이트 : ㄹㄹ 18, ㄴㄴ 171, ㄴㄹ 21
 클린룸 : ㄹㄹ 10, ㄴㄴ 157, ㄴㄹ 42, 기타 1
 선루프 : ㄹㄹ 1, ㄴㄴ 163, ㄴㄹ 45, 기타 1
 스킨로션 : ㄹㄹ 0, ㄴㄴ 157, ㄴㄹ 53
 곤로 : ㄹㄹ 168, ㄴㄴ 41, ㄴㄹ 1

3.3.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

하지만 이상의 자료들은 모두 외래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ㄴㄹ/ 연쇄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 살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2002b)에서 제시된 실제 사용된 어휘 가운데 /ㄴㄹ/ 연쇄를 나타내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발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실시한 발음 선호도 조사에서 사용된 단어는 (8)과 같다.

- (8) 한자어 : 相見禮 神仙爐 山麓 半裸 鑛泉里
 외래어 : Henry John-Lennon Finland Fanletter Marilyn-Monroe²⁵⁾

이 조사에서는 실제 단어를 노출하지 않고 (8)의 단어들로 가능한 유음화 발음과 비음화 발음을 각각 들려주었고, 외래어의 경우는 국립국어연구원(2001, 2002a)에서의 조사 결과에서 /ㄴㄹ/ 연쇄대로 발음을 한다고 응답한 피험자가 많았던 것을 참고로 하여 /ㄴㄹ/ 연쇄로도 발음하여 들려주었다. 그리고 피험자는 들은 발음 중에 자신이 평소에 구사하는 자연스럽고 듣기 편한 발음을 고르도록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모두 34명의 20대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9)와 같다.²⁶⁾

- (9) 相見禮 : ㄹㄹ 16, ㄴㄴ 18
 神仙爐 : ㄹㄹ 22, ㄴㄴ 12
 山麓 : ㄹㄹ 16, ㄴㄴ 18
 半裸 : ㄹㄹ 22, ㄴㄴ 12
 鑛泉里 : ㄹㄹ 26, ㄴㄴ 8
 Henry : ㄹㄹ 9, ㄴㄴ 7, ㄴㄹ 18
 John-Lennon : ㄹㄹ 12, ㄴㄴ 7, ㄴㄹ 15
 Finland : ㄹㄹ 32, ㄴㄴ 0, ㄴㄹ 2

25) 이 경우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 ‘먼로’로 조사했던 것과 달리 전체 이름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발음을 조사하려는 의도로 목록에 포함되었다.

26) 이 조사에서는 표준발음법을 배우는 시간에 표준발음법이 현실 발음과 괴리가 있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 형식으로 34명의 학생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참여시켜 조사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 실험은 음성으로서 실현 가능한 발음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게 했다는 면에서 조사의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anletter : ㄹㄹ 7, ㄴㄴ 14, ㄴㄹ 13

Marilyn-Monroe : ㄹㄹ 13, ㄴㄴ 9, ㄴㄹ 12

4.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한 분석

앞서 /ㄴㄹ/ 연쇄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ㄴㄹ/ 연쇄에 대한 발음 실현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4.1.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분석

이상의 결과를 보면, 외래어로 제시한 많은 단어들에서 비음화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 결과를 갈무리하여 제시하면 (10)은 이상의 조사 결과들을 통해 얻은 비음화 우세 외래어 단어들의 목록이며, (11)은 유음화 우세 외래어 단어들의 목록이다. 그리고 (12)는 /ㄴㄹ/ 연쇄로 발음되는 것이 우세한 외래어 단어들의 목록이다.

(10) 로큰롤 스테인리스 온라인 원룸 옷로비
인라인스케이트 클린룸 선루프 스킨로션 펜레터

(11) 아웃렛, 핫라인, 곤로, 핀란드, 마릴린로

(12) 그린란드, 다운로드, 헨리, 존레논

이처럼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ㄴㄹ/ 연쇄를 비음화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김태경(2000), 고성연(2002)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발음에 영향을 미쳐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분하여 해당 단어가 합성어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음화하여 발음하게 된다는 설명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즉, (10)의 단어들은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외래어를 구성하는 각 어휘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이것이 /ㄴㄹ/ 연쇄에서 유음화가 더 자연스러운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것을 비음화로 발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9)에서 제시한 한자어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것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신선로’, ‘반라’, ‘광천리’ 등의 단어에서 이들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분리 인식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어를 유음화하여 발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발음 실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된 예 가운데 ‘음운론’의 발음에 대해 [으물론]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형태론적 단위에 대한 분리 의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음운론’에 대한 발음이 [으물론~으물론]으로 자유변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 생활에서의 관찰에 따르면 [으물론]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대체로 [으물론]에 대해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화자에서 일부 나타날 뿐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운론’에 대해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음운론’이라는 단어에 대한 구성 인식이 더 약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따른다.

이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서 유음화와 비음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문점을 낳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음화와 비음화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이는 곧 특정 단어에 대한 언중의 인식이 발음의 차이만큼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설명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가령, ‘상견례’의 경우 비음화되는 비율이 우세하기는 했지만 유음화되는 비율도 결코 낮지 않다. 그렇다면 전체 화자의 53%가 형태론적 구성을 분리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47%는 형태론적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가이다. 특히, ‘상견례’와 달리 ‘산록’의 경우는 이를 비음화하여 발음하지 않은 47%가 과연 ‘산’과 ‘록’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도 등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ㄴㄹ/ 연쇄의 자유변이현상에 대해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 언어 내적인 배경 또는 환경 가운데 하나로서 어휘를 구성하는 두 어휘소 간의 경계 설정의 문제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유음화와 비음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에는 한자어에 비해 외래어에서 비음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신어에서 나타나는 /ㄴㄹ/ 연쇄에서 유음화보다는 비음화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진호(1998)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음화 기제는 16세기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현대 국어에서 /ㄴㄹ/ 연쇄에 대해 형태 분석이 가능한 단위에 대해 한정적으로 비음화 기제를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기 시작한 정도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잠정적인 언급이기 때문에 이후에 빈도나 개별 화자의 특성 등을 통한 분석에서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빈도 분석을 통한 접근

4.3. 개별 화자의 특성에 주목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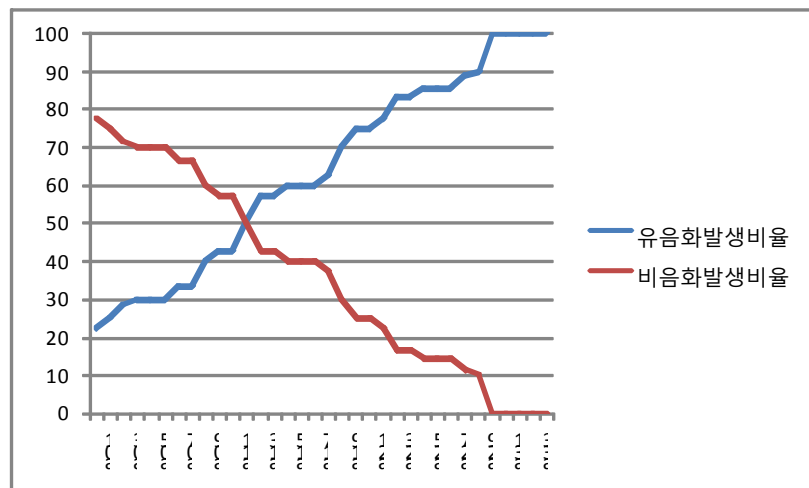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휘를 대상으로 발음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양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ㄴㄹ/ 연쇄가 유음화되거나 비음화되는 데 있어 개별 화자의 선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화자의 경우에는 유음화된 발음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음화를 선택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비음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유음화를 선택하는 비율보다 대단히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음화와 비음화의 공시적 공준은 현재로서는 화자 종속적인 변인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발음 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화자별 유음화 발음 비율과 비음화 발음 비율을 산출하였다.²⁷⁾

27) 산출 공식은 ‘유음화발음비율(%)=유음화발음횟수/(유음화발음횟수+비음화발음횟수)’, ‘비음화발음비율(%)=비음화발음횟수/(유음화발음횟수+비음화발음횟수)’로 하였고, 소숫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표 1> 화자별 유음화 발생 비율과 비음화 발생 비율

피험자	유음화발생비율 (%)	비음화발생비율 (%)	피험자	유음화발생비율 (%)	비음화발생비율 (%)
a01	22	78	a18	63	37
a02	25	75	a19	70	30
a03	29	71	a20	75	25
a04	30	70	a21	75	25
a05	30	70	a22	78	22
a06	30	70	a23	83	17
a07	33	67	a24	83	17
a08	33	67	a25	86	14
a09	40	60	a26	86	14
a10	43	57	a27	86	14
a11	43	57	a28	89	11
a12	50	50	a29	90	10
a13	57	43	a30	100	0
a14	57	43	a31	100	0
a15	60	40	a32	100	0
a16	60	40	a33	100	0
a17	60	40	a34	100	0

위의 <표 1>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은 유음화 발생 비율과 비음화 발생 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의 150% 이하로 실현되는 경우를 표시한 것인데, 이러한 구간에 속하는 화자는 전체 34명 가운데 9명에 불과했다. 동일 화자 내에서의 유음화 발생 비율과 비음화 발생 비율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 1> 화자별 유음화 발생 비율과 비음화 발생 비율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별 단어에서의 실현 양상에는 각 단어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화

자 내부적으로는 유음화를 선택하거나 비음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비교적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조사는 개별 화자의 발음 선호도가 화자의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의 경향성만을 언급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선호도 조사에서 화자의 언어 환경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질적 분석의 측면을 가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참고문헌

- 고성연(2002), “비음화와 유음화의 선택적 교체 현상”, 『언어연구』, 23,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pp. 3~26.
- 국립국어연구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a),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b),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 권경근(2010), “국어의 인접 자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27, 우리말학회, pp. 55~72.
- 김경아(2004),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적 교체에 대하여”,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5~37.
- 김태경(2000), “비음화와 유음화의 적용 기제에 대하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pp. 227~259.
- 박선우(2007), “한국어 /nl/의 변이에 대한 분석-패러다임 분석과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pp. 1~22.
- 서보월(1995), “국어의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하여”, 『어문논총』, 29, 경북어문학회, pp. 115~143.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이동석(2005), “형태소 내부의 순행 비음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9, 한국중원언어학회, pp. 117~138.
- 이세창(2006), “설정성 자음의 비음화와 설측음화에 관한 연구, 음성·음운·형태론연구12-3”, 한국음운론학회, pp. 643~659.
-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國語學』, 31, 國語學會, pp. 81~120.
- 임현열(2011), “동일 형태소의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음운론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ybee, Joan(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이지용 (고려대학교)

목차

1. 머리말
2. 개념적 은유 교육의 방향
3.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
 - 3.1. 교수-학습 내용
 - 3.2. 교수-학습 방법
4. 한국어 수업의 실제
 - 4.1. 교수-학습 계획안
 - 4.2. 교재 구성
5. 맺음말

1. 머리말

개념적 은유 이론은 단순히 언어를 수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던 은유의 위치를 인간의 사고방식을 설명해내는 인지적 기제로 격상시켰다. 말하자면 ‘어떻게’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의 문제에서 ‘왜’와 관련된 인지적 사고의 문제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개념적 은유 이론은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력으로 인해 언어 교육을 비롯한 여러 교과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념적 은유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및 인지체계에 대한 문제임을 역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 분야에서의 개념적 은유 연구는 어휘 및 관용어 또는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하다. 개념적 은유를 통해 관용적 또는 비유적인 표현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의 활용은 단지 어휘 의미 파악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학습자는 사고의 도구인 개념적 은유 그 자체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개념적 은유로 이미 형성된 것을 이해하는 수동적인 활용이 아니라 개념적 은유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영역에 적용해가는 능동적 활용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고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의 경우 교재에만 의지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입력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교재는 하나의 안내서일 뿐 그것이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만 학습자는 자신이 접했던 내용만 소화해낼 것이다. 고급 수준이라고 해서 그 수준에 있는 낯선 한국어를 모두 알 수도 없고, 학습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고의 도구일 것이다. 그리고 개념적 은유 이론이 이 사고의 도구가 된다. 이것은 초급과 중급에서 상향식으로 한국어의 조각을 맞춰오던 학습자에게 인지적 체계의 구축, 즉 하향식 사고 방식의 틀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개념적 은유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개념적 은유 이론이 한국어의 어휘나 관용어라는 언어 구성요소의 학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도구로서 의사소통의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 걸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의 방편임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개념적 은유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3장에서는 한국어 수업 설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념적 은유를 적용할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어 수업의 실제 교육 방안을 교재 형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를 찾을 것이다.

2. 개념적 은유 교육의 방향

개념적 은유 이론은 외국어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Petrie(1979)에서는 은유와 언어학습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은유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해주고 의사소통과 사고력을 증진, 심화시켜 준다.

둘째, 은유는 학습기억을 도와준다.

셋째, 은유는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주고 인지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도구의 역할을 한다.

넷째, 은유사용은 학습과 자신의 주의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다섯째, 은유적 사고를 통해 학습자는 분석적 사고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외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한국어 교육에서도 관용어나 어휘 학습 분야에서 개념적 은유 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개념적 은유의 일부분에 대한 활용이라고 여겨진다. Lakoff와 Johnson(1980)이 언급한 것처럼 은유는 더 이상 어휘적 자질이 아니라 개념적 자질이다. 또한 은유의 기능은 개념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며 이로써 인간의 사고 작용에서 은유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함에 있어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대한 인지적 기반을 넓혀나가야 하는 방편으로 또는 목적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¹⁾ 다른 교과

교육에서는 오히려 사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적 은유가 유독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적 분류를 위한 기준 정도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있는 듯하다. 주로 관용어나 어휘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이해의 방편으로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지 그렇다.²⁾

그런데 이렇게 관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 은유를 활용할 시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확실히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학습의 내용, 즉 개념적 은유에 대한 지식이 보태어져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관용어 교육이 정말 효율적이 되려면 하나의 개념적 은유를 교수함으로써 다수의 관용어의 의미적 투명성이 보장되어 의미의 유추가 가능해져야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개념적 은유와 관용어와의 관계가 일대 일이 아닌 일대 다 대응이 될수록 그 효율성은 입증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경우 학습자의 지적 수준도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외국어로 개념 은유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학습자가 흔하지 않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관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개념적 은유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면 투자 대비 소득이라는 면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다시 말해서 교육적 효율성의 문제를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개념적 은유를 외국어 학습에 도입해야 그 교육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개념적 은유는 인지적 기제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이해력에 보탬이 되기만 하면 그 의의를 찾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념적 은유를 적용하여 공들여 분류 및 분석해 놓은 교육 내용에 대한 수업은 상황에 따라 교사의 판단에 기대는 것으로 대체되거나 부분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 교육에서 특히 어휘나 표현에 대한 교육은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은 자명하다. 학습자의 지식 축적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개념적 은유 이론을 적용한 교육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내용의 체계를 구성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교육 내용의 체계를 개념적 은유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학습 대상이 되는 목표 어휘나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한 것이다. 개념적 은유를 기준으로 하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수의 관련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교육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학습 대상이 되는 목표 어휘나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손’이 포함된 표현을 묶어서 제시한다든지 또는 ‘감정’과 관련된 주제의 표현들을 묶어서 제시하는 방식은 교육적으로 볼 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1)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은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인 Angela Lee-Smith(2004)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개념적 은유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초급에서는 어휘 교육에, 중급과 고급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교육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실제 교육 방안 제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개념적 은유 자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최세원(2006)에서는 다양한 개념 은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이러한 은유 표현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재 제작 시 개념 은유의 체계를 감안하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은유 표현을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이에 대한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비단 언어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고의 문제로 개념적 은유의 교육적 적용을 확장시켜야 하기에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손’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표현을 묶어서 분류하여 각각의 표현에 해당하는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표현을 변별해내야 하기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감정’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표현을 분류하면, 주제 집약적인 표현들을 함께 모아 교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표현을 맥락화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과도한 양의 관용어가 사용되어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들은 개념적 은유 이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된 문제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개념적 은유를 관용어나 어휘 분류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교육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념적 은유를 기반으로 하는 관용어 및 어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개념적 은유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관련 표현에 대한 교육은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념적 은유라는 사고의 운용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관련 표현과 의사소통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확보된 개념적 은유라는 양질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방편으로서의 개념적 은유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겠다.

3.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

3.1. 교수-학습 내용

본 수업의 내용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개념적 은유와 과제 및 기능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수업 설계를 위해 선택한 개념적 은유는 [정치는 전쟁이다]와 이와 연계된 개념적 은유이다. 변정민(2002)에서는 정치 은유를 전쟁, 자연 재해, 생물, 자연물, 장소, 불, 경기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김길동(2008)에서는 정당 대변인이 논평을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은 여섯 가지의 정치 은유를 추출해냈다. 가족, 바람, 전쟁, 스포츠, 질병, 연극이 그것이다. Soontaree Larprungrueng (2007)에서는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분석하여 경쟁, 생명체, 물체, 이동, 자연현상, 질병, 학습, 예술, 경제 은유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은유 가운데 전쟁 은유를 중심 은유로 삼아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본 수업에서 과제로 삼은 토론 기능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의 대표적인 개념적 은유이기 때문이다. 수업 내용으로 구성된 개념적 은유의 예시 문장들은 수업 대상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임지룡(2006), 류영미(2006), 김길동(2008), Soontaree Larprungrueng (2007)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거나, 적절한 신문 기사를 찾아 발췌하였다.

정치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의사소통 기능과의 연계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듣기 영역은 토론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론과 정치의 개념적 은유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토론이 정치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고

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토론하기’ 기능은 필수적 교육 내용이 된다.

정치 내용에 대해서는 읽기와 쓰기에서 다루는 기사 텍스트를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읽기와 쓰기의 텍스트 유형으로 기사 헤드라인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 관련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 분류된 개념적 은유가 교육 내용이 되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겠다.

3.2. 교수-학습 방법

은유를 이해와 표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그 절차를 정리해보면 첫째, 근원영역에 대해 파악하기 둘째,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대응하기³⁾ 셋째, 목표 영역의 이해 및 표현의 확장하기라는 세 가지 단계로 제시될 수 있다.⁴⁾ 그리고 이러한 세 단계를 OHE 방법론을 이용하여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개념적 은유를 사고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고의 취지와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OHE 교수 방법론이란 관찰(Observation), 가설(Hypothesis), 실험(Experiment)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은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이며, 가설은 관찰과 발견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은 탐구와 시도를 위한 단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언어적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그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관찰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이 방법론에서는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도 OHE 교수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교수 모형의 부분적 수정이 요구된다. 개념적 은유의 경우 귀납적 추론을 통해 학습자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학습 목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개념적 은유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단지 문제에 대해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발견 학습을 통한 귀납적 추론으로 가설을 설정, 즉 개념적 은유를 발견하는 이 단계를 ‘관

3) 개념적 은유의 사상적 양상을 교수-학습해야 하는 이유로 김성태(2000)에서는 사상적 양상을 모르더라도 의미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고과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창의적인 언어 사용에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김성태(2000)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외국어 습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 언어권의 문화로의 통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고과정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4) 이동혁(2009)에서는 글쓰기 과정과 관련하여 ‘근원영역 선택하기,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대응하기, 은유를 이용하여 텍스트 조직하기’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상한(2009)에서는 개념적 은유를 활용하여 시를 바꾸어 쓰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로 ‘비유의 대상 찾기, 낯익은 대상과 낯선 대상 구별하기, 낯익은 대상의 의미 파악하기, 두 대상간의 의미 연결하기, 낯익은 대상에서 새로운 낯선 대상의 낯말 찾기, 낯선 대상에서 새로운 낯익은 대상의 낯말 찾기, 새로운 낯선 대상과 낯익은 대상의 낯말 찾기’로 매우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Boers(2000)에서는 일상어로서의 은유에 대한 인식, 은유표현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은유표현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 은유의미의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인식, 은유표현의 언어 간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다섯 가지의 인식이 개념적 은유 학습의 결과로 학습자에게 초래되는 요소라고 제안하였다. 즉 은유 인식의 유형을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영실(2006)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어 수업의 단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학습 요소 가운데 문화 및 언어 간 차이에 대한 인식이라는 부분은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어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 과제 중 하나로 구성될 수는 있겠으나 필수적으로 모든 은유 교수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5) 이에 비해 PPP 교수 방법론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언어를 통제하고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한국어의 개념적 은유가 학습자들에게 낯설어서 또는 개념적 은유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개념적 은유를 사고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학습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찰'이 아닌 '가설 설정'으로 정하겠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OHE 교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가설 설정-가설 검증-실험 확장'의 세 단계로 제시하겠다.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먼저 근원영역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을 대응시킴으로 개념적 은유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동일 주제 하에 있는 다른 개념적 은유로의 확장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동일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적 은유에 대해 배우면서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언어 사용에 있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확장의 단계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념적 은유를 표현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기능을 사용하는 단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은유 이론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개념적 은유의 교수-학습 모형

수업 단계	교수-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가설 설정	개념적 은유의 존재 인식	-개념적 은유 설정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존재에 대해 파악	-선행 조직자 ⁶⁾ 를 통한 귀납적 추론
가설 검증	개념적 은유의 의미와 체계의 이해 및 분석	-근원영역의 구성범주 파악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대응 -동일 주제의 다른 개념적 은유 파악	-근원영역의 구성요소 찾기 -mapping -개념적 은유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의미 파악 -문장에서 개념적 은유가 포함된 표현 찾기
실험 확장	개념적 은유와 관련된 기능 수행 및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	-의사소통 기능과 통합 -목표영역 이해 및 표현 확장	-주제, 근원영역, 목표영역과 관련된 기능이나 또 다른 은유로 확장된 과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행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개념적 은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선행조직자를 통해 목표 은유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게 되고, 근원영역에 대한 표면적 파악을 하게 된다. 즉,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탐구를 위해 발판을 다지는 과정이 된다.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개념적 은유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을 대응시키는 것이 학습의 요소이며 이것은 발견 학습을 통한 귀납적 추론과 그것에 대한 검증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 대한 훈련을 통해 학습자는 주어지는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탐구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확장 단계에서는 개념적 은유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하게 된다. 목표영역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의사소통 기능과 통합하여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 대한 고려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인지적 훈련을 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 하여도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6) 선행 조직자는 오스벨이 제시한 인지전략으로서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회상하여 새로운 정보와 연결할 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 목표가 되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 지도나 도표,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며 기존 지식과 목표 지식 간 긴밀한 연결로 인지적 구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4. 한국어 수업의 실제

4.1. 교수-학습 계획안 : [정치는 전쟁]

<표 2> 교수-학습 계획안 : [정치는 전쟁]

학습 목표	· 정치 관련 개념적 은유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정치 관련 개념적 은유를 적용하여 토론하기, 기사 헤드라인 읽고 쓰기 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교수 학습 범주	개념적 은유		정치는 전쟁
	과제 및 기능	듣기	대화를 듣고 토론에 대한 개념적 은유 찾기
		말하기	개념적 은유를 기준으로 분류된 토론의 태도를 주제로 토론하기
		읽기	기사 헤드라인을 읽고 정치에 대한 개념적 은유 찾기
	쓰기	기사 헤드라인 쓰기	
단계	학습 요소		학습 활동
가설 설정	-수업의 도입 단계로 학습자는 [정치는 전쟁이다]라는 개념적 은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두 사진을 보고 공통점 파악하기 -개념적 은유 설정하기
가설 검증	-개념적 은유 [정치는 전쟁이다]의 의미와 체계에 대해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일 주제의 다른 개념적 은유인 [정치는 경기이다], [정치는 연극이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근원영역의 특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구조 분석하여 대응하기 -주어진 표현에서 [정치는 전쟁]의 어떤 구성요소에 대한 은유인지 알아보기 -[정치는 경기],[정치는 연극]을 담고 있는 표현을 보고 개념적 은유 찾아보기
실험 확장	-[토론은 전쟁이다]와 관련된 듣기와 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한 토론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 -정치 관련 헤드라인을 읽고 [정치는 전쟁이다]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헤드라인의 문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기사를 읽고 헤드라인을 쓸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 ·과제 수행 전 -두 사진을 보고 개념적 은유 설정하기 ·과제 수행(듣기) -토론 태도에 대한 대화 듣고 토론에 대한 개념적 은유 찾기 ·과제 수행(말하기) -토론에 대한 개념적 은유 선정하여 바람직한 토론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 토론하기 ·과제 수행 후 -[은/는 전쟁이다]에서 목표영역 바꿔보기 <읽기와 쓰기> ·과제 수행 전 -사진 보고 헤드라인 만들기 ·과제 수행(읽기) -[정치는 전쟁]과 관련된 헤드라인 읽고 전쟁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내용 추론하기 -헤드라인 작성법에 대한 글 읽고 내용 이해하기 ·과제 수행(쓰기) -신문기사 읽고 헤드라인 만들기 ·과제 수행 후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치 관련 개념적 은유 찾고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말하기

4.2. 교재 구성

이 절에서는 개념적 은유에 대한 교수-학습이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학습 활동들을 교재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예는 수업의 전부가 아닌 교수 자료의 일부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는 각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어휘나 문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제에 관한 내용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의 범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업의 분량도 여러 단계로 분할될 수 있겠다.⁷⁾

1) 가설 설정 단계



 는

 이다





↑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7) 이 부분에서 보여주교자 하는 개념적 은유에 대한 교육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수업 현장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였다.

2) 가설 검증 단계



전쟁은..... ? 누가 할까요?

어느 경우에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할까요?







전쟁과 정치를 비교해 보세요,

전쟁	• —	• 정치
전쟁 결과	•	• 정치인
전장	•	• 정치적 행동
공격과 방어	•	• 정치 현실
군인	•	• 정치적 행동 유형
전쟁 유형	•	• 정치적 수단
전략	•	• 정치적 상황의 변화
무기	•	• 정치적 계획이나 의도



[정치는 전쟁] 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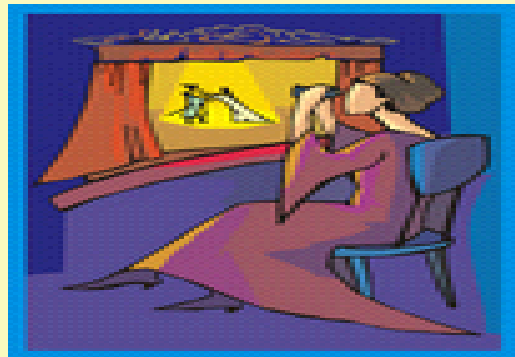
여당은 지금 세금과 전쟁 중이다,
여야가 서로 혈전을 벌였다,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창과 방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는]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주00과 검사가 '술자리 폭언'에 대한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유00은 이번 선거에서 턱걸이로 이겼다,
구원투수인 정00의 '방어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00 서울시장의 맹추격으로 박00 대표가 당황하고 있다,
여당의 재보선 참패 결과는 정국주도권에 타격을 가했다,
이번 선거에 여야의 정당한 한판승부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국정운영 능력은 꼴찌이다.

지금 정치 상황은 슬픈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은 내가 하면 예술이지만 나를 다루면 인격모독이라 여긴다,
이번 사건은 김00이 주연이고, 편파 언론이 조연으로 출연하였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국민을 위한 쇼가 연출되고 있다,
국민은 남이 써준 대본을 읽으며 박수를 받는 연출 후보는 싫어한다.



3) 실험 확장 단계

- 듣기와 말하기 과제 수행 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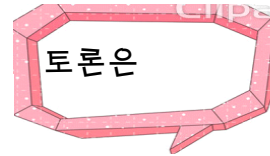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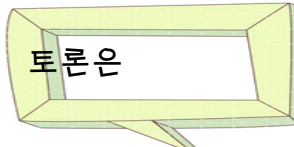


(이)다

- 듣기 과제



다음 대화를 듣고 민수와 유나는 각각 토론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민수 : 너 어제 100분 토론 봤니?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 역시 토론은 과격해야 제 맛이야,

유나 : 글썄, 나는 너무 과격한 토론을 보면 거부감이 들던데,

민수 : 그래도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 싸움에서 이기려면 좀 과격하게 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잖아,

유나 : 과격하게 말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될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기는 게 진짜 승리 아니겠어?

민수 : 그건 그래, 그런데 나부터가 토론을 할 땐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말이야,

유나 :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더라도 공손한 태도로 하는 게 좋고,

민수 : 공손하게 공격하라고? 어떻게? 게다가 나만 공손하게 말하다가 지면 어떻게 해?

유나 :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사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겠어? 토론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 무조건 이기려고만 들지 말고 자기주장에 단점도 인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진짜 토론이지,



다음 문장에서는 [토론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논지를 잘 방어했다,

그의 주장은 여론의 표적이 되었다,

나는 그와 논쟁에서 결코 이겨보지 못했다,

- 말하기 과제



토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토론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토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토론은]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토론의 방법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전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더 생각해 보세요.

- 읽기와 쓰기 과제 수행 전



위의 사진으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 읽기 과제



다음은 '정치는 전쟁' 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입니다.
각 기사가 전쟁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분류해 보세요.

NEWS

여당과 야당, 불씨 남긴 '불안한 휴전'

수원시장 선거 최후의 혈전

이00, 당 대표직 전격 사퇴...정계개편 신호탄?

4.13총선 공정성 조사...야 날 세우고, 여 방패 다듬고

결국 '정부'가 하반기 물가폭탄 '안전판' 뚫았다

"MB정부, 작심하고 '폭탄 돌리기' 나섰다"

김00 "야당은 찌르고 공격하는 맛이 있어야"

김00 "진보야당, 연합하려면 합세전략 펼쳐라"

푸틴, 12월 총선 압승 노린 '국민전선' 제안

초반 대혼전...맞춤형 선거전략 승부

여야, 격전지 총력전으로 최후승부

시민단체 "방송을 정권 전리품으로 여긴다"

여야, 결전 다가오니... 정책 대신 비난전

입심 공격수 홍00 vs 독심 수비수 원00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방탄 국회용' ?

민주당 "MB 지지율 상승...위장전술 통하는 듯"



기사 제목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 이 기사를 읽음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창업 성공을 위한 3가지 법칙
돈 버는 인터넷 쇼핑물, 이렇게 구축한다!
2. 호기심을 자극한다, 질문한다.
땅 속 암반 마찰열 온천으로 솟아나다
=> 우리나라 온천, 어떻게 생겨났나?
구인 구직 서비스 =>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습니까?
3. 숫자나 통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
몸무게를 빼는 방법 => 한 달에 5kg빼는 방법
한국의 이혼율이 늘고 있다 => 한국의 이혼율, 작년에 비해 20% 급증
4. 간결하게 쓰는 것은 좋다.

- 쓰기 과제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어울리는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 사진 왼쪽부터 강제섭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최근 미디어 정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미지'는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의상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신경 쓴다. 어떤 정치인은 소박함을 나타내는 옷차림새를 하는가 하면, 젊은 세대와 호응하기 위해 청바지 등을 즐겨 입기도 한다.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각 개별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사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개혁적이거나 진보적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젊은 세대의 호응을 받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인들의 이미지로 인해 가끔은 나이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실제 나이를 알고 나면 "깜놀(깜짝 놀랐다)"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4.27 선거에서 맞붙었던 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이런 착시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5선 의원 출신인 강 전 대표와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출신인 손 대표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전 대표가 손 대표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 전 대표가 손 대표에게 1살 아래 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손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동생'인 강 전 대표가 낙선하였다.

또한 트위터 등에 능하고 각종 회의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등 젊은 세대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1957년생이다. 이 같은 정 전 최고위원의 나이로 인해 홍준표 전 최고위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4선 중진인 홍 전 최고위원(1954년생)이 '젊은 대표' 후보인 재선의 정 전 최고위원과 실제로 3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접한 일부 기자들은 "진짜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홍 전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사실 홍 전 최고위원도 '젊은 대표' 후보 중 한 사람"이라며 "생물학적인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이 젊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현 기자]



앞의 기사의 실제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목과 비교해 보세요.

알고 보면 ‘깜놀’할 정치인의 나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중 누가 형일까?"



이 기사는 [정치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맺음말

이상으로 개념적 은유를 한국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개념적 은유를 언어요소에 대한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능력에 걸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표현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이러한 한국어의 인지적 개념화 도구는 반드시 교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제시되면 그 인지적 부담감으로 인해 오히려 학습자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은유는 반드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행되는 언어 기능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개념적 은유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실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선정과 가공,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은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길동(2008), “정치 은유의 구조와 양상 : 정당 대변인 논평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한(2009),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시 ‘바꾸어 쓰기’ 지도 방안”, 『국어교육』, 128. 국어교육학회.
- 김성태(2001), “개념적 은유의 교수·학습 방법”,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실(2006), “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의 은유 교수-학습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영미(2006), “은유적 표현의 유형과 보편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변정민(2002), “한국어의 은유 표현 연구 : 정치 은유를 중심으로”, 『동국어문학』, 14. 동국어문학회.
- 유경민(2008), “개념 은유를 활용한 한국의 어휘·문화 교육 :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은유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 의미학회.
- 이동혁(2009), “개념적 은유 이론에 기반한 글쓰기 전략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 이종열(2002), “국어 비유적 의미의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최세원(2006), “한국어 교재의 명사 은유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gela Lee-Smith(2004),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은유 교수 연구”, 『한국어교육』, 15(3),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Boers, F.(2000), Metaphor awareness and vocabulary retention, *Applied Linguistic*, 21(4).
- Lakoff, G. and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rie, H. G.(1979), *Metaphor and though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ontaree Larprungrueng(2007), “한국 신문 헤드라인에 나타난 은유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ro의 본질에 대하여

엄홍준 (중앙대학교)

목차

- 1. 목적
- 2. 공범주의 종류와 pro

1. 목적

이 글의 목적은 공범주 중의 하나인 pro의 본질을 밝히고 한국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에서 발견되는 공범주는 pro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하위인접 조건을 위반하지만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판정받지 않는 WH-구문과 주제화구문에서 나타나는 공범주도 또한 pro라는 것을 밝히고자한다. 하지만 전자는 대명사류적인 성질을 지니고 후자는 변항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하여 두 pro의 차이를 조명한다.

2. 공범주의 종류와 pro

공범주 (Chomsky 1982)

- | | | |
|-----------------|----------|---------------------------------------|
| a. 명사구-흔적 | [+a, -p] | |
| b. PRO | [+a, +p] | |
| c. pro | [-a, +p] | |
| d. 변항(variable) | [-a, -p] | a=대용사류(anaphoric), p=대명사류(pronominal) |

2.1 논항이동

- (1)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c. [할아버지께서i [[CP ei 노인정에 가신]것] 같으시다]
- (2) a. 철수가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 c. 철수가 영희를i [CP ei 예쁘다고] 생각한다.
 (3) a. 철수는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
 b. 철수는 영어가 배우기 어렵다.
 c. 철수는 영어가i [[PRO [ei 배우]]기]] 어렵다.

(1)-(3)에서의 b는 모두 a에서 명사구 이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는 명사구의 흔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흔적은 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 흔적과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명사구 흔적은 격을 지니지 말아야 하고 또한 대명사류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 이론 A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위치에 있는 요소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고 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흔적은 결국 이론 A에 따라 내포절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절 안에서는 이 흔적을 계속할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이론 A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흔적을 명사구 흔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2 pro라는 증거

결속이론 (Chomsky, 1981:188)

- A. 대명사류는 자신의 지배 범주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B. 대명사류는 자신의 지배 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C. 지시 표현류는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

pro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 요소는 격을 지닐 수 있고 대명사류에 해당하는 결속이론 B를 준수하기 때문에 합당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할아버지께서’의 원래 위치는 내포절의 주어의 위치이기에 격을 인허받는 자리라는 것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pro는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속이론 B를 준하고도 있다. 따라서 이 요소를 pr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도 마찬가지이다. 이 요소는 격도 인허받고 결속이론도 준수하는 pro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pro는 이 위치에서 주격을 인허받고 또한 대명사류가 속하는 결속이론 B도 준수한다. 따라서 공범주를 pro로 보는 구조가 올바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경험적인 증거

주어 인상 구문

- (4) a. **Jan** sanble li pati
 'John seems he leaves'
 b. pro sanble **Jan** pati
 'It seems that John left'
 c. ***Jan** sanble pati
 'John seems leave' 아이티 크레올 (Vivian Deprez, 1992)
- (5) a. **pro** Sembra che Giovanni sia felice
 'It seems that Giovanni is happy.'
 b. Giovanni Sembra che **pro** sia felice.

'Giovanni seems that is happy.'

목적어 인상 구문

- (6) Afisa **ton yani** na kerdisi **aftos** o idios to pegnidi.
 let/1Sg John/ACC SUBJ win he himself the game
 'I let John himself win the game.'
 (Literally: 'I let John that he himself win the game.')
 그리스어(Permulter & Soames, 1979)

- (7) a. **Sen-i** öl-dü-n san-ıyor-du-m.
 you-ACC die-PST-2SG believe-PROG-PST-1SG
 I believed you to have died.
 b. **Sen-i** [[**pro**_i öl-dü-n] san-ıyor-du-m]

시제절 조건(Radford 1981:249)

시제절의 어떤 요소도 그 절 밖으로 이동 할 수 없고 그 절박에 있는 다른 요소로 해석될 수 없다.

2.2 비논항 이동

- (8) a. *이 사람은 **t_i**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_i이다.
 b. 이 사람은 **pro_i**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_i이다.

만약 (8a)에서 **t_i**로 표시하여 통상적으로 wh-흔적이라고 한다면 섬 조건을 위배하게 되어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8b)에서처럼 이것을 **pro**로 가정한다면 (8a)의 비문법성을 완화시키거나 제거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재현 대명사는 기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pro**자리에 외현적인 대명사가 채워진다면 문법성은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9) ?*이 사람은 그가_i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_i이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어에서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재현 대명사가 내현적인 형태인 **pro**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언어의 예

- (9) a. There are guests who I am curious about what **they** are going to say.
 b. *There are guests who I am curious about what **t** are going to say.
 (10) a.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pro** possa VP]
 this is the girl who I wonder who thinks that she may VP
 b.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t** possa VP]

이탈리아어 (Chomsky, 1981, Bouchard 1983)

PRO

PRO는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pro

pro는 지배되어야 한다.

변항

공범주가 만약 A-위치에 있고 국부적으로 A'-결속된다면 변항이다.

(An EC is a variable if it is an A-position and is locally A'-bound)

재현 대명사와 복사 인상 대명사의 특징

1. 재현 대명사와 복사 인상에서의 대명사는 그 형태가 공히 pro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재현 대명사는 변항처럼 행동하고 복사 인상에서의 대명사는 대명서처럼 행동한 다.
3. 2의 결과로 재현 대명사는 결속조건 C를 준수해야하고 복사 인상에서의 대명사는 결속 조건 B를 준수해야 한다.
4. 재현 대명사는 (언어에 따라) 섬 효과를 제거하고 복사 인상에서의 대명사는 정형절 효과 (시제절 조건)를 제거한다.

Consequence

John is easy to please.

과연 John이 기저-생성되었나?

John이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참고문헌

서정목(2000), 『변형과 제약』, 서울: 태학사.

엄홍준(2010), “한국어에서의 논항이동과 pro”, 『현대문법연구』, 59, pp. 67-88.

엄홍준·김용하(2009),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 학적 고찰”, 『언어』, 34(3), pp. 583-602.

Asudeh Ash and Ida Toivonen(2007). *Copy Raising and Perception*, ms.

Brendemoen, Bernt and Eva A. Castó(1986). The Head of S in Turkish: A Comparative

- Approach to Turkish Syntax, In Ayan Aksu-Koç and Eser Erguvanh-Taylan eds., *Proceedings of the Turkish Linguistics Conference*, 85-100, Boğaziçi University Publication, Istanbul.
- Bouchard, Denis(1984), *On the Content of Empty Categories*, Dordrecht: Foris.
- Chatsiou, Aikaterini K.(2006), On the Status of Resumptive Pronouns in Modern Greek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Proceedings of the LFG 06 Conference University at Konstanz*, eds. Miriam Butt and Tracy Holloway King 2006 CSLI Publications
- Chomsky, Noam(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the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Deprez, Viviane(1992), Raisig Construction in Haitian Creol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pp. 191-232.
- Deprez, Viviane(2000), *Haitian Creole Se: a Copula, a Pronoun, both or neither? On the Double Life of a functional Head*, ms.
- Engdahl, Elisabet(1985), Parastic Gaps, Resumptive Pronouns, and Subject Extractions, *Linguistics*, 23, pp. 3-44.
- George, Leland M. and Jacklin Kornfilt(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Binding and Filtering*, ed., Frank Henry,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Kim, Dong Suk and Yong Ha Kim(2003), Korean ECM Constrution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pp. 47-77.
- Koopman, hilda(1982), Control from COMP and Comparative Syntax, *Linguistic Review*, 2, pp. 365-391.
- Kuno, Susumo(1976), Subject raising. In *Syntax and Semantics 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ed. Masayoshi Shibatani, 17-49. New York: Academic Press.
- Mckloskey, James(2006), Resumption. In Syntax IV, eds. *Everaert & Riemsdijk.*, pp. 94-117. Blackwell.
- Meral, Hasan Mesud(2004), *Resumptive Pronouns in Turkish*, Master's Thesis. Boğaziçi University.
- Moore, John(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pp. 149-189.
- Mulder, Jean(1976), Raising in Turkish,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eds., Cathy Cogen et al. 298-307.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Permulter, David.and Scott Soames(1979),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rkeley.
- Potsdam, Eric and Jeffrey T. Runner(2001), Richard returns: Copy Raising and its implications, *In Papers from the 37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453-468.

Radford, Andrew(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중앙어문학회 제26차 정기학술발표회

고전문학

사회: 이명현

宮女를 소재로 한 愛情敍事의 스토리텔링 樣相 연구:
「雲英傳」과 「英英傳」을 中心으로 /
유권석 (남서울대)

조선전기 사대부의 기생 점유 양상 고찰: 여악 폐지론을 중심으로 /
김정욱 (경희대)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 /
이은희 (강원대)

宮女를 소재로 한 愛情敍事의 스토리텔링 樣相 연구: 「雲英傳」과 「英英傳」을 中心으로

유권석 (남서울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스토리텔링 樣相
 - 1. 幻想의 분위기와 善男善女의 만남
 - 2. 禁止된 사랑과 普遍的 慾望의 엇물림
 - 3. 超越과 反轉을 통한 해피엔딩의 추구
- III. 궁녀 소재 스토리텔링의 意味와 展望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17세기 애정소설인 「雲英傳」과 「英英傳」을¹⁾ 텍스트로 삼아 愛情敍事に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樣相을 살펴보고 궁녀 소재 스토리텔링의 意味와 展望을 고찰해 보기 위해 시도된 논문이다.

주지하다시피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애정 문제는 서사 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꾸준히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 오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활용한 文化産業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설에 존재하는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法古創新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스토리 창작의 母胎이기 때문이다. 특히 宮女와 관련된 애정서사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은 기존에 宮女를 소재로 했던 드라마와 영화 등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004년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韓流의 중요한 소재로 떠올랐던 MBC드라마 「대장금」이나 2006년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宮」, 2007년 김미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영화 「宮女」, 궁을 소재로 한 일련의 史劇 등이 이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 남서울대 교양과정부 교수

1) 「雲英傳」은 국립도서관 소장 漢文本을 「英英傳」은 국립도서관본으로서 異本人 「想思洞記」를 자료로 삼았다.



이 밖에도 궁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나 도서, 광고 등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궁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궁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확대되는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궁이라는 카테고리가 내포하고 있는 비밀스러움과 신비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雲英傳」과 「英英傳」은 궁녀와 일반 사대부의 사랑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²⁾ 그러나 「운영전」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고전소설 작품 중에서 결말이悲劇으로 귀결된 유일한 작품이며³⁾, 「영영전」은 이와 반대로 희극으로 끝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만남→사랑→장애→결합이라는⁴⁾ 일반적인 애정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서사 구조 등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와⁵⁾ 순차 구조를 바탕으로 한 애정 구현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⁶⁾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운영전」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방안과 「운영전」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에서 캐릭터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⁷⁾ 그러나 궁녀의 사랑이라는 원천소재에 나타나 있는 스토리텔링의 전반적인 특징에 주목한 경우는 없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야기는 읽는 재미와 감동이 전제될 때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⁸⁾ 이를 토대로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 신분제가 엄격하게 유지되던 조선사회에서 궁녀와 사대부의 사랑은 일대 사건이자 일부 사람들에게는 로망에 가까운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再現되고 있다. 즉 재벌과 서민, 인기 연예인과 재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 등이 세인들의耳目을 집중시키고 선망의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운영전」과 「영영전」의 애정서사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오늘날의 디지털콘텐츠를 앞세운 媒體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

2) 신동훈 교수는 「운영전」에 대한 패러디로서 「영영전」이 탄생했다고 보았으며, 「영영전」은 「운영전」에 나타난 기존의 관습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신동훈(2001), 「운영전에 대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영영전」,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pp. 313~339.)

3) 「운영전」의 悲劇性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명순(1986), 『고전소설의 비극성 연구』, 창학사, p. 151, 박일용(1993),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pp. 163~184, 소재영(1971), 「운영전 연구」, 『아세아연구』, 41, pp. 159~167)

4) 김문희, 「17세기 애정소설의 장르적 역동성」,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보고서, 2001, p. 42.

5) 김낙효(1989), 「<영영전>의 구조와 의미」, 『한국학논집』, 16, pp. 65~89.

김지연(2005), 「<운영전>의 서사구조와 시점연구」, 『새얼어문논집』, 17, pp. 229~259.

박일용(1993),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사실과 낭만의 사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pp. 163~184.

서은아(2009), 「<영영전>의 인간관계 분석과 문학치료 텍스트로서의 가치」, 『국학연구』, 15, pp. 403~426.

6) 김연정(2005), 「<운영전>과 <영영전>의 애정 구현 양상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9.

배원용(1981),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고찰」, 『국제어문』, 2, pp. 73~94.

7) 정길수(2009),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 28, pp. 71~83.

함복희(2009), 「고전소설 속 애정 서사의 스토리텔링 방안」, 『어문논집』, 42, pp. 258~263.

8) 김의숙, 이창식(2008),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p. 68.

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운영전」과 「영영전」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살펴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러티브적 특징을⁹⁾ 밝혀보고 현대적 觀點에서 궁녀 소재 스토리텔링이 지닌 의미와 다양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스토리텔링 양상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을 이야기가 펼쳐지며 발단에서 결말에 이르는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양한 플롯이 개입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플롯에는 작품의 興味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事件들이 담기게 마련인데, 이러한 사건들이 스토리텔링을 형성하는데 至大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찍이 스토리텔링의 개념에 대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 양식이라고¹⁰⁾ 지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정소설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사 속에 존재하는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주어진 서사의 나열이 아닌 感性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특징을 도출해 내야한다.¹¹⁾ 그리고 사건의 결합은 사건의 핵과 위성이 서로 궤도 이탈하지 않게 시간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유지된다.¹²⁾는 지적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할 때 세세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을 밝혀내고 이것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살피는 端初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전」과 「영영전」의 애정서사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이 전개되는 순차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러티브적 요소들을 추출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애정소설인 「운영전」과 「영영전」의 순차구조는 크게 만남→사랑→시련→결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가 갖는 특징은 스토리를 살펴보면 두 작품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견된다. 「雲英傳」의 경우는 유영이라는 선비가 안평대군이 거쳐하던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유영이 꿈에서 김진사와 유영이라는 인물을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과정과 안평대군에게 발각되어 뺏어지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게 된 내용, 두 사람이 본래 선인들이기 때문에 天上界에서 다시 함께 지내게 된 내용을 듣게 된다. 그리고 유영이 술에서 깨어나니 책자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 스토리의 핵심이다. 즉 유영이 술에 취해 두 사람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전해 주는 이중 구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英英傳」은 액자형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김생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본 미인에게 반하여 想思洞까지 따라 갔으나 놓치게 된다. 김생은 하인 막동을 통해 미인의 행방을 찾게 되고 想思洞에 사는 노파에 의해 미인을 찾아 사랑을 나누

9) 최예정, 김성룡(2005),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pp. 60~127.

10) 이인화외,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3, p. 13.

11) 김민주, 『성공하는 기업에는 스토리가 있다』, 청림출판, 2003, p. 159.

12) 최예정, 김성룡(2005), 앞의 책,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p. 101.

게 된다. 여자 주인공인 영영이 회산군의 궁녀였기 때문에 김생은 궁을 넘나들며 사랑을 나누다 노파가 죽는 바람에 소식이 끊어지고 만다. 그 후 김생이 장원급제하여 稱病하고 회산군택에 들어가면서 다시 만남이 이어지고 김생이 상사병으로 죽게 된 것을 친구가 도와주어 百年偕老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야기에 궁녀가 등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두 작품처럼 사랑을 추구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 작품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두 작품에 나온 애정서사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기획될 수 있는 蓋然性이 존재한다. 두 작품의 순차구조에서 애정과 관련된 만남, 사랑, 시련과 결말의 서사를 중심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幻想的 분위기와 善男善女の 만남

소설이란 일반적으로 여성 독자를 의식하면서 남녀관계의 애정과 시련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문학의 다른 갈래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¹³⁾ 지적처럼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나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과 「영영전」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만남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술을 매개로 한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평대군이 거쳐하던 수성궁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된 유영은 술에 취했다가 깨어나 두 주인공을 만났다.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것도 술이었다. 술을 마신 뒤 기분이 한껏 들뜬 상황에서 仙界와도 같은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와 맞물려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영영전」에서도 남자 주인공 김생은 봄빛의 아름다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술을 마셨으며 술기운으로 인한 몽롱한 분위기에서 아름다운 영영의 美貌에 단번에 빠지게 된다. 둘째, 여성 주인공의 미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름답다는 것과 사대부인 남성과 동등하게 詩로 화답을 할 정도의 文才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¹⁴⁾ 운영과 영영의 추한 외모는 상상할 수 없다. 「영영전」에 비해 「운영전」에 묘사된 여주인공의 모습은 단순하면서도 간접적인 표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애정의 주체가 여성인 운영이기 때문이다. 「영영전」에서는 김생의 시각에서 영영이 묘사되기 때문에 영영에 대해 매우 자세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영전」에서는 반대로 김진사를 흠모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김진사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한다. 남녀 주인공들은 外貌와 文才가 갖춰진 상황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격이 다른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셋째, 남자 주인공의 경우 年少함에도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문제가 뛰어나고 외모 또한 준수하다는 점이다. 어린나이와 탁월한 文才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當代 남자의 理想的인 자격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같은 사랑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술을 매개로 한 환상적인 분위기와 남녀 주인공들이 갖추고 있는 남다른 外貌와 文才는 처음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충분히 호감을 가질만한 조건이며 이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1, p. 492.

14) 「운영전」을 전기소설의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애정서사에 나타난 특징으로 이러한 능력이 지적된 적이 있다.(강상순(2007), 「전기소설적 애정 서사의 변주 혹은 패러디에 대한 일고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 p. 32.)

술병을 풀어서 다 마시고는 취하여 바윗가에 돌을 베개삼아 누웠더니, 잠시 후 술이 깨어 얼굴을 들어 살펴보니 유객은 다 흩어지고 없었다.

미인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 저녁 우연히 고인(故人)을 만났고, 또한 기억하지 않았던 반가운 손님을 만났으니, 오늘밤은 쓸쓸히 헛되이 넘길 수 없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주잔(酒饌)을 준비하고, 아울러 붓과 벼루도 가지고 오너라.'
유리로 만든 술병과 술잔, 그리고 자하주(신선이 마시는 자줏빛의 술)와 진기한 안주 등은 모두 인세(人世)의 것이 아니더라.¹⁵⁾

김생은 봄날의 흥취에 젖어서 목이 마를 정도로 술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흰모시 적삼을 전당잡히고 진주 빛이 나는 홍주(紅酒)를 사서 꽃무늬가 그려진 자기(磁器) 술잔에 따라 마셨다. 술에 취해서 술집 누각 위에 누워 있는데, 꽃향기가 옷에 스미고 대나무 이슬이 얼굴을 적셨다.¹⁶⁾

술은 작중 인물들이 感興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술의 맛과 향, 술잔의 모양은 그 자체로도 신비감을 일으키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배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작중인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마치 俗世와 차이나는 특별한 곳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好感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와 調和를 이루는 것이 주인공들의 外貌와 文才이다. 외모는 대개 여자의 경우 絶世佳人形으로 표현되며 남자의 경우 용모가 준수하고 문재가 탁월한 立身揚名形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¹⁷⁾

한 소년이 絶世(絶世) 미인(美人)과 마주 앉아 있다가 유영이 몸을 보고 혼연히 일어나서 맞이하니 대군께서는 궁녀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열 명을 골라서 <소학>, <언해>, <중용>, <대학>, <맹자>, <시경>, <통감>, <송서> 등을 차례로 가르쳐 5년 이내에 모두 대성하였지요. 열 명의 이름 금련, 은섬, 자란, 보련, 운영이니, 운영은 바로 저였어요.¹⁸⁾

김생이 율기를 마치고 취한 눈을 반쯤 들어 올리는 순간 한 미인이 눈에 띄었다. 나이는 겨우 열 여섯 살 정도 되었는데, 사뿐사뿐 걷는 고운 발걸음에 길가의 먼지마저 일지 않았다. 허리와 팔다리는 가냘프고 어여뻐으며, 몸매가 매우 아름다웠다. (중략) 그러다가 옥비녀를 풀어 윤이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볍게 흔들자, 푸른 소매는 봄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치마는 맑은 냇가에 어리어 반짝였다.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글에도 능통해 회산군께서 첩을 삼으려 하신답니다. 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 할 뿐입니다.”¹⁹⁾

여주인공들은 나이가 대략 16~17세 정도로 청춘남녀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이팔청춘과 들어맞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이었지만 하나같이 글공부를 하여 기본적인 文才를 지니고 있었다. 文才는 士大夫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설정이자 여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조선시대 기생을 일러 ‘解語花’라고²⁰⁾ 은유적으로 지칭했던 것처럼 음악과 문학을 논할 수 있는 능력은 남자

15) 「雲英傳」

16) 「想思洞記」

17) 남녀 주인공들은 유교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그 형상은 유교적 질서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송기섭(2004),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적 조건」, 『어문학』, 85, p. 371.)

18) 「雲英傳」

19) 「想思洞記」

들과 世上事를 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운영과 영영에게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대부 班家の 여인네들에게 요구되는 文才가 궁녀들에게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분은 다르지만 모든 조건은 사대부 班家を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소설 춘향전에서 기생 신분인 춘향이 班家の 부녀자처럼 행동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성은 김이라 하오며, 나이 십 세에 시문(詩文)을 잘하여 학당(學堂)에서 유명하였고, 나이 십 사 세에 진사 제1과에 오르니,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김진사로서 부럽다.²¹⁾

홍치 년간에 성균관 진사인 김생(金生)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잊었으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인품이 월등하게 뛰어났다. 그는 글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농담에도 능통했으니, 참으로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할만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풍류랑(風流郎)이라 일컬었다. 약관의 나이에 진사 제1과에 급제하여 이름이 서울에 널리 알려졌으며, 높은 벼슬아치와 지체 좋은 가문에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사랑스런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였다.²²⁾

유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이상적인 배우자는 이미 『詩經』에 “窈窕淑女”와 “君子好求”라는²³⁾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志操있고 靜肅하게 집안을 잘 이끌어 가는 여인과 君子가 좋은 짝이 된다는 것이다. 남녀의 외모와 학문적인 능력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런 남녀 주인공이 갖춘 외모와 문재, 환상적인 분위기 등을 마음 속에 떠올리며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중 남녀주인공들은 애정을 나누기에 적합한 당대의 가장 이상적인 善男善女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형이 유행하는 것도 일종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동경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만화조차도 주인공의 모습은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外貌와 文才처럼 남녀의 타고난 미모와 능력은 애정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으며 술을 매개로 한 아름다운 분위기는 이색적인 상황을 통해 이야기에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2. 禁止된 사랑과 普遍的 慾望의 엇물림

‘男女七世不動席’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는 어려서부터 남녀 관계가 매우 엄격했다. 특히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身分과 家門의 문제로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전’과 ‘영영전’은 일탈을 추구한 남녀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制度와 愛情의 대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다.²⁴⁾ 특히 사랑의 주체가 궁녀와 촉망받는 사대부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보면 조선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중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궁녀는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는데²⁵⁾, 문제는 궁녀가 된 사람은 사사로이

20) 李能和 著(1968), 『朝鮮解語花史』, 學文閣.

21) 『雲英傳』

22) 『想思洞記』

23) 『詩經』, 『周南』

24) 애정소설은 두 남녀의 결합을 방해하는 현실적 질곡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그림으로써, 서사세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운영전」과 「영영전」은 이에 잘 부합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박일용 (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p. 14.)

25) 신명호(2005), 『궁녀』, 시공사, pp. 88~89.

결혼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처소의 주인을 위해 존재했지만 반드시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이다. 즉 모든 궁녀는 왕의 시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시던 상전이 죽거나 자신이 늙어서 죽게 된 경우에 한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궁녀가 사사로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왕족의 보호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궁녀가 왕의 承恩을 입게 되면 상궁으로 삼았으며 아이를 낳게 되면 독립된 공간에서 종6품의 숙원으로 시작하여 왕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²⁶⁾ 그런데 이런 궁녀가 젊은 남녀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一片丹心 변치 않는 普遍的인 사랑을 추구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작동되는 신분제는 처음부터 이들의 사랑을 가로 막는 표면적인 障礙物이 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서까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행위는 청춘남녀에게 내재된 행복한 결합이라는 욕망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즉 禁止와 一片丹心 사이에 존재하는 價値의 엇물림에 의해 스토리는 可否에 대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宮은 운영과 영영의 삶을 가르는 경계로써 이들은 궁이라는 굴레에 갇힌 존재들이다. 운영과 영영은 안평대군과 회산군의 궁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궁 밖으로의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항상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난다는 것에 제약이 따랐다. 즉 안평대군과 회산군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항상 영을 내리시기를, "시녀로서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 죄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또 외인이 궁녀의 이름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 죄도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사람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서 이 깊은 궁에 갇히었으니, 정말로 이른바 장신궁이다."²⁸⁾

"그 애는 회산군(檜山君)의 시녀입니다.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²⁹⁾

운영과 영영은 궁에 속한 시녀로서 宮門을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外人이 이름을 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철저하게 가려진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랑의 감정을 결코 숨기지 않고 오히려 대담하게 궁의 담을 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운영과 영영은 세상과 단절된 궁이라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갈망은 누구 못지않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게 되었다.

낭군을 한 번 보매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가슴이 울렁거렸으며, 진사님도 또한 나를 돌아보면서 웃음을 머금고 자주 눈여겨보더라.
"제가 서궁에 있으니 낭군께서 밤을 타 서쪽 담을 넘어 들어오시면 삼생에 있어서 미진한 인연을 거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그 즐거움은 가히 알 것입니다. 밤은 이미 새벽이 되고 못 담은 날새기를 재촉하기에 진사님은 바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³⁰⁾

한 번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워한 지가 이미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만나 보게 되다니, 참으로 세상

26) 신명호, 위의 책, pp. 257~264.

27) 궁녀의 사랑은 인간 본능인 情을 억압당하고 있던 중세질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인간해방의 선언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질서에 대한 반감보다는 젊은 남녀가 지닌 사랑의 강렬함이 宮으로 상징되는 신분제와 주변의 장애에 의해 좌절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일용(1993), 앞의 책, p. 179.)

28) 「雲英傳」

29) 「想思洞記」

30) 「雲英傳」

이 원망스럽소. 남자 때문에 죽을 뻔했던 내 목숨은 오늘을 기다려 겨우 살아남았소.”
 “이 달 보름밤에 진사님은 밖에서 다른 왕자님들과 달을 감상하신다 합니다. 그 날 궁의 무너진 담 쪽으로 오십시오. 도련님께서 오신다면 무너진 담 옆의 작은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 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있사오니 도련님께서 거기에 계십시오.”
 김생과 영영은 서로 이끌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 비로소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다.³¹⁾

九重宮闕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윤영과 영영은 궁의 담을 타고 넘으며 사랑을 이어간다. 여자 주인공들의 대담성과 남자 주인공들의 적극성 때문에 궁이 한갓 여염집의 담장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³²⁾ 남녀주인공들을 갈라놓고 있는 궁의 담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야기에는 애뜻함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두 사람이 雲雨之情을 맺은 후 情人을 향한 애절함과 열망의 분위기로 인해 행복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즉 궁녀라는 신분이 갖고 있는 색다른 느낌과 제도의 장벽, 애정을 나누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한 극적 긴장감, 주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야밤에만 만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은 이들의 사랑이 금지된 사랑임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운명적인 만남 이후에 펼쳐지는 남녀주인공들의 一片丹心 목숨을 건 사랑의 추구, 신분의 초월과 여성의 대범함과 남성의 적극성 등으로 인해 놀라움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궁녀라는 흔치 않은 신분이면서도 궁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랑의 설정은 흔한 것 같으면서도 항상 독자들을 魅了시키는 애정서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超越과 反轉을 통한 해피엔딩의 추구

윤영과 김진사, 영영과 김생의 사랑은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사대부였던 김진사와 김생은 윤영과 영영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運命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윤영과 김진사, 영영과 김생만을 짝으로 삼아 사랑에 눈이 멀도록 설정해 놓았다. 그래서 이들은 雲雨之情을 맺은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욱 애뜻하게 사랑을 渴求한다. 하지만 이들이 사랑을 갈구할수록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점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즉 궁궐의 담을 넘으면서 실현되던 이들의 사랑은 안평대군이 눈치 채게 되면서 윤영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영영이 궁에 들어가서 연락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 상사병으로 김생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윤영의 시에는 뚜렷이 사람을 생각하는 뜻이 있구나. 네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나? 김진사의 상량문에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너는 김진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중략> 바로 비단 수건으로 스스로 난간에다 목을 매었더니, 대군이 비록 크게 노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죽이고 싶지 않은 고로, 자란으로 하여금 구하여 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³³⁾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오? 궁궐 문을 한 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오?”
 영영은 김생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무너진 담장 밖에서 전송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흐느끼는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니, 죽어서 이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였다.³⁴⁾

31) 『想思洞記』

32) 『영영전』에서 남녀애정의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宮禁의 장벽이라는 지적에서 신분제를 대표하는 궁이 갖는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정종대(1990), 『염정소설구조연구』, 계명문화사, p. 79.)

33) 『雲英傳』

34) 『想思洞記』

안평대군은 윤영의 詩에서 김진사를 향한 마음을 읽어낸다. 이때 윤영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란 적극적으로 抗拒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을 택해 결백함을 보이는 길밖에 없었다. 김생 또한 영영과 하룻밤을 보낸 뒤 이별하며 오래도록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한다. 궁녀와의 사랑은 평범한 情人들과 달리 수많은 기다림과 절망감을 감수해야 하는 試鍊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점에서 축첩제도가 인정되던 조선 사회에서 사랑의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영은 안평대군으로부터 의심을 받음으로 인해 김진사와의 사랑에 시련을 맞았고 다음에는 김진사가 데리고 있던 奴僕 특의 욕심에 의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윤영이 김진사와 하룻밤을 보낸 뒤로 궁을 빠져나가 김진사와 멀리 도망가서 살아갈 생각을 한 것도 특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특이 윤영이 보내준 패물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사건이 미묘해졌다. 김진사가 김생을 채고 특을 문초하고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안평대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결국 궁녀 소옥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윤영의 목숨을 대신하고자 하자 윤영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만다. 윤영은 김진사를 끝까지 믿었지만 노복인 특의 욕심으로 인해 둘 사이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영영과 이별한 김생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三日遊街의 과정에서 영영과 만나 서찰을 주고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과거에 급제했지만 영영을 만나 함께 사는 행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궁궐이라는 범접할 수 없는 담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이라면 회산군이 3년 전에 죽은 것인데, 영영을 만날 수 없게 된 김생은 상사병이 깊어져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김생은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두 배나 더 간절하였다. <중략>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³⁵⁾

그러나 현실에서 비극적으로 끝난 윤영과 김진사의 죽음은 이들이 천상의 선인이었다는 점에서 절망이 안도감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영영을 향한 김생의 절박한 처지는 친구 이정자의 방문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제가 반도를 따가지고 윤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고, 전세에 적하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곁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사 삼청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삽기로, 돌아가는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³⁶⁾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李正字)라고 하는 이가 문병을 왔다.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을 이상해 했다.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걸세. 회산군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랴네. 그 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소천(所天)을 잃은 후로부터,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사(喜捨)와 보시(布施)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 보겠네.”³⁷⁾

35) 「想思洞記」

36) 「雲英傳」

37) 「想思洞記」

궁녀라는 신분이 갖는 한계 때문에 현실에서는 비극적인 죽음을 택했지만 사랑했던 사람과 천상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됨으로써 時空을 뛰어넘어 사랑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슬펐던 과거를 반추하면서 오히려 미리 예견된 운명이라는 설정에서는 여유로움마저 느껴진다. 이는 운영과 김진사가 선인으로서 천상계에서 살아가는 형태로 초월적인 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영과 김생은 현실에서 급격한 반전이 나타난다. 영영을 향한 상사병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김생은 친구 이정자가 방문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즉 회산군은 이미 죽었고 회산군 부인은 친구 이정자의 고모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영과 김생을 맺어줄 수 있었다. 「영영전」은 「운영전」에 비해 해피엔딩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영영전」은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졌고 「운영전」은 죽은 후 천상으로까지 이어져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랑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現實	天上界
雲英傳	비극적	해피엔딩
英英傳	해피엔딩	-----

결국 두 작품 모두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된 사랑이 궁녀라는 신분에서 따른 갖은 試鍊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지순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상계를 설정해서라도 원한이 서린 죽음보다는 아름다운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작자의 내면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는 드라마를 대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터넷 통신을 통해 특정 드라마의 결말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나도록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극적 반전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을 통해 해피엔딩을 추구한 것은 두 작품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궁녀 소재 스토리텔링의 意味와 展望

「운영전」과 「영영전」은 身分制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경우에 해당한다. 마치 영화 ‘슈렉’에서 피오나 공주와 못생긴 슈렉이 결국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게 되는 것만큼이나 통념을 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궁녀가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운영전」과 「영영전」 또한 많은 독자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녀에 대한 신비감이 여전히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고 애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전」과 「영영전」은 언제든지 다시 화려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궁녀들은 높은 담장으로 상징되는 궁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르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궁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은 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놓았다. 「운영전」과 「영영전」의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설정들이 엮물리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두 작품에 나타난 애정의 구현 양상은 오늘날의 남녀가 겪는 사랑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해피엔딩의 결말은 현대인들의 너리에도 여전히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궁궐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운명적인 만남에 수반된 환상적인 분위기, 빼어난 외모와 출중한 문재는 오늘날 재력과 가난, 능력과 외모 등으로 변모되어 여전히 이야기의 동기로 활용될 소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궁녀이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을 깬 젊은 남녀의 보편적인 사랑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사랑이야기에 담긴 주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애정서사의 스토리 창작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운영전」과 「영영전」에 나타난 흔치 않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오늘날의 다양한 매체에 의해 리메이크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도 신선한 느낌과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애정서사를 응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계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기존에도 궁과 궁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지만 대부분 왕과 궁녀의 관계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궁궐을 소재로 하면서 공주와 사대부, 궁녀와 호위무사의 사랑이야기 등으로 확장시킨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궁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비밀스런 일들이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각적인 입장에서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각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궐의 이미지가 매우 근엄하고 엄숙한 경향이 지배적인데, 궁과 두 이야기를 매치시킨다면 특정한 궁궐을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운영전」과 「영영전」에 묘사된 궁궐의 이미지와 주인공들의 캐릭터, 소설의 내용을 현존하는 궁궐과 접목시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궁에는 꼭 근엄한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면 낭만적인 궁의 이미지가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운영전」과 「영영전」의 애정서사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궁이나 궁녀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미디어의 발달에 맞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궁녀를 소재로 한 애정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전」과 「영영전」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궁녀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 지닌 의미와 전망을 檢討해 보았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는 상황에서 고전소설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은 문화의 원형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전」과 「영영전」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측면에서 이야기가 구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술을 매개로 한 환상적 분위기와 외모와 문재가 뛰어난 유교에서 내세우는 이상적인 남녀의 만남이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주인공의 대범함은 봉건주의의 이상과는 다른 여성의 당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나 이상적인 인물형은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인물들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인물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비록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사랑의 소재들로 작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 요소도 존재한다. 좋은 가문끼리 맺어지길 원한 다거나 재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부모와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궁녀로 대표되는 두 여주인공은 당시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을 어기고 있지만 궁녀의 몸으로서 한 남자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외모와 문재도 출중하기 때문이다. 둘째 금지된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궁궐의 허물어진 담을 넘으면서까지 대범하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과 시련을 겪는데, 이러한 점은 현대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애정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해졌지만 여전히 큰 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의 설정과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말이 행복하게 맺어졌으면 하는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천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설정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몸은 비록 죽었지만 천상계를 설정하여 초월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뜻밖의 조력자를 만나 사랑에 성공하는 반전은 작품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발달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녀와 사대부의 사랑에 드러난 스토리텔링의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접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終>

조선전기 사대부의 기생 점유 양상 고찰: 여악폐지론을 중심으로

김정옥 (경희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며
- II. 사대부의 기생에 대한 욕망
- III. 여악폐지와 기생혁파의 문제
- IV. 기생 점유 양상과 그 변화
- V. 나가며

I. 들어가며

조선시대 남성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정비해 나갔다. 그중 ‘열녀’와 ‘기생’은 조선 가부장제가 여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중요한 도구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윤리적 지배 형태는 ‘열녀’로 성적 착취는 ‘기생’의 형태로 나타난다.¹⁾ 이런 억압 혹은 착취 수단은 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 강제는 해당 제도를 마련한 계층의 욕망 내지 이익을 일정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주장한 기생제도의 폐지론이다. 그 발단은 태종 1년 명나라 사신 章謹과 端木禮가 조선의 女樂을 문제 삼아서이다.²⁾ 이후 세종조에 김종서가 女樂의 폐지를 제기했고 성종조에는 공론화되어 존폐에 대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며 급기야 중종조에는 외방 기생이 혁파되었고 궁중 내연에까지 기생의 동원을 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조선 사대부들은 그들이 내세운 윤리와 도덕적 논리로 女樂 혹은 기생을 폐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조선시대 내내 그들의 기생에 대한 향유 및 착취는 끊이지 않았다. 女樂은 물론 그 행위 주체의 몸까지도 향유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전반에 만연하는 사대부의 기생 간통사건이나 사적 연향에 기생이 동원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이는 그들이 내세운 윤리와 도덕이 욕망의 실현과는 별개임

1) 강명관, 「조선 가부장제의 성적 욕망과 기녀」, 『코기토』6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2) 『태종실록』2, 1년 8월 23일. (앞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인용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번역은 사이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의 것을 따르나 번역문은 일부 수정해서 사용했음을 밝힌다. 원문은 따로 병기하지 않는다)

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女樂의 폐지가 기생의 혁파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다는 점이다. ‘女樂의 폐지’가 ‘기생의 혁파’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특히 ‘女樂’과 ‘기생’은 상황에 따라 향유하는 계층이 다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대부들이 주장한 女樂 폐지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대부들이 주장한 女樂 폐지의 목적에는 왕의 淫行을 경계하기 위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생 혁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기생이란 존재의 소멸은 사대부들로서는 자신들의 주요한 향음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은 왕의 淫行을 경계한다는 목적으로 女樂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생을 作妾해 나갔다. 이는 官物이라 지칭되었던 기생을 사대부들이 점유 혹은 독점해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사대부들은 그들의 욕망을 실현한 셈인데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기생제도는 일면에서 기생의 존재를 부정하여 그들의 욕망 실현에 장애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여악 폐지의 문제가 기생 제도 혁파의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고 있으며 사대부들의 여악폐지론에 담긴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악폐지가 사대부들의 기생 점유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앞에 우선은 조선 사대부들이 가졌던 기생에 대한 욕망을 살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악 폐지와 기생 혁파의 문제를 논의한 후,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생제도가 그들의 욕망 실현 차원에서 이용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³⁾

II. 사대부의 기생에 대한 욕망

욕망은 ‘나’가 가진 고유한 것이 아니고 ‘타자’에 의해 생성된다. 즉, 타자의 욕망은 주체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분별하려 시도하고, 점차 타자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타자의 욕망에 의거해 자신이 욕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⁴⁾ 결국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고, 학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가 조선사대부라 했을 때, ‘타자’는 동시대 다른 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전시대의 남성 역시 타자이고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생의 기원과 고려시대의 기생⁵⁾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기생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명확한 원류를 밝히는 데까지는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쟁포로가 婢子로 전락해 병사들을 위안하는 경우 그리고 ‘揚水尺’, ‘源花’, ‘巫女’ 기원설이 모두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揚水尺은 전쟁포로가 婢子로 전락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에 그 기록이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李瀾(1681~1763)의 『星湖僊說』에서 인용된다.

3) 본고에서는 시대를 ‘조선전기’로 한정했다. 여기서 ‘조선전기’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기생제도는 그 성격이 전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만큼 논의에서 제한다.

4) 브루스 핑크, 맹정현 옮김,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102면.

5) ‘기생’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로 칭해진 것으로(신현규, 「문헌에 나타난 ‘기(妓)’의 기원 연구」, 『한민족문화연구』23, 한민족문화학회, 2007, 401면) 조선의 경우 ‘기생’ 혹은 ‘기녀’가 모두 성립하고 반면 고려의 경우에는 ‘기생’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조선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조선에 한정된 용어인 ‘기생’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용어 선택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 한해서 고려시대 ‘기녀’도 그 명칭을 ‘기생’으로 통일했음을 밝힌다.

양수척은 태조가 後百濟를 공격할 때 복속시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본래 貫籍과 부역이 없었으며, 水草가 자라는 곳을 따라 일정한 거처 없이 옮겨 다니면서 사냥질과 柳器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기생 족속들은 거개가 본래 柳器匠의 집안에서 나왔다.⁶⁾

위에 따르면 揚水尺은 후백제 출신으로 고려에 복속되는 것은 거부한 집단이다. 따라서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양수척이 고려(918~1392)에 복속되어 세가 부과된 것은 李至榮(?~1196)에 의해서였다.

일단 기생의 揚水尺 기원설은 성립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李仁老(1152~1220)에 따르면, 金庾信과 天官女의 일화에서 天官寺는 곧 기생의 집이고 天官은 기생의 이름이라 했다.⁷⁾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후관계상 揚水尺은 기생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이며 기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李仁老의 기록이 틀렸다고 해도 전쟁포로나 신라 ‘源花’ 혹은 ‘巫女’ 기원보다 늦기 때문에 역시 揚水尺 기원설은 성립하기 힘들다. 그리고 李能和는 기생의 기원을 신라 源花에 두고 있는데 이는 무너지원설과 연관되어 설명된다.⁸⁾ 결국 揚水尺을 포함해 전쟁포로가 婢子로 전락되는 되는 경우와 巫女 기원으로 압축될 수 있다. 모두 남성에게 性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李能和에 따르면 揚水尺은 고려 女樂의 시초가 된다.⁹⁾ 揚水尺을 奴婢에 편재하여 각 관청에 예속시켰는데 그중 色藝가 있는 婢子를 기생으로 삼아 화장을 시켜 가무를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高麗史』에서 ‘妓’가 최초로 등장하는 기사는 成宗 13년(994)의 것으로 거란에 妓樂을 바쳤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¹⁰⁾이다. 成宗 대 거란에 기악을 바쳤다가 왜 거절당했는지 그리고 기악만 바친 것인지 아니면 기생의 性도 함께 바쳤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 초부터 기생이 樂人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고려시대 官妓의 성립에는 妓樂을 비롯한 공연 목적이 있었다. 원래 지배층은 음악을 지배함으로써 民의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했으며, 음정까지도 지배질서와 맞아떨어지게 하고자 하였다.¹¹⁾ 이른바 樂으로 禮를 완성한다는 禮樂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고려 지배층조차 雅樂보다는 鄉樂을 즐겼고 기생의 歌舞에 심취했다. 따라서 이런 지배층의 음악에 대한 모순적 태도로 인해 妓樂을 제공하는 教坊은 고려시대 내내 별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¹²⁾ 이런 현상은 조선에까지 이어진다.

고려시대 관리와 기생의 성관계가 묵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려 초 관리가 지방으로 부임할 때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成宗 5년 처음으로 12목에 처자를 데리고 부임할 수 있게 허가했다는 기사¹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사 지방관을 위안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생에게 해당 역할은 강제되었을 것이다.

私妓 혹은 家妓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립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나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확인된다.¹⁴⁾ 고려시대 중앙관료의 정착과 함께 사노비들이 국가소유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 소

6) 楊水尺, 太祖攻百濟時, 所難制者遺種也, 素無貫籍賦役, 好逐水草, 遷徙無常, 唯事畋獵, 編柳器販鬻爲業. 凡妓種, 本出於柳器匠家(『高麗史』, 권129 열전42, <崔忠獻>). 번역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28, 민족문화, 2006, 169~171면.

7) 이인로, 구인환 옮김, 『破閑集』, 신원문화사, 2002, 50면.

8) 김동욱, 「이조 기녀사 서론」, 『아시아여성연구』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1996, 75면; 신현규, 앞 논문, 411면.

9) 李能和, 이재곤 옮김,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22면.

10) 遣使契丹, 進妓樂, 却之(『高麗史』권3 世家3, <成宗> 13년).

11) 김창현,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2007, 291면.

12) 같은 곳, 318면.

13) 成宗五年八月, 始令十二牧, 挈妻子赴任(『高麗史』권84 志38, <刑法>1 職制).

14)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의 유형고」,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91~94면 참조.

속의 관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 관기제도는 조선시대로 이어진다.¹⁵⁾ 즉, 조선전기의 기생은 바로 官妓를 일컫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私妓나 家妓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캉에 따르면 욕망(desire)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것을 의미하는데 욕구(need)와 요구(demand) 사이의 간극 사이에서 발생한다.¹⁶⁾ 욕구(need)는 식욕·성욕과 같은 1차적인 충동을 말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구(demand)이다. 하지만 언제나 욕구와 요구 사이에는 그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제도와 법 그리고 풍습에 의한 규제로 억압받기 때문이다.

이미 私妓나 家妓의 존재를 통해 기생을 소유하려는 조선 사대부들의 욕망은 학습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公物’ 혹은 ‘官物’로 지칭되는 ‘官妓’의 국가적 점유(제도)에 의해 결핍이 생기고 그 욕망의 충족은 좌절되고 만다. 이미 전시대의 학습을 통해 私妓와 家妓의 소유를 경험한 그들이 기생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전기 사대부가 기생을 간통하거나 사적 연향에 동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진 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 학습·생성된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측면 역시 있을 것이다.

장악원 提調 韓致亨이 아뢰기를, “근래 대소인원이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기생 없이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혹은 京邸에서, 혹은 활 쏘는 곳에서 기생과 樂工을 불러다가 거르는 날이 없이 모여 마시는데, 저들은 음악을 익힐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어렵습니다. 헌부로 하여금 엄히 糾察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좇았다.¹⁷⁾

왕권이 강했고 이를 강력히 금지시켰던 연산군 대에도 기생이 음악을 익힐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대부의 사적 연향에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기생을 作妾하는 일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도 했다.¹⁸⁾

기생을 향유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완전한 소유를 하지 못했던 욕망은 다른 경로를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첫째는, 家內 聲婢에 의한 음악의 향유다.¹⁹⁾ 이는 기생의 춤과 음악 그리고 나아가 몸까지를 婢子로 대체해 家內에서 생산하고, 自家 소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연산군 이후, 醫女들이 일반 기생의 역할을 겸하게 된 것이다.²⁰⁾ 이는 연산군이 연향에 醫女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인데 이후 사대부들이 연산군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다. 결국 조선전기 사대부들의 욕망은 기생의 음악과 춤 그리고 더 나아가 몸까지 향유하는, 기생에 대한 점유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겠다. 그 양상은 대상의 다양화(聲婢와 醫女의 경우)와 독점적 향유(聲婢의 경우)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당 양상은 조선후기 한문소설인 『구운몽』에도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 양소유가 만나는 여인들은 일반적인 佳人의 범주를 넘어서 남성의 성적 환상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들이 포함되는데 기생에서 공주, 사대부가의 여인, 자객 그리고 異物이라 할 수 있는 龍女에 이르는 여성편력은 당시 남성들의 욕망을 충분히 자극했을 것이다.²¹⁾ 일단 공주와 혼인을 했다면 作妾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맞이한다. 이 역시도 대상의 다양화된 계층의 여성에 대한 독점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기생은 법적으로 作妾이

15) 이화형, 『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 새문사, 2009, 120면.

16) 이동성, 「라캉의 구조주의 욕망이론」, 『동서언론』9, 동서언론학회, 2005, 310면.

17) 『연산군일기』23, 3년 5월 29일.

18) 해당 내용은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46면’ 참조.

19) 해당 내용은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37~153면’ 참조.

20) 醫女는 악방기생(醫妓)이라 칭해졌다.

21) 김정숙, 「한문소설의 사랑, 남성적 환상의 다양한 변주」,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07, 134~135면.

금지되어 있는데 작품 속에서 가능한 것은 기생을 소유·독점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욕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운몽』은 조선후기에 창작되었지만 욕망의 생성과 학습의 측면에서 전시대에 축적된 욕망의 서사를 일면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女樂 혹은 기생의 학파 문제에 대해 살피고 이어 기생학파가 그들의 욕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Ⅲ. 女樂 폐지와 기생 학파 문제

조선시대 여악폐지의 문제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²²⁾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과 여악폐지와 기생학파의 문제 그리고 여악의 용어 쓰임에 대해서 주로 논하게 될 것이다.

태종 1년 명나라 사신 章謹과 端木禮가 조선의 女樂을 문제 삼은 이후 본격적인 女樂의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세종 대의 金宗瑞(1383~1453)이다.

左副代言 金宗瑞(金宗瑞)가 아뢰기를, “禮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근본입니다.……우리나라의 예악은 중국과도 견줄 만한 것이므로, 옛날에 사신 陸顯·端木智·周倬 등이 사명을 받들고 왔다가, 예악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고 또한 모두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으나, 다만 女樂이 섞여 있는 것을 혐의롭게 여겼습니다. 小臣의 생각으로는 아악이 비록 바르다고 하더라도 여악을 폐하지 않으면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중국 사람들이라면 賢愚를 물론하고 모두가 여악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음란한 소리[鄭聲]를 추방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곧 聖人이 행한 징험을 보인 것으로서, 여악을 아악과 섞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비읍건대, 크게 용단을 내리시어 오랫동안 쌓인 비루한 풍습을 개혁하여 維新의 미를 이룩하소서.”……右副代言 남지(南智)가 아뢰기를, “여악의 폐단은 외방에서 더욱 심합니다. 수령의 하루 사이의 정사에서 한편으로는 부녀자들로서 절의를 잃은 자를 다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官妓로서 使客을 거절한 자를 다스리고 하니, 어찌 정사를 본다면 이와 같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士林들 사이의 시기와 혐의가 흔히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사오며, 남녀의 분별도 이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고, 治化도 이것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사오니, 결코 작은 失策이 아닙니다. 또 큰 고을에는 그 수효가 1백 명에 이르고 있어 놀고먹는 폐단도 적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관기를 혁파하여 盛治의 失策을 제거하소서.”²³⁾ [밑줄 : 필자]

김종서는 여악을 예악의 대립 항으로 설정하고 예악의 흥망이 여악의 폐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김종서의 발언은 여악 폐지가 기생폐지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를 들은 세종은 가상하게 여겼고 남지(1400~1542)는 한술 더 떠서 官妓의 학파까지 주장하고 있다. 즉, 김종서의 여악 사용 반대는 기생의 춤과 음악을 예연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고 남지는 기생의 존재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세종 대에 여악은 물론이고 기생 학파론까지 대두된 것이다.

女樂이란 기생이 제공하는 예능(성악·기악·춤) 전체를 의미하는데 밑줄 친 음란한 소리(鄭聲)는 고려가요를 지칭한다.²⁴⁾ 이런 유가의 도덕적 음악관에 부합하지 않는 노래를 기생이 불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종서가 문제 삼은 것은 기생이라는 대상보다는 고려가요라는 음악장르와 가사의 음란성에 있다. 반면 남지는 여악과 기생을 등가적 개념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22) 강명관, 앞의 책; 김종수, 『조선전기 여악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장사훈, 「이조의 여악」, 『아시아여성연구』9, 숙명여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70.

23) 『세종실록』49, 12년 7월 28일.

24) 강명관, 앞의 책, 1999, 30면.

여악의 폐지를 관기의 혁파로 이어나간다. 남지는 음악보다는 기생 존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지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쳤으며 당시의 여악 폐지 담론은 김종서를 주축으로 형성된다. 이후 세종의 전교 역시 김종서의 여악 폐지론을 반영한 것으로 여악의 축소 혹은 男樂으로의 대체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종 대의 여악 폐지의 문제는 기생 폐지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臣이 관습도감의 사무를 관장했는데, 선왕께서 정하신 정대업(定大業) 등 여러 가지의 춤을 지금 회례연을 당하여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伶人 백여 명만 얻는다면 일은 결점이 없을 것입니다. 여악(女樂)은 난(亂)을 일으키는 근본이니, 만약 衰季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옛날에 侍講 예겸(倪謙)이 使館 에 있다가 臣에게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禮樂이 中華와 같지마는, 그러나 倡伎 를 사용하니 이것은 오랑캐의 풍속입니다.’라고 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근심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경의 말이 옳다.”하였다.²⁵⁾
[밀줄·필자]

위는 文宗 2년 鄭麟趾(1396~1478)의 발언이다. 정인지는 태종에서 성종조까지 벼슬을 지냈다. 밀줄 친 “女樂은 亂을 일으키는 근본이다”라는 발언은 군주 1인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 중세사회에서 군주의 향락으로의 몰입이 종종 정치 난맥을 초래하고 그 결과 체제 위기가 발생한 역사적 교훈에 근거한 것²⁶⁾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종 재위 초기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오래지 않은 시점에서 왕의 향락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종은 본디 몸이 약해 그 해에 죽고 만다. 따라서 이런 빈약한 임금에게 女色을 멀리하라는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보다는 예악에 창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이라고 한 명나라 사신 倪謙의 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태종조 명나라 사신 章謹과 端木禮가 조선의 女樂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事大의 대상인 명나라에서 파견 온 사신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다. 한편 기생폐지를 주장했던 남지 역시 임금의 명을 받아 명나라 사신을 수차례 문안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의 시선을 의식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 인용문에서 김종서 역시 여악폐지를 주장할 때, 서두에 章謹과 端木禮가 조선의 女樂을 문제 삼은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세종조의 여악 폐지론은 김종서의 주장을 세종이 적절히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성종조에는 여악의 존재를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는 형국을 띤다. 이는 세종조에 여악의 축소 혹은 남악의 대체가 세조조에 와서 깨졌기 때문이다. 세조는 정전에서 의 여악을 사용했고 이는 예연에서의 여악 사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성종조에 와서는 사대부들이 즐기치게 여악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여악 폐지의 불가론도 함께 등장한다. 즉, 성종 대에는 여악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 그리고 신권과 신권이 대립하는 형국을 띤 것이다.²⁷⁾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正殿에 女樂을 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男樂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

25) 『문종실록』13, 2년 4월 14일.

26) 강명관, 앞의 책, 30면.

27) 물론 세종 대에도 찬반양론이 펼쳐지기는 했으나 세종이 여악을 축소 혹은 남악으로 대체해 나갔기 때문에 성종 대처럼 君臣間 혹은 臣臣間 대립하지는 않았다.

나 祖宗朝로부터 모두 여악을 써왔고, 또 중국 사신을 맞는 연회에도 썼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여악을 쓰고 있음은 중국에서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여악을 쓰지 않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領事 윤호(尹壕)는 대답하기를, “조종조에서 가면무를 써오다가 그 뒤에 폐지하고 쓰지 않게 되어, 드디어 여악을 쓴 것인데,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同知事 이세좌(李世佐)는 말하기를, “臣이 일찍이 장악원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여악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사가 음탕한 것이 많으며 몹시褻慢하여, 신이 이미 이러한 뜻을 아뢰고 그 가사를 고쳐 제작토록 하였습니다.”하고, 特進官 박송질(朴崇質)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여악을 쓴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하니, 김여석이 말하기를, “세종 이전에는 여악을 쓰지 않았으니, 개혁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여악을 받아들여 3일 동안 朝會를 받지 않으니, 孔子께서 드디어 떠나셨다. 그러므로 正殿에 여악을 쓰는 것은 正道가 아닌데, 革罷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라? 그러나 여악을 써온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아마도 가볍게 고치지는 못할 듯하다. 장악원으로 하여금 조종조의 故事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사史臣이 논평하기를, “正殿에 여악을 쓰는 것은 옛 법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世祖朝 때부터 비로소 썼으니, 이는 특별히 일시적인 권도로 제정한 것이지 후세에 전할 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 임금의 학문이 高明하시어 길이 그 불가함을 아시고, 심지어 季桓子의 일을 들어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혁파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으니, 그 후세를 우려하심이 지극하였다. 그러므로 大臣이 된 자는 마땅히 그 아름다운 뜻에 힘써 찬동하여야 하는데, 이에 말하기를, ‘갑자기 고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그 鄙陋하고 <옛일을> 상고하지 못함이 심하다.” 하였다.²⁸⁾

위는 성종조 여악폐지를 거부하는 왕의 입장과 찬반양론으로 갈린 신하들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 있는 기사이다. 성종은 전례를 들어 여악의 폐지가 불가함을 말한다. 이는 세조가 여악폐지를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여악폐지론을 펼치는 김여석은 정전에서 여악 대신 남악을 사용할 것을 청한다. 이는 김종서와 같은 여악이 가지는 장르의 문제와 가사의 음란성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정전의 예연에 기생의 참여가 불가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여악폐지 불가론을 펼친 이세좌는 가사가 음탕하니 고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성종 대의 신하들이 가장 많이 문제 삼은 것은 정전에서의 여악사용이었다.²⁹⁾ 정전에서의 여악 사용은 기생의 참여를 문제 삼은 경우와 가사의 음란성을 문제 삼은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데 이는 세종 대에 정전에서 여악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었던 사례는 명나라 사신 접대에 여악의 사용이 문제가 된 점이다.³⁰⁾ 여기서는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 문제는 관련되지 않는다. 정인지와 마찬가지로 대국인 명나라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여악을 바치는 것은 선례에 있던 일이고 사신에 따라 그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성종도 틈을 보아 그 의사를 물어보고 굳이 거절하거든 억지로 청하지 말라고 전교를 내린다.³¹⁾

그 외에, 여악의 사용으로 밤중까지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지적³²⁾과 연향에 아악을 사용하고 여악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³³⁾이 나온다. 전자는 남녀유별, 즉 禮의 문제이고 후자는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신하들의 여악폐지 상소를 시종일관 묵살했던 성종이 먼저 京妓의 혁파를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이다.³⁴⁾ 대담

28) 『성종실록』261, 23년 1월 4일.

29) 『성종실록』9, 2년 1월 10일: 14권, 3년 1월 15일: 75권, 8년 1월 13일: 75권, 8년 1월 13일: 260권, 22년 12월 25일.

30) 『성종실록』9, 2년 2월 18일: 64권, 7년 2월 18일: 64권, 7년 2월 20일: 214권, 19년 3월 3일

31) 『성종실록』214, 19년 3월 7일.

32) 『성종실록』197, 17년 11월 19일.

33) 『성종실록』199, 18년 1월 29일.

34) 『성종실록』212, 19년 1월 14일.

을 한 承旨들은 외지의 기생으로는 필요시 충당하기 어렵다며 기생혁파를 반대한다.

결국 성종조의 여악폐지의 문제는 세종조와 마찬가지로 여악(고려가요)이라는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이 문제였다. ‘여악’과 ‘기생’이 등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성종의 언급이 한 번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승지들이 합사해서 반대한 것과 성종에게 여악폐지의 뜻이 거의 없었음에 비추어볼 때, 진심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시기 역시 여악폐지는 기생혁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세조조 예연에서의 여악이 부활한 만큼 이를 다시 세종조와 같은 양상으로 되돌리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하지만 연산군조에 오게 되면, 왕의 淫行으로 풍속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마저 파탄이 날 지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中宗 反正 이후에는 여악폐지론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중종조의 여악폐지는 실제로 기생의 숫자를 줄이고, 外妓가 혁파되는 등 부분적으로 기생의 폐지까지 이어진다. 京妓의 수를 줄였고 일부 지방에 한해 外妓를 혁파했다. 성종조의 여악폐지론이 기생의 수를 줄이지 않고 여악의 사용범위를 공식연회 외의 것으로만 제한했다면 중종조에는 실제 사용범위의 축소는 물론이고 기생의 숫자까지 축소시켰던 것이다.³⁵⁾ 이는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의 개혁정책과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이 연산군조와의 구별짓기와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이 조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광조가 상의 앞으로 나아가 여악을 없애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극력 진달하였으며, 正言 양팽손(梁彭孫)도 잇달아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內宴에는 樂이 없을 수 없고 中宮의 陳賀·受賀 때에도 악을 연주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대신과 禮官이 모두 ‘없애지 말아야 한다.’ 하며, 여악이 소경이면 역시 독자적으로 음악과 절주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악원 제주는 ‘연소한 기생을 써서 樂節을 지휘하게 해야 한다.’ 하나 이 역시 불가하다.”하매, 知事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악을 연주하는 것은 소경을 써야 마땅하지만 단 누구를 시켜 그 節奏를 지휘하게 하겠습니까? 또 노래는 老妓를 써야 마땅하나 춤을 폐할 수는 없으니 어떤 사람을 시켜 춤추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도 大夏를 춤추고 勺을 춤췄다는 말이 있습니다.”……광조는 아뢰기를, “동녀로 말하면, 어린 사람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12~13세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인즉, 역시 젊고 예쁜 여자라 더욱 가까이 해서는 안 되니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절주를 지휘하는 데는 老妓를 써야 합니다. 옛적 조종조 때에도 김종직(金宗直)이 일찍이 혁파하기를 청한 적이 있는데, 뜻있는 선비라면 누군들 혁파하려 않겠습니까? 대간이 偏見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의논을 참고하여 아뢴 것입니다.”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처음 의논할 적에 ‘慈殿의 奉歡 때문에 악을 폐할 수 없으니 進宴에만 기녀를 쓰되 끝나는 대로 곧 나가게 하면 무슨 방해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내연의 악을 다 폐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폐할 수 없습니다.”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다 폐하자는 설은 未便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생을 쓸 것이 아니라各司의 婢子로서 음률 아는 자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악을 연주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반드시 기생의 옷을 입고 기생의 장식을 해야 기생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女色은 다 여악이니 없애자는 것이 정론이기는 하나, 신 등이 아뢴 것은 그 실정을 헤아린 것입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나 다수로 정하면 이는 여악과 같습니다. 이는 한 달에 달 한 마리씩 흠친다는 설과 같은 것이며, 또 老妓 몇 사람으로 지휘하게 하면 이는 女史의 유와 같은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시 기생의 옷을 입힐 필요는 없다.”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어려서부터 악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따로 하나의 여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奏樂의 절차만 지휘할 뿐이다.”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궁녀로 하여금 모든 절주에 있어, 북을 치면서 지휘하게 하기도 하고 말로 전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가한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경만 쓰는 것이 어찌하겠는가?”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옛날에 聖人이 소경을 써서 악을 연주하게 한 것은, 또한 각각 失業인이 없게 하려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남자 소경은 혹 占卜으로 생활하지만 여자 소경은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이들을 써서 악을 연주하게 하고 官에서 의식을 급여하는 것이 가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老妓로 지휘하게 해야 하나, 단 뒤에 다시 뽑게 된다면 역시 폐가 있게 된다.”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명색이 여악이면 뿌리가 오히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제나라 사

35) 강명관, 앞의 책, 39면.

람이 노나라에 여악을 보냈을 적에, 별로 沈溺한 일이 없었는데도 孔子는 떠났습니다.”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季桓子が 받고 나서 3일 동안 朝會하지 않았으므로 공자가 떠난 것입니다. 이제 비록 기생을 혁파하더라도 聖音은 鄭聲과 같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성음이 이미 부정하니 차라리 기생을 쓰자고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성음도 바꾸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여자 소경을 쓴다 하더라도 역시 여악이다.”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불구가 된 사람을 妓流에 비겨 여악이라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³⁶⁾

중종조의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생이라서 안 되며, 더 나아가 여성이 참여하면 역시 여악이라는 논리가 생겨난 것이다. 老妓를 쓰려는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왕을 비롯한 남성의 음행은 그 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생이 음란성을 지녔기 때문에 남성이 음행을 저지른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본문 내용에 주목하면, 조광조가 기생 대신 婢子를 쓰자고 했는데 신용개는 모든 여색이 다 여악이라는 논리를 편다. 마찬가지로 중종 역시 여자 소경을 사용해도 역시 여악이라 했다. 즉, 여악(음악)의 문제가 기생의 문제에서 나아가 여성의 문제로 확대해 ‘여악=기생=여성=>음란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오히려 여자 소경을 妓流에 비길 수 없다는 조광조의 논리가 인간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여악의 소비와 향락에 집착했던 조선 사대부들이 왜 여악을 폐하고 나아가 기생까지 혁파하자는 논리를 전개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완전한 기생의 혁파는 사대부들에게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자 향유 대상이 소멸함을 뜻한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는 중종조 여악폐지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며, 기생 혁파의 문제가 사대부의 기생 점유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앞서 살핀 바, 중종조에 女樂을 쓰지 못하자 사대부들이 醫女를 동원하여 醫女가 의술을 배울 여가가 없다는 지적³⁷⁾이 나왔다. 여악의 폐지가 기생의 혁파로 이어지든 아니든 사대부들은 그들의 욕망을 끝까지 관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생 폐지가 그들의 기생 점유권을 포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IV. 기생 점유 양상과 그 변화

원래 기생과 악공의 음악은 임금의 명에 따라 하사하게 되어있었고 이를 賜樂이라 하는데 1등부터 4등까지의 차등이 있었다.³⁸⁾ 賜樂이라는 제도를 통해 적어도 京妓에 한해서는 몸이 되었던 예능이 되었던 간에 그 점유권이 임금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연향에 동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대개 그 점유권은 사대부에게 가 있었다. 기생이 음악을 익힐 겨를도 없이 사대부의 연향에 동원되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³⁹⁾ 즉, 제도적으로는 임금이 기생을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대부와 함께 다른 영역에서, 공유를 한 셈이다. 임금이 사대부와 기녀의 간통을 처벌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데 이는 임금도 사대부가 다른 영역에서 기생을 공유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한 것이 된다. 이런 사대부의 기생 점유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아 반대한 임금이 바로 연산군이다.

36) 『중종실록』35, 14권 3월 1일.

37) 『중종실록』29, 12년 8월 25일.

38) 강명관, 앞의 책, 69면.

39) 『연사군일기』23, 3년 5월 29일.

- ① 다만 기생이란 나라의 공물인데, 사물인 양 차지하여 무릇 公宴에는 대부분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너무도 부당한 일이다.⁴⁰⁾
- ② 또 기생은 公物이거늘, 전에 아랫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 밖에는 守衛이 마음대로 하고 안에서는 舍人 같은 무리가 감히 스스로 차지하니, 邊祥의 일 같은 것으로 미루어서 알 만하다. 世俗에서 칭하기를 ‘기생은 군사를 위하여 베풀었다.’ 하나, 이것이 어찌 여기를 베풀 본의이라. 앞으로는 조관들이 기악을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되, 獻壽하는 데에는 오히려 허하여도 좋다.”⁴¹⁾
- ③ 기생이란 것은 국가의 공물인데, 종친 또는 朝士들이 차지하여 자기 것으로 하고, 公家의 연회에도 또한 더러 나오지 않으니, 기생을 두어 음악을 익히게 하는 뜻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때때로 摘奸하여 勤慢을 고찰하도록 하는데, 그 지아비가 혹 이로 인하여 원망과 분심을 품고 비방하는 말을 조작하는 자가 있고, 창기도 또한 노고를 꺼려 申訴하는 자가 있다. 이런 풍습은 조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효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하였다.⁴²⁾

연산군은 수차례에 걸쳐 기생은 ‘官物’ 혹은 ‘公物’인 점을 강조하며 사대부가 차지해 국가의 공적인 연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사적인 연향에 기생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산군의 입장에서 자신은 만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곧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사대부들은 세종조부터 성종조까지 계속해서 여악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자신들이 향유·점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연산군의 불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 ① 전교하기를, “기생은 곧 어전에서 정재하는 사람이니, 모름지기 젊고 모습이나 얼굴이 좋은 자를 가려서 문적에 두어야 하며, 음물을 알더라도 얼굴이 못났으면 뽑아서는 안 되리라. 외방에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 터이거늘, 수령이 式年選上때에 자색이 있는 자는 숨기어 보내지 않고 못생기고 늙고 재주 없는 자만을 올려 보내니, 위를 위하는 뜻이 아주 없다.”⁴³⁾
- ② “장악원 기생을 본래 숫자의 배인 3백 명으로 하라. 기생은 오로지 內宴을 위하여 둔 것이니, 용모가 절묘한 자를 어찌 쉽게 얻겠는가. 비록 다 좋지 아니하더라도 또한 가하다. 수를 배로 한다면 내연이나 외연에 쓰기가 넉넉할 것이다.” 하였다.⁴⁴⁾

지방 수령들이 일부러 姿色이 있는 기생을 선상하지 않아 京妓는 모두 姿色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악원의 기생 수를 늘리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용모가 뛰어난 기생 역시 섞여 있을 거라는 논리다.

燕山君은 기생을 運平으로 부르게 했고 運平 중 자색이 있는 자를 興淸으로 임명했다. 運平 자체도 선별인원인데 거기서 다시 興淸을 선별한 것이다. 燕山君은 스스로 運平과 興淸이라는 이름에 만족했는지 運平을 運平이 아닌 娼妓라 부르면 처벌하게끔 예조에 질목을 마련하게 한다.⁴⁵⁾ 燕山君은 재위 10년 되는 해 10월에 예 장악원의 기생을 300명으로 늘리고서는 같은 해 12월에는 興淸樂은 300명, 運平樂은 700으로 그 정원을 다시 늘린다.⁴⁶⁾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단오까지 運平樂을 1000명으로 늘리라는 전교를 내린다.⁴⁷⁾ 그 과정에서 運平을 직접 간택하기도 한다.⁴⁸⁾ 또 같은 해 4월 말에는 단오라는 기한까지 絃首로라도 운평의 수를 지정한대로 충원할 것을 다시 한

40) 『연산군일기』55, 10년 8월 10일.

41) 『연산군일기』57, 11년 1월 11일.

42) 『연산군일기』55, 10년 9월 1일.

43) 『연산군일기』54, 10년 7월 15일.

44) 『연산군일기』56, 10년 10월 1일.

45) 『연산군일기』57, 11년 4월 4일.

46) 『연산군일기』56, 10년 12월 24일.

47) 『연산군일기』57, 11년 4월 16일.

48) 『연산군일기』57, 11년 2월 24일.

번 당부하기까지 한다.⁴⁹⁾

원래 기생은 국가 혹은 왕의 소유였으니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기생의 점유권을 원래대로 올바르게 되돌린 일(反正)이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생제도는 기존의 사대부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이동한다.⁵⁰⁾ 하지만 중종반정 이후 여악폐지론은 다시 부상하게 되고 점유권은 그 향방을 달리하게 된다. 문제는 사대부들이 여악만 폐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기생제도 자체를 혁파하자는 데 있다. 담론의 성격이 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종조와 성종조의 여악폐지는 여악의 장르와 가사의 음란성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악(음악)의 문제가 기생의 문제에서 나아가 여성의 문제로 확대해 ‘여악=기생=여성=>음란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 ① 이계남(李季男)·남곤(南袞)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여악의 폐해를 아뢴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한편으로 폐조의 실정을 징계하고 한편으로 음란한 풍습을 구제하는 것이니, 그 이해를 비교한다면 폐지함이 마땅한데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다만 正殿에서 開宴할 때에 대개 여악을 사용하지만 우려보기에 매우 미편합니다. 조종(祖宗)의 옛 풍습에 따르는 것이기는 하나 실로 좋은 법(令典)은 아니니, 聖世에 있어서 단연코 먼저 혁폐하여, 보고 보이는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⁵¹⁾
- ② 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대저 군신이 임할 때에는 공경을 으뜸으로 삼는 것인데, 음란한 소리와 사악한 빛이 귀와 눈에 닿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요즈음은 쓰지 않더라도 조금도 손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정전에서 쓰지 않기를 굳이 청하는 까닭은 거울삼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廢主가 內宴 때에 기생과 가까이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荒淫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제 비록 성명에 의혹이 없을지라도 천만세 뒤에 그 폐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⁵²⁾

이전시대에 정전에서 여악 사용을 사대부들이 극구 반대한 것은 아악이 위축당할 것을 염려해서이다. 그러나 중종조 정전에서의 여악 사용은 다른 문제이다. 연산군 이후 왕의 淫行은 경계되어야 했다. ①과 ② 모두 연산군조의 폐해를 예로 들으며 정전에서의 여악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老妓’의 사용을 제안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왕을 비롯한 남성의 음행은 그 책임이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생이 음란성을 지녔기 때문에 남성이 음행을 저지른다는 논리다. 예쁘고 젊은 기생이 정전에서 공연을 하면 왕을 미혹하게 해서 정인지의 언급처럼 진짜 亂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은 기생에게 있다. 따라서 정전에서의 여악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외지는 없앨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다.⁵³⁾

여악의 폐단이란, 여악 내지 여악 주체의 몸까지 탐하는 남성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탓을 모두 기생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욕망은 대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얻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 담론을 생성하고 그 대의명분 속에 욕망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⁵⁴⁾ ‘여악=기생=여성=>음란한 것’이라는 공식을 담론화하여 그 책임을 기생에게 돌려 책임을 회피·전가하며, 욕망을 ‘기생=음란=>혁명대상’이라는 대의명분 안에 숨기는 것이다. 즉, 여기서 여악의 폐지는 왕을 향한 기생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여악폐지의 숨은 의도는 여기

49) 『연산군일기』57, 11년 4월 24일.

50) 조광국, 「16세기 초엽 기녀제도 개편 양상」, 『규장각』2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35면.

51) 『중종실록』12, 5년 10월 21일.

52) 『중종실록』40, 15년 8월 5일.

53) 『중종실록』12, 5년 10월 21일; 12권 5년 11월 5일; 27권, 12년 1월 11일.

54) 권택영,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2면.

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기생의 점유권은 왕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생긴다.

한편 기생이 혁파되자 사대부들은 그들의 연향에 醫女를 동원했다.⁵⁵⁾ 기생의 존폐와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여악의 혁파가 아닌, 기생의 혁파가 사대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아직 구명하지 않았다. 여기서 짚어볼 문제는 바로 혁파된 기생의 신분이 무엇으로 환원되는가 하는 점이다.

- ① 그러나 기생을 혁파하고 官婢로써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⁵⁶⁾
- ② 각 고을의 官婢들은 손님 대접에 바빠서 겨를이 없습니다. 이는 관비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기생들은 오직 잔치 놀이와 풍악 익히기만을 일삼으며, 관비의 나머지 수효가 많지 않아서 서로 교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임시로 기생을 혁파한다면 관비들은 아마도 쉼을 쉬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⁵⁷⁾

위를 통해 혁파된 기생이 官婢의 신분을 얻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관비와 기생의 삶은 확연히 구분된다. 관비가 바빠서 겨를이 없는 동안 기생은 잔치 놀이와 풍악 익히기만 일삼고 있다. 특히 ①에서 기생을 관비로 만들어 편할 때로 하라는 것은 기생은 평소에 관비로 일하면서 때때로 원래의 妓役을 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남성 사대부에게 예능과 몸의 착취에 더불어 婢子로서 노동력의 착취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생의 입장에서 양인 환속이 아닌 관비가 되는 기생의 혁파는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다.

기생 봉황아의 경우는 연산군의 天科興淸⁵⁸⁾으로 중종 반정 이후 放逐되었다가 天科興淸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다시 妓役으로 돌아왔다.⁵⁹⁾ 放逐되었을 때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양인이나 관비가 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貢을 바치고 免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⁶⁰⁾에도 還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종이 연산군과 관계를 가진 興淸에게는 身貢만 받고 일을 시키지 말라고 전지했고 이를 어긴 고을 수령을 죄주었다.⁶¹⁾ 게다가 사대부들은 연산군과 관계를 가진 興淸들과 사통하였는데 推刷하자 태아를 유산시키거나 영아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⁶²⁾ 이를 통해 興淸이 放逐되었을 경우, 기생보다 못한 관비와 같은 생활을 했었음이 짐작된다. 따라서 봉황아의 사례를 통해 기생의 혁파는 결코 기생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에 잘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기생과의 간통은 불법이었고 따라서 많은 관료들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관비와의 간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2품 이상, 관리의 자식을 낳은 관비의 경우 私婢를 대신 바침으로써 贖身이 가능했다.⁶³⁾ 간통에 대한 위험도 없으며 한편으로는 속신시켜 독점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기생을 첩으로 삼고 대신 관비를 妓役에 넣음으로 기생첩을 속신 시켰다는 기사⁶⁴⁾는 기생과 관비의 관계 그리고 사대부와 관비

55) 『중종실록』29, 12년 8월 25일.

56) 『중종실록』35, 14년 1월 14일.

57) 『중종실록』97, 37년 3월 15일.

58) 興淸도 등급이 있었는데 임금의 사랑을 받은 자는 天科興淸,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地科興淸 그리고 임금의 사랑을 받되 흡족하지 못한 자를 半天興淸이라 하였다.

59) 『중종실록』12, 5년 10월 12일.

60) 같은 곳.

61) 『중종실록』3, 2년 6월 8일.

62) 『중종실록』20, 9년 6월 28일.

63) 『경국대전』, <刑典> 賤妾

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여악의 폐지는 연산군 이후 왕에 대한 기생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왕의 기생에 대한 점유를 몰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편 기생의 효과는 기생을 관비로 전락시켜 官과 사대부의 입장에서 보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왕은 사실상 관비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남남성 사대부가 독점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어떤 식이든 조선전기 사대부의 여악폐지론은 기생에 대한 사대부, 그들의 점유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V. 나가며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사대부의 기생에 대한 점유 문제를 여악폐지와 기생효과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여악폐지와 기생효과 문제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세종조와 성종조까지는 여악폐지가 기생효과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산군조 荒淫의 시대를 거쳐 중종조에 오면 여악폐지의 문제는 곧 임금에 대한 기생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결국 기생에 대한 임금의 점유를 탈각시키고 사대부가 독점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 여악폐지의 문제는 기생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기생이 효과되었지만 사대부들은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 여악을 향유한다. 한편으로 효과된 기생은 관비로 전락해 예능과 몸 거기에 육체적 노동까지 착취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역시 기생에 대한 사대부의 점유를 확고히 하는 측면으로 작용했다.

참고자료

기초자료

- 『고려사』
- 『경국대전』
- 『문종실록』
- 『세종실록』
- 『성종실록』
- 『연산군일기』
- 『중종실록』
- 『태종실록』

64) 『중종실록』57, 21년 11월 2일.

논문 및 단행본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_____, 「조선 가부장제의 성적 욕망과 기녀」, 『코기토』6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 권택영,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 김동욱, 「이조 기녀사 서론」, 『아시아여성연구』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1996.
- 김정숙, 「한문소설의 사랑, 남성적 환상의 다양한 변주」,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07.
- 김종수, 「조선전기 여악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2.
- 김창현,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2007.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28, 민족문화, 2006.
- 신현규, 「문헌에 나타난 ‘기(妓)’의 기원 연구」, 『한민족문화연구』23, 한민족문화학회, 2007.
-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의 유형고」,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 이능화, 이재곤 옮김,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 이동성, 「라캉의 구조주의 욕망이론」, 『동서언론』9, 동서언론학회, 2005.
- 이인로, 구인환 옮김, 『破閑集』, 신원문화사, 2002.
- 이화형, 『뜻은 하늘에 몸은 땅에』, 새문사, 2009.
- 장사훈, 「이조의 여악」, 『아시아여성연구』9, 숙명여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70.
- 조광국, 「16세기 초엽 기녀제도 개편 양상」, 『규장각』2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 _____,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 브루스 핑크, 맹정현 옮김,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사이트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 내재된 여성인물의 영웅성 고찰

이은희 (강원대학교)

목차

1. 서론
2. 설화자료 개관 및 서사구조 분석
3.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의 내재적 의미
 - 1) 여성이인과 여성영웅의 경계 허물기
 - 2) 능력자를 능가하는 능력자로서의 여성인물
 - 3) 여성인물의 외적 결함에 대한 인식 태도
4. 결론

I. 서론

영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괴물로부터 공주를 구해내거나,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후의 위풍당당한 모습, 지극히 남성적인 이미지이다. 영웅에 대한 이같은 고정된 이미지로 인해 우리는 영웅을 거론할 때면 언제나 국가적 위기, 거창한 위기를 타개하고 중심에 우뚝 선 존재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영웅적 존재는 자주 남성적 이미지와 중첩되곤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상이면서 동시에 남성영웅이다. 그렇다면 여성영웅의 형상은 어떻게 존재할까. ‘강력한 힘’이라는 속성을 일차적으로 갖고 있는 남성영웅의 대척점에 여성영웅의 자리를 상정하면 여성영웅이 설 자리는 상당히 좁아 보인다. 여성영웅은 비단 잔 다르크나 물란과 같이 여성의 몸에 남성의 갑옷을 두르고 전공을 세운 인물만을 이르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각으로 여성영웅과 남성영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만이 반드시 이들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고전서사 속에는 수많은 여성인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그 중에는 분명 영웅적 면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여성영웅의 존재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신화에서, 서사무가에서, 기록된 설화에서, 소설에서 여성영웅의 원형을 찾고, 실상을 밝히고,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영웅에 비해 여성영웅의 자리는 불안하고 좁아 보인다. 특히 여성영웅소설의 발생과 장르교섭 관계를 다루면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소설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영웅적 존재이지만, 설화¹⁾에서는 이인이거나 지인이거나 남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의 ‘여성우위’, ‘여성주도’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²⁾ 주요삽화를 공유하고 있는 설화와 소설에서 동일한 인물 유형이 다르게 규정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³⁾

본고는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주요 삽화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설화 가운데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유형의 설화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는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박씨전>과 그 친연성을 논할 수 있다.⁵⁾ 설화 각편들에서 주요 모티프를 추출하여 여성인물이 처한 문제상황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여 설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영웅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영웅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전통사회 여성이 놓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남성과 같은 양상으로 드러날 수는 없을 것이다. 설화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설화 속 여성인물의 실상이 밝혀지고, 여성영웅을 이야기하는 설화전승 집단의 의도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설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설화자료 개관 및 서사구조 분석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설화 연구에서 ‘여성이인담’으로 분류하고 있다.⁶⁾ 그런데 실제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활약상이 영웅이야기의 전승적 유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또 영웅의 일대기를 갖추지 못하고 단편으로만 전승될지라도 주인공이 ‘영웅’인 경우가 있으며, 심각하게 대결을 벌여 승패를 판가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어떤 방면에서 범인을 넘어선 능력’을 지닌 인물이 ‘민중의 공감’을 얻어 영웅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민간에서 전승되는 영웅설화에서 영웅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유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어떤 인물의 어떤 자질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영웅성을 얻는지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⁷⁾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비범하

1) 여기에서의 설화는 전설과 민담을 지칭하는 ‘협의의 설화’를 말한다.(강재철, 『설화의 개념·갈래·명칭』, 『설화문학연구(상)총론』,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참고)

2) 강영순, 『조선후기 여성지인담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곽정식, 『한국 설화에서 본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 『인문과학논총』제9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정경민, 『여성 이인설화 연구 : 기존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윤민아, 『여성이인설화와 여성영웅소설비교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07.

이상희, 『여성이인설화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3) <박씨전>에서 ‘박씨부인’의 영웅적 능력으로 거론되는 것은 ‘조복짓기’, ‘지인지감’, ‘전란 예지’ 등으로(윤분희, 『<박씨전>의 여성 영웅성 연구 - 활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문화』제1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설화의 주요 모티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물의 자질이 소설에서는 영웅으로 설화에서는 이인으로 달리 분석된다.

4) 텍스트는 『한국구비문학대계』소재 설화이다.

5) 대계를 분류한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서도 ‘231-5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박씨전 유형)’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 유형의 설화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박씨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편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인이란 대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도 숨어 지내는 인물을 의미한다. 예사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영웅이나 신인과 구별되지 않는다. 영웅이나 신인과 구별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드러남의 차이로 할 수 있다.(정경민, 『여성 이인설화 연구 - 기존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2004, 155쪽.)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경우 사회적, 제도적 제약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발휘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되어 있는 여성 인물의 능력이 ‘드러남’의 차이로 인하여 이인으로 설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 태어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남성영웅에 비해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외적인 공헌과 기여도만큼이나 가족과 가문 그리고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공헌과 역할 수행에도 그에 상응하는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각편들의 대략적인 전개양상을 보자.

<설화자료 개관>

번호	출전	설화 제목	제보자 성별	설화전개양상		
				문제 상황	능력발현양상	결과
1	1-5	곽재우 부인의 슬기	남		예지, 용맹, 지혜	마을구원
2	1-8	맹자 이야기	남	박색, 남편위기	지혜, 예지	남편구원, 혼인
3	3-1	이인 며느리	여	이상 행동, 남편위기	전쟁대비, 참전, 도술	남편구원, 전쟁승리
4	3-1	영리한 윤두수 후처	남	박색	바느질, 살림솜씨	부부화합, 아들 삼형제
5	3-3	소경부인 얻어 부자가 된 이야기	남	봉사	그물뜨기	아들 삼형제 과거급제, 치부
6	4-4	황부인 이야기	여	박색	도술, 바느질 솜씨	부부화합, 변신, 치부
7	4-4	마누라 지혜로 명판관 된 원님	남	박색, 장애	지혜, 용맹	남편 명판관
8	4-5	소경 아내 얻고 잘 된 사람	남	소경	지혜, 기동 바로 세우기	아들벼슬, 치부
9	5-1	제갈량 부인이 제갈량을 가르치다	남	남편 무능	발가락으로 산가지 놓기	남편 출세
10	5-4	왕씨 며느리	남	박색, 단신, 가문위기	예지	가문수호, 옥씨 시조
11	5-5	명석한 장님 며느리	남	당달봉사, 가문	예지, 짐승 말 알아듣기, 기동 바로 세우기	치부
12	5-5	새신랑 쫓아낸 박색이 첫날밤 치르고 미인되다	남	박색	살림솜씨, 도술, 지혜	부부화합, 변신, 치부
13	5-6	이동구 이야기	남	이상 행동	예지, 피난대비	임란 피함
14	6-4	제갈공명의 부인	남	박색, 격리	신체분리, 남편에게 사술 가르침	남편 출세
15	6-4	갈 처사의 딸	남	박색, 남편 병	도술, 예지(밤나무 심기)	변신, 남편 회생, 전란 대비
16	6-9	박씨전	여	박색	짐승 말 알아듣기, 신체분리, 참전	변신, 전쟁 승리
17	6-1 0	안맹한 사람이 용하다	여	봉사, 시가 가난	술장사, 기동 바로 세우기	치부
18	7-1	첫날밤에 웃은 색시	여	이상행동, 남편구박	짐승 말 알아듣기	삼정승 옥판서

7)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인식」, 『구비문학연구』제4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81-282쪽.

19	7-3	얹은뱅이 며느리	남	당달봉사, 얹은뱅이	명당 발견, 기둥 바로 세우기	금 발견, 삼정승 옥판서
20	7-4	정다산의 못난 아내	남	단신, 박색, 이상행동	바느질 솜씨, 예지	아들 정승
21	7-4	정승집 며느리의 슬기	여	단신, 박색, 국가 위기, 격리	환생초, 용포 짓기	변신, 삼정승 옥판서
22	7-6	아내의 변신과 슬기	남	박색, 남편두루마기찢음, 남편위기, 전란	바느질 솜씨, 예지(전란대비), 도술(백사장에 오두막), 날개옷, 변신	남편구원, 가문구원, 전쟁 승리, 평양감사
23	7-6	타파리 며느리	여	박색, 관대 짓기, 가난, 격리	관대, 저승포 짓기	일등 부인, 치부
24	7-8	얹고 검은 고동지	여	박색, 이상 행동	도술, 바느질 솜씨	남편 급제, 변신, 아들 셋 딸둘
25	7-9	못생긴 각시의 지혜와 솜씨	여	박색, 이상행동	바느질 솜씨, 예지	삼정승 옥판서
26	7-10	변신의 능력을 지닌 며느리	여	박색	도술	변신, 가족 화해, 아들 낳음
27	7-14	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1)	남	박색, 장애(장채다리, 곰배팔이), 시가 구박, 시부 조복 불에 탐	과격 행동, 세상에 없는 베로 만든 버선, 예지, 조복 짓기, 변신, 살림 솜씨	국사조언, 부부화합
28	7-14	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2)	남	박색, 격리, 시부의 시험	공부, 변신, 지혜	가족 화합
29	7-13	신이한 병신 며느리가 낳은 아들	여	장애, 파혼, 격리, 갑옷 태움	도술, 바느질 솜씨, 신물 조끼, 지혜, 변신	아들이 임금
30	7-13	이인 며느리	남	박색, 시부 의 시험	짐승 말 알아듣기, 글 짓기, 남북(남편 과거 시험 대리), 전란 대비	남편 급제, 전란 피함, 가문 보존
31	7-16	박씨전	남	박색, 전쟁, 박씨 위기	바느질 솜씨, 예지, 도술	남편 급제, 기용대 처리
32	7-16	박부인과 임경업 장군	남	박색, 격리, 명국에서 명장 요청, 남편 위기	예지, 도술, 변신, 임경업 추천, 전란 참여	남편 급제, 용골대 처치
33	7-18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대인 며느리	남	이상행동, 시부의 시험	짐승 말 알아듣기	치부
34	8-10	용왕국 여장사가 변신한 며느리	여	박색, 격리, 수궁 전쟁	바느질 솜씨, 수궁 전쟁 참여, 변신	삼정승 옥판서, 전쟁승리, 치부
35	1-7	박씨부인이야기(1)	남	박색, 비린내, 담뱃불에 흉배 탐	하룻밤새 흉배짓기	별당을 짓게 함
36	1-7	박씨부인이야기(2)	남	박색, 전쟁	팔문건사지법으로 진을 쳐 용골대, 마골대를 잡음	용골대, 마골대 군대를 침
37	1-7	박씨부인이야기(3)	남	박색, 비린내	허물벗기	변신, 좋은 향기, 부부화합

모티프를 중심으로 서사단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며느리(사위)를 구한다.
2. 신행에서 여성인물을 실제로 보니 의외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 ① 박색이다.
 - ② 신체적 장애가 있다.
 - ③ 이상 행동을 한다.
3. 여성인물을 가둔다.
4.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 ① 시가(또는 시부 또는 남편)에 문제가 생긴다.
 - ②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5. 여성인물이 능력을 발휘한다.
 - ① 바느질, 살림 솜씨를 보인다.
 - ② 예지력으로 앞일을 대비한다.
 - ③ 도술을 부린다.
 - ④ 전란에 참여한다.
6. 여성인물이 문제를 해결한다.
 - ① 집안을 일으켜 부를 축적한다.
 - ② 남편과 아들을 출세시킨다.
 - ③ 전란에 대비하여 가문과 마을을 보전한다.
 - ④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는 1. 배우자 선택, 2. 여성인물의 결함 발견, 3. 여성인물 격리, 4. 문제상황 발생, 5. 여성인물 능력 발휘, 6. 문제해결을 중심 에피소드로 하고 있으며, 구연자의 구연 능력과 의도에 따라 단편적인 일화에서부터 소설적 담화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제시되고 있다.

여성인물의 아버지와 미래의 시아버지는 양가 혼인을 하기로 한다. 대문 밖에 그려둔 화상을 보거나⁸⁾, 여성 인물을 언뜻 보거나⁹⁾, 사돈의 인물됨을 보고¹⁰⁾ 저 정도면 내 자식의 배필로 손색이 없겠다 생각하여 여성인물의 배우자가 결정된다. 혼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혼인을 약속하고 신행길에서 직접 본 며느리(부인)는 애초에 생각했던 인물과는 너무도 다르다. 외모가 형편없는 것이다. 여성인물의 외모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올 정도이고, 어쩌나 벼락 맞게 생겼는지 서방이 그냥 나가버릴 정도이다.

“신부가 얼마나 그렇게 못났단디 시어머니가 그렇게 히쫘는가 모르겄다고. 귀경이나 가보자.”고.

8) 그 정성이 이녁 아들만치 얼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우 불라고 인자 화상을 그래 붙여 낫다 안카나.(7-14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 (1))

9) 그 집 딸을 보이끼네 이 진사 맘에 썩여 들었는 기라. ‘저 정도 걸으면은 우리 자부 자격이 있고 우리 살림을 운영해 나갈 자격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 인자 그 주인한테 청혼을 하이간.(7-14 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2)) 처재가 하나 나오는데 참 황홀이 야. 별다아서(별당에서) 나오는데 보이 황홀하게 나온다 말에.(7-10 변신 능력을 지닌 며느리)

10) 서울 장안 안에 광경신이라고 하는 이가 갈쳐사 허고 친해. 친허님께 서울서 만나갓고 “나, 자식을 여울라는데 어디 귀수, 자네 딸이 있으면 우리 서로 결혼허세.”(6-4 갈쳐사의 딸)

가서 본게 가매에서 나오는다. 어떻게 키가 쪽은가 가매문을 고개도 안수그리고 그냥 나오드랴. 꼬 부리도 않고. 근게 그 저 귀경허는 동네 사람들이 서를 차면서(5-4 왕씨 며느리) 손님이 들어가지고, 아 얼굴이 틀어지고 마 주리주리 맷혔다 안카나. 손님 바람에 한쪽 팔을 못 시고 다리가 장채다리고, 곰배팔이 장채다리 이놈의 자식 뭐 얼굴이 뭐, 뭐 비딱하이 뭐 주리주리 맷혔다 안카나.(7-14 앞 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1))
아 각시를 쳐다본 게 서방이 강 옆으로 못가졌어. 어떻게 쭈리쭈리 얹고 뽁뽁 얹고 낮 바닥이. 코 할나 짝 찢어지고 배락맞게 생있던지. 아 새신랑이 강 나가버렸어.(5-5 새신랑 쫓아낸 박색이 첫날 밤 치르고 미인되다)

모든 각편에서 여성인물의 하찮은 외모가 부각되어 있다. 단순히 외모가 못났다 정도가 아니라 못생기고, 작고, 장애를 가진 신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보여줄 여성인물의 능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인물을 최대한 평가절하 해 그러한 인물이 보여주는 의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이다. 외적인 조건과 내적 능력의 거리가 멀수록 인물이 보이는 행적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못난 외모를 지닌 여성인물은 시가 식구들에 의해 감금된다.¹¹⁾

뽁뽁헌 여자가 어떻게 미워서 뒷방 자그마한 방에다 딱 가둬 놓고 삼시 세 때 주먹밥 정도로 해서 맥이고 살고 허는다(6-4 제갈공명의 부인)
연못가에 굴을 파서 집어 넣었어.(7-8 얹고 검은 고동지)
“감바아(감방에) 조여라(집어 넣어라)! 구체없다.(7-10 변신의 능력을 지닌 며느리)
시어머이가 밍다고 이 며느리로 갖다가 어디다가 가웠냐 할 것이몬 곡간(고방) 곁은 데다가 말이지 가다가지고(가두어서) 종년을 밥을 갖다 주라 카고 도저히 얼굴이 뵈기 싫은 기라. 눈이, 그 쪼매는 잘팽이 눈 그기 열매나 더럽노 말이야.(8-10 용왕국 여장사가 변신한 며느리)

감방, 골방, 굴, 곳간에 감금된 여성 인물은 시가 식구들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인물은 외판 공간에 고립되어 시가 식구들과의 인간적인 교류 없이, ‘구무밥(구멍밥)’이나 ‘세나까리’의 난알을 주는대로 먹으며¹²⁾ 시련의 시간을 보낸다. 시가 식구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감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인물이 시집을 와서 잠만 자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각편들도 있다.(자료3. 20, 24, 25) 여성인물의 문제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이 각편들도 비록 외압에 의한 감금이나 격리는 아닐지라도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고립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된 여성인물은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죽과 마늘만 먹는 시련을 견디어 여자로 환생한 웅녀와 많이 닮아 있다. 또한 해모수와 관계가 알게 된 금와에 의해 방에 갇히게 된 유화를 연상케 한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끝에 웅녀가 단군을 낳고 유화가 주몽을 낳은 것처럼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의 여성인물도 시련의 시간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어간다.

드디어 여성인물의 삶이 전기를 맞이할 계기가 마련된다. 시가, 시부, 남편,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인물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여성인물은 자기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못생기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상행동을 하는 며느리의 말은 쉽게 무시된다.

11) 자료 4, 14, 21, 23, 26, 28, 29, 32, 34

12) ‘까짓 밥도 세나까리씩 주고 언쵸 내뻘리면 안가겠냐’카고서 보내냈다.(7-14 천상사람인 이인 며느리 (1))

그 따우 그기 무신 놈의 옷을 하니. 그 꼬라지 꼬라지 보만 그거 옷 하까 싶으잖다.(7-8 얹고 검은 고동지)

그래가 본판을 내주 뭘 ‘아무것도 노로 탕탕한 기 뭐 중악한 거는 모른다’꼬(7-13 이인며느리)

“지가 잘팽이 걸은 눈을 갖고 무슨 옷을 할 것고? 옷도 인자 베리(망쳐) 갖고 장삼도 못하구로 맨 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8-10 용왕국 장사가 변신한 며느리)

“너 저 새서방님 오늘 과게 가지. 과게 가는데 잠깐 여 들다보고 가라개라.” 인제 자기한테 왔다가 라 카는기라. 개코도 가는가. 고마 이시제가, “그 망할 년이 대장부 과게 보러 가는데 방해지긴 다.” 카미 고마 이래 야단을 치네.(7-16 박부인과 임경업 장군)

자신의 말과 능력이 무시당하지만 여성 인물은 앞일을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문제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며 지혜나 도술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한다. 시가 식구들이 못난 외모로만 인물됨을 판단하고 자신을 가족들과 격리시켰을 때 여성인물은 어떠한 불평이나 항변도 하지 않는 모습이 었다. 그렇게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능력을 인정받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인물의 문제해결방식이다. 여성인물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지은 집의 기둥이 거꾸로 놓인 것을 알아내는 모티프를 덧붙여 그동안 무시당했던 여성인물이 사실은 보통사람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¹³⁾(설화자료 8, 11, 17, 19) 또한 새 신부가 소리내어 웃어 시가 식구들에게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행위도 사실은 며느리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웃은 것으로 밝혀져 이상행동을 한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만물소리’를 다 아는 인물로 격상된다.(설화자료 11, 16, 18, 30, 33) 살림 솜씨로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남편이나 시부를 위기에서 구하고, 남편의 과거급제를 돕고, 아들을 삼정승 육판서로 길러 내는 등 가정을 유지하고 번창하게 하는데 여성인물의 역할은 지대하다.

여성인물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삼 년 동안 잠만 자던 며느리가 박 농사를 짓고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에 나간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전쟁에 뛰어들며, 가족이 소속한 마을공동체의 안위를 돌보고 국가적 위기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저 어느 발이구 석달 열흘같이 발을 날 물려 주시유. 그러가고 박씨 열닷 섬을 구해 주시유.” … “아부님 날 무쇠가마를, 어디 있는 몇 도(道)의 무쇠를 몇 만근을 좀 모아 주시유.” … 아 또 고출 또 몇 만관 모아 달라더래. 누에고치를 몇 만관만 달라더래. … 그걸루 투길 맨들더래. 칼이 안들어 간대. 명주실 굵은 걸로 짠건. 그 때 갑옷이 났대. 갑옷이 났는데 그 여자가 그래 갑옷을 만드는데 그걸로 머리에 쓰는 투구하고… “아무데 곳간에서 군량밀 내 오너라.” 하구선, 작인들이 모두 쌀을 가져 오군 해. 잘해 먹은 은공으로. 또 곳간 문을 짹 열어 놓으니 군인들이 밥 퍼 먹을 그릇이 없다가 그 바가지 갖다가 밥 퍼 먹고. 그래 들바가지가 생겼대. 그래서 그 여자는 그래 득세를 하고 나라에 은공을 입었대.(3-1 이인 며느리)

여성인물은 외모가 못나고 행동이 못나서 즉 사회가 인정하는 ‘여성성’을 갖추지 못하여 배척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그러나 이에 항거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닌 능력을 선불리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이를 놓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

13) “아니라고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동이 꺼꾸로 섰습니다. 이 지동을 그대로 우리 집을 마추면 우리 집은 망헌께 이 지동을 빼야 합니다.” 꺼꾸로 섰다고 근게 목수가 그만 화를 냄시로. “뒷을 봐서 눈도 못보는 이가 꺼꾸로 섰다고 허냐고.” 그럼시로 인자 야단이 났단 말여. 근게 뒷이나 이분네가 확실히 꺼꾸로 섰다고. “나무라는 것은 수분을 빨아 먹고 사는 것이 라 밑은 무겅고 우게는 개번(가벼운) 것이여. 근게 이 지동을 빼다가 물에다 느보면 알 것 아니냐. 분명히 꺼꾸로 섰다. 빼라.” 근게 인자 헐 수 없이 빼다가 물에다 느본께 역시 그러코 꺼꾸로 섰그덩. 근게 그때는 인자 참 목수가 면목이 없지. 꺼꾸로 들어서니까.(5-5 명석한 장님 며느리)

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해결을 방해하려 했으나, 골방에 갇혀 ‘구멍밥’을 먹어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뜻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추한 외모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머느리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살림 솜씨와 바느질 솜씨로 위기에 처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구해내거나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눈이 보이는 사람도 보지 못한 잘못을 지적해내고,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여성인물은 가산을 늘리고 남편과 자식을 출세시켜 가문을 번성하게 한다. 여성인물이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결말 이외에 의미가 확대된 결말 구조를 보이는 각편들도 있다. 이들 각편은 여성인물이 전란에 대비하여 군수물품을 마련하고 자신의 집과 마을 주변에 밤나무를 심어 적의 침입을 막고, 직접 전란에 참여하여 적장을 처치하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성의 능력이 가족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의 내재적 의미

1) 여성이인과 여성영웅의 경계 허물기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웅은 신이한 혈통을 가진 탄생으로 시작하여 위기를 넘기며 고난을 극복하여 끝내 승리자가 되는 인물¹⁴⁾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남성영웅의 서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일대기이다. 신화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로 무대를 옮기면서 영웅의 삶의 궤적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었다. 영웅도 이제는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영웅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쟁 시대에는 전쟁영웅으로, 어떤 시대에는 민주·민중 투사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시대에는 환경 운동가로, 그리고 여성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여성 운동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웅이란 칼이나 총 등을 써서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식 등 내적인 힘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이다.¹⁵⁾ 여성과 남성의 활동 영역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의 삶의 실상이 다른 현실에서 여성영웅은 남성영웅에 대응되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여성의 활동영역 안에서 그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¹⁶⁾

여성영웅은 여성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회복하는 인물일 것이다. 설화 속에서 여성 집단 전체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주체적, 독립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여성인식을 보여주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여성 인물을, 단순히 ‘이인’ 또는 ‘지인’이라거나 여성인물을 평가하는데 있어 아예 남성을 기준점으로 상정하여 ‘여성 주도’ 혹은 ‘여성 우위’로써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영웅’으로 의미화하고 수용하는데

14) 서대석은 이러한 영웅에 대한 정의는 신화적 의미로서의 ‘영웅’ 개념으로 실상 우리 소설사의 ‘영웅’의 의미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웅’이라는 개념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텍스트 내에서 공동체의 욕망을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존재’라는 다소 막연한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하였다.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12-13쪽 참조.

15) 김열규 외, 『한국 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89쪽.

16) 윤분희는 공적인 영역에서 성찰들을 통해 여성 전체 집단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를 여성영웅이라고 하였다. 윤분희, 「여성영웅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32집, 한국문학회, 2001.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영웅의 일대기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의 비범한 출생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남성영웅의 경우 대부분이 이 서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물의 경우 신이한 출생에 의지하여 영웅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영웅적 면모가 드러난다. 즉 남성영웅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의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것이라면 여성영웅의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영웅의 자격을 검증받는다. 그런데 이때 여성인물은 자주 며느리로 불린다. 여자나, 부인, 아내라는 호칭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등장인물로 나타날 경우에만 사용되고,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며느리라고 한다. 딸, 아내(부인), 어머니 등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 중 전통사회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역할은 며느리이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가 비록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여성의 활약상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 전체의 의미는 여성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계가족사회에서는 모든 권한이 남성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계가족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며느리에게는 혼인 전 과거의 삶을 백지화하고, 시가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위가 확보되고 상승하는 이른바 성취지위¹⁷⁾가 주어진다. 성취지위는 시가에 얼마만큼 순종하였는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공헌하였는지, 가계를 계승할 아들을 출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혼인 전 여성 인물의 고귀한 혈통이나 신이한 출생담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혼인한 여성에게 그 이전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 이후에 여성의 삶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¹⁹⁾ 며느리는 비혈연적 가족구성원으로 시가로 편입되기까지 고난이 따른다. 혼인을 통해 시가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이것은 여성인물이 극복해 나가야 할 첫 번째 고난이자 전통사회 여성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고난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영웅이 상대해야 할 고난은 가정을 벗어나 외부 세계에 있는 반면, 여성인물이 헤치고 나아가야 할 난관은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다른 인물들이 보기에 여성인물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외모가 혐오감을 주고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것이다. 소외된 약자로서의 여성인물은 시가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참인데, 여기에 난관 하나가 더 보태진 것이다. 여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적 자질보다 외모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여성인물의 또 다른 고난이다. ‘못생긴’ ‘여성’이라는 이중 고난 속에 있는 여성인물에 대한 시가 식구들의 태도는 괘시를 해도 되고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도 된다는 식이다.

‘아이고 까짓거 아들 장개 한 분 더 달이면 안되나, 안동 모른동 집에 갈밖에 없다꼬?’...‘땀어 갖고 까짓거 뭐 내가 괘시를 많이 하면 저거는 저절로 갈참인께’(7-14 천상 사람 이인 며느리(1))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하고 인자 정을 내서 갈리케코롬(헤어지게끔) 히야겠는디 무슨 계책이 없어.

17) 성취지위란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여지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자에게 성취지위를 주었다면 남자에게는 이미 출생과 더불어 얻어지는 기득지위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8) 이광규,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1981. 11-12쪽.

19)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서 여성인물의 일대기를 구조화해 볼 때 여주인공의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결혼 이전의 삶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천하 박색이었던 여성이 있었다는 식으로만 나타난다. 여성인물의 비범함이 발현되는 것은 훌륭한 후사를 두어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부를 축적하며 전공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혼 전 고귀한 혈통이나 신이한 출생담은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인물의 결혼 전의 삶은 무시되고 결혼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서 꾀를 낸 것이, 메누리를 인자 살살 굵어야 혀.(5-4 왕씨 며느리)
 골바 좌 여놓고 밥이 생기면 주고 머머 가지꺼 먹으면 먹고 마면 말고, 시어마이도 피피, 고마 신
 랑으는 돌아다 보지도 안하고(7-6 타파리 며느리)

여성인물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 받지 못하고 시가 식구들로부터 격리된다. 여성인물이 문제 상황으로 인하여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되는 모티프는 여성영웅서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서사적 전통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성 집단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의미화되어 수용되고 있다.

시가 식구들에 의해 외부와 격리된 여성인물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공간에서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가를 드러낸다. 여성인물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외모로 인하여 누구도 그 능력을 보지 못하였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성인물이 자신의 영웅성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다. 흔히 이인과 영웅을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숨김과 드러남이라는 속성을 든다.²⁰⁾ 그러나 여성인물은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 만큼 인물의 능력이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가지고 이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상황은 집을 짓는데 기둥이 거꾸로 놓이거나, 조복 또는 흉배가 훼손되어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남편이 위기에 처하는 등의 집안 문제에서부터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전란이 일어나 마을과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대외적 문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여성인물은 지혜와 예지능력과 용맹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바느질 솜씨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바느질이라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로 생각되지 않는 여성의 가사 노동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설화에서는 하룻밤새 옷을 다 짓거나, 훼손된 옷을 자국 없이 잘 꿰맨 덕분에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남편과 시아버지가 위기를 넘기는 결과에 이른다.

“우리 새서방님은 지금 과개를 보러 갈라고 용이 양쪽 어깨에 알을 물고 막 날개가 일시 나는 거 치 그래 의복을 해입고 오라 카는데, 그 의복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암만 구해로 땡기도, 삼 일째 저래 구해로 땡기도 그 의복을 못 한다.” 칸께, … 그렇기 수를 잘 날아가이고 옷을 해주려여. (청중 :참 얼굴만 얹었지, 재주는…) 그래가이고는 참 그 옷을 입고 과개를 보러간께 과개가 땀대 여. (7-8 얹고 검은 고동지)
 이진사가 조정에 들어갈 텐데, 그 어떻게 허다구선 담뱃불에 이 흉배를 땀어. 이- 조복에. 이- 널 아침에 들어갈 텐데 이걸 땀으니 어떡허나 말야. 그래 걱정을 무시허구, … 메누리가 그걸 알구선 나가서, 쌍학 놓고, 모금해서 꼭 맨들었어. 모판도 보지 않고 맹글었어요. 그래, 널 아침에 갖다 자기 시아버니한테 바쳤어요(1-7 박씨부인 이야기)(1) 하룻밤새 흉배짓기)
 삭삭삭 해가지고 뒤에 학을 한 쌍 딱 놔서 이래갖고 내놓은께 참 잘했거든. 인자 그 옷을 딱 해갖고 입고 올라가서 벼슬을 했다 말입니다.(8-10 용왕국 여장사가 변신한 며느리)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의 대가로는 거창한 결과이다. 이는 집안에서 여성이 하는 가사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여성의 역할에 가치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이 하는 집안

20) 윤주필은 이인이 특이한 재능, 숨김과 드러남의 괴리, 영적 지혜의 매개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윤주필, 『이인설화의 의미 층위와 문제점』, 『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이상희는 이인설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이인의 성격은 도가적 성격의 인물에서 예사사람보다 나은 능력을 지녔으나 숨어 지내는 인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이상희, 『여성이인설화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조동일은 예사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은 신인, 영웅, 이인인데 이 중 이인은 도술을 지니고 숨어 지내는 인물이라 하였다.(조동일,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면모』,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137-139쪽.)

일이 무시될 수 있을 정도의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성인물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는 하찮은 듯 보이는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설화전승집단의 의식이 반영된 상징적 표현이다.

여성인물의 활동범위는 가정 안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설화 속에서 여성인물은 전란에 대비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는 등 강인한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여성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도 역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임진왜란이 나서 왜군사가 막 해들어 치구 황급하게 땡길 적에 인제 그 부인네가 동네 젊은 그 장년들을 죄 몰아, 모아서 끌어들여, 수천 명을, 수백 명을 몰아 뵈아가지구는,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당신 자기네들 여기 있어두 전쟁이 나 죽을 거구, 나가두 죽을 거구 하니, 이 동네는 내가 지킬 테니까 자기네들은 우리 선생님 영감, 객재우를 따라서 의병으루 나서라.”(1-5 객재우 부인의 슬기)

진중을 헤치고 나와선 거기 와선 그 작인들 해선, 그적엔 군사를 모으는데 몇 천명 군사를 모우더 래.(3-1 이인 며느리)

그래, 용골대가 먼저 들어갔어요. 목을 치겠다고 칼을 들고서 들어갔지. 웬걸! 들어가서 박쳐사 부인이 자기의 인제 몸종을 데리고 또 나서더니, “전부 읊아라.” 말야. “쇠사슬로 읊으라.” 구. 게, 가만히 앉아 시키니까두루 마 쇠사슬을 가지고서 몸종이 가니까 이 팔을 못 써요. 꼼짝 못하고. 그래, 잔뜩 읊아 댔지 뭐야. 용골대를. 마골대도 그러구. 마골대를 마저 그러구. 그래, 그런 식으로 잡았어요.(1-7 박씨부인 이야기(2))

여성인물은 전란에 대비하여 마을 주변에 밤나무를 심고, 적을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옷칠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투구와 갑옷을 만든다. 군사를 모으기도 하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²¹⁾ 영웅적 활약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전쟁에 나가 능력을 보인 인물만큼이나, 여성 전체의 삶을 대변하고 고난을 극복하여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인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영웅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 큰 공을 세우는 일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활동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지위를 확보하고 그 결과가 개인적 차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까지 영향²²⁾을 미쳤다면 이 또한 여성인물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2) 능력자를 능가하는 능력자로서의 여성인물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각편 중에는 역사 속 실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제갈량의 부인(설화자료 6, 9, 14), 맹자의 부인(설화자료 2), 객재우의 부인(설화자료 1), 윤두수 아버지의 후처(설화자료 4)²³⁾, 정다산의 부인(설화자료 20), 황희의 며느리(설화자료 23), 이성계를 살린 왕씨 며

21) 이상희는 ‘여성이인은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수동적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영웅과 다른 점이다. 전쟁이 나면 영웅은 나가 싸워 승리를 이끌어 세상을 구제한다. 그러나 여성이인은 전쟁이 날 경우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다. 도술로 무기를 만들기보다 갑옷, 쇠박 등을 만든다. 모두 방어하기 위한 도구이다. 싸우기 보다는 방어로 치중한 도술의 사용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걸로 그만이다.(이상희, 앞의 논문, 31쪽)’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 각편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성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분명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없다면 여성영웅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22) 시아바이가 나라일을 맡았는데, 대국서 천자가 용포를 지어 보내라는 용포장을 받았는데, 지리(길이)도 품도 모르고 비만 내 보냈거든. ... 살강에 그냥 얹혀 있는 비를 보고 갈날은 닥아오고 맨날 걱정을 한다. ... 근데 언제 했는지 용포를 지어놨어. 그래 대국천자에게 가져가이 지리도 품도 딱 맞거든. ... 조선팔도에 인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 불려고 그랬더니 조선에 인재가 있구나.(7-4 정승집 며느리의 슬기)

느리(설화자료 10)가 그들이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야기 속 여성인물보다 남성인물이 더 알려져 있고 남성인물은 뛰어난 능력자로서 공인된 인물이다. 그러나 설화에서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인물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등장한다.

얼굴은 비록 못생겼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여성인물의 대명사로는 제갈량의 부인을 꼽을 수 있다. 제갈량의 부인은 ‘황씨부인’ 또는 ‘황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 가운데 여러 편 존재하고, 제갈량 부인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갈량의 부인의 행적이 거론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배웠거든. 부인한테 배워가지고 유현덕을 얼마나 도왔느냐 말이야. 제갈량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뺍이 이제 참 무서운 것이구만. 참 무서워.” 그렇지, 여자라도 머리가 속트인 사람한테는 물어야지.(5-1 제갈량 부인이 제갈량을 가르치다)
여여 대국 제갈량 안들이 그렇다. 제갈량이 그렇게 이름 나도 자기 안들이 거스해서 잘나서 그제 제갈량이 이름이 났지. 자기 안들이 시긴 대로 하기 때미(7-16 박부인과 임경업 장군)

제갈량은 중국 삼한시대 촉한의 정치가로 유비를 도와 촉한을 세운 인물이며 자주 초인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각편에서 제갈량은 무능한 존재로 이야기된다. 산가지를 놓지 못해 찢찢매는 제갈량에 비해 제갈량 부인은 발로 산가지를 놓고, 제갈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갈량 부인의 지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며, 부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화는 말한다. 역사의 영웅인 제갈량 위에 그를 있게 한 그의 부인 ‘황씨’가 있는 것이다.

곽재우는 ‘홍의장군’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며 역사와 설화 속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다. 그러나 설화전승집단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 의병을 모으고 전쟁에 대비하여 마을을 보호한 것은 그의 부인이었으며, 곽재우의 부인은 전란 이전에 이미 가문에 대비해 마을사람들에게 물 단속을 하게 하고 벼와 면화가 풍년임을 알려주는 등 자신의 능력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여 곽재우보다 더 큰 존경을 받는 인물로 믿어지고 있다.²⁴⁾

맹자의 아내도 남편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황희의 며느리는 천자를 살린 저승포를 지어 구연자가 ‘며느리 영웅’²⁵⁾이라고 평하였으며, 왕씨 며느리는 조선 건국으로 몰살될 위기에 처한 왕씨 가문을 보존하고 옥(玉)씨 시조²⁶⁾가 된다.

역사인물이 등장하는 각편은 범상치 않은 능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남성인물이 있으나 그러한 인물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인물의 가르침이나 도움 덕분이었고, 따라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은 여성인물이었음을 알게 한다. 설화에 역사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그

23) 설화 제목은 ‘3-1 영리한 윤두수 후처’로 되어있지만, 실제 설화의 내용은 윤두수 아버지 후처의 이야기이다.

24) “그 곽재우한테 세배가는 거보담 그 부인한테 먼저 세배하러 가서 그 행 연도를 다 묻더라는 거야. 거 몇 해 안 있어 삼 사 년 그리 내려왔단 말야. 그러니까 곽재우부인 그분은 아주 그 근처에서, 말하자면 이 남양하면 남양 도읍에서 아주 참 인기를 얻게 됐단 말야. … 그분네 들은 인저 무슨 말이라면 인제 좇는 거지.”(1-5 곽재우 부인의 슬기)

25) 우리 천자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저승포 아니면 구할 수 없어서 그래 저승포를 짚습니다. 그 며느리 영웅이래. 그래서 그 적새는 그 며느리로 불불불불 분다. 불고. 인제 나라서 자꾸 녹이 내리온다.(7-6 타파리 며느리)

26) 마침 그때는 어느 땐고니 왕씨가 인자 전부 이씨한테. 이성계한테 물려가지고서는, 인자 이성계가 등극하는 판이라, 그러서 왕씨들을 전부 한쪽으서부터 인제 뺐이나. 음, 토벌을 하는 판여. … “지가 가야 어떻게 모면할 수가 있다.”고. 그서 메누리를 보냈어. … 이성계가가 가만히 본겔 자기가 참. 그 배고파서 기진할 적으 죽게 생겼는디 그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자기를 살린 은인이라 그져여. … “그 집안은 헐 수 없다. 그런게 임금 왕(王)자 옆으다 점 하나를 더 찍어라. 그러서 옥(玉)가를 맨 들어라. 그러머는 그 집이는 인자 그 뒤편을 헐 것이다.” 그러서 참, 그 메누리 때밀로 그집은 그때 당시에 거시기를 히드라, 그리고서는 그 옥씨가. (말을 바꿔서) 옥가가 뒤편이 시조가 그때 생겨났다.(5-4 왕씨 며느리)

인물이 실제했다는 이유로 이야기에 사실성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 이 이야기가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 구연자나 청중 모두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야기된 역사로서의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마련해주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설화전승집단은 세상의 모든 남성영웅 뒤에는 언제나 그보다 더 뛰어난 여성인물이 있고, 이러한 여성 인물의 활약 덕분에 남성인물이 영웅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²⁷⁾ 역사의 전면에는 남성인물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한 능력자인 여성인물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설화전승 집단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구비 역사적 진실이다.

3) 여성인물의 외적 결함에 대한 인식 태도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여성인물의 외적 결함은 이 설화의 원형화소로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²⁸⁾ ‘박색’이라는 모티프를 근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이 설화의 변이형으로 나타난다. 여성인물의 결함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가장 주목되는 화소는 천하 박색이었던 여주인공이 얼굴의 허물(금사망)을 벗고 미인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위 미인변신 모티프이다. 미인변신 모티프는 여성영웅소설 <박씨전>의 서사전개에서도 주요한 모티프로 소설과 설화의 장르교섭 및 에피소드의 수수관계를 논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설화의 경우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하여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살아남아 전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자극적이며 신이한 모티프이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나 <박씨전>에서 그러한 모티프를 꼽으라고 하면 천하박색이 절세미인이 된다는 판타지, 단연 변신 모티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에 나와 있는 얘기(설화자료 6, 16, 31, 32, 35, 36, 37)²⁹⁾라고 전거를 미리 밝히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변신 모티프가 종속화소로 뒤따르는 경향을 보인다.³⁰⁾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상을 조금 달리한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설화에서도 문제의 발단은 여성인물이 못생겼기 때문인데, 설화에서는 변신 모티프 없이 갈등상황과 문제상황이 제거되는 각편들이 다수 존재한다.(설화자료 1, 2, 3, 4, 5, 7, 8, 9, 10, 11, 13, 14, 17, 18, 19, 20, 23, 25, 30, 31, 33, 37) 소설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소설의 서사과정을 떠올리며 의식적으로 설화를 구연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미인변신 모티프가 필수사항이 아닌 것이다.

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아름다운 외모는 마치 ‘여성스러움’ 또는 ‘여성성’의 다른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유

27) 그러니까 장개성이 같은 영웅도 송명이 같은 유연현 여자를 만났기 땀이 영웅이지. 그래가지고서 그 여자한테 공부를 하고 사술을 배웠다 그말여. 모든 술을 배워가지고서 세상이 그러거든. ...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그런 여유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공명살이를 했다는 전설이 있죠.(6-4 제갈공명의 부인)

28) 변이유형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화소들은 설화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화소이자, 설화의 본디 모습을 지탱하고 유형적 차원의 동질성을 확보해 주는 구실을 한다. 이 화소는 원유형에서부터 변이유형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나타나므로, ‘원형화소’라 일컬을 수 있다.(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111쪽.)

29) 설화자료 35, 36, 37은 한 명의 구연자가 <박씨전>을 세 개의 삽화로 나누어 이야기한 것이다.

30) “박씨전에 있는 소리”라고 말한 뒤 곧바로 다음 설화를 들려 주었다.(6-9 박씨전)라든지, “아래 아주 짹막하고 간단한 거 하나 하자.”고 하면서 시작하려 했다. 조사자가 긴 얘기를 하라고 권하자, “진 거 할라만 책 이얘길 해야 되는 걸.”하고 머뭇거리다가 이것을 구연했다.(7-16 박부인과 임경업 장군)라고 구연상황을 기술한 부분을 통해 소설을 설화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효한 것 같다. 설화에서 여성인물의 추한 외모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괴물’, ‘덩거리’ 등의 말로 비하되고 가까이 있는 것도 꺼려져 여성인물을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에 격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여성인물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내면의 본질, 아름다움을 드러내자 여성인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다.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간다.”카이 신부가, “선물하나 줄테니 가져가라.”한다. 반질 당새기(바느질 바구니)를 내려디 버선을 집는데 일란척격이라. 참 잘 집어줘. 그래 그걸 보이 떠나기가 싫어.(7-4 정다산의 못난 아내)
그래도 그 천하박색 그 부인이 그 윤대감 수발이라 그러나요? 그 저기 뭐 버선 뭐 의관. 망건 같은 것. 바지저고리 이런 걸 어떻게 잘 만들고 몸에 착착 맞게 잘 만들어서 거기에 정이 붙어서 윤대감이 안방 출입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는 거죠.(3-1 영리한 윤두수 후처)

소설에서는 못생긴 인물이 얼굴에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어 인물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것으로 표현된다.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된 박씨부인에게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용서를 빌고 이로써 박씨부인과 인물들 간에 갈등요소는 완전히 제거된다. 미인이 된 이 후에야 여성인물과 화합을 이루는 것은 여성인물을 대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본질보다는 외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완전한 화해라 볼 수 없다. ‘진정한 여성’에 관한 존재론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이 본질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설화에서는 굳이 추에서 미로 회복하거나 전에 없던 미가 돌연 드러나는 일 없이도 인물이 가진 자체의 자질과 성품으로 인정을 받고 화해를 이룬다. 설화 구연자는 ‘엷은 구여어(구멍에) 복들었다.’³²⁾는 속담이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인간적 진리를 이야기에 담아 전하기도 한다. 여성인물의 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못난 얼굴이라도 인물이 지닌 능력과 성품에 가치를 두고 그 자체로 판단하고 인정하는 설화전승집단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해소야말로 현실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여성영웅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남성영웅과 다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주로 가정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로 인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인물의 활약상이 남성영웅에 비해 웅장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듯 보이지만, 여성인물의 문제해결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들 전체 삶을 대변하며 가족질서를 재창조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물리적인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만이 영웅이 아닌 부당한 현실과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맞서 싸우는 것도 영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의 주인공도 영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 김주현, 「이미지와 표상으로서 여성성의 형성과 재구 -심미적 범주로서의 성차와 여성 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6쪽.

32) 7-9 못생긴 각시의 지혜와 솜씨

설화 속 여성인물에게 닥친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여성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여성 영웅서사에서 인물의 영웅적 능력의 발휘만큼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자아를 실현해 나아가는 내용이 중요³³⁾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인으로 바뀐 못난 여자’ 설화에서 여성이 겪는 고난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에서 소외된 약자로서의 고난과, 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내적 자질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인식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전란이 닥쳐 가족과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됨으로 처하게 된 고난이 그것이다. 여성인물의 활약상을 보이기 위해 제시된 고난 즉 문제상황은 전통사회 여성의 현실적 삶과 맞물리면서 중층적 의미구조를 띠게 되고 여성인물은 여성의 대변자로서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앞으로 다른 장르, 다른 유형의 설화를 통해 여성영웅서사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여성영웅의 실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33) 김용기, 「여성영웅의 서사적 전통과 고소설에서의 수용과 변모」, 『우리문학연구』 32집, 우리문학회, 2011.

중앙어문학회 제26차 정기학술발표회

현대문학

사회: 오혜진

정치 경제적 근대화와 소외의 양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 작품을
대상으로 /
양윤모 (극동대)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양상: 「관부연락선」과 「변명」을 중심으로 /
손혜숙 (남서울대)

애도와 물신 사이에서: 『조선영화』를 중심으로 본 1990년대 북한영화 /
김선아 (단국대)

정치·경제적 근대화와 소외의 양상: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 작품을 대상으로

양윤모 (극동대학교)

목차

1. 서론
2. 소외의 개념과 현상
3. 정치 및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과 소외 양상
4. 자본주의 체제 진입의 실패와 소외 양상
5. 자기세계의 확립과 소외 양상
6. 결론

1. 서론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치적 성취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경제 개발이 시작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농업 중심체제에서 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4.19 혁명은 독재 정권을 부정하고 민주 정부 수립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 근대 정치 체제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근대적 정치 체제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업화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은 재벌 기업들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되고 공고화되어 전근대적 경제 체제가 근대적 경제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소설은 자유에 대한 억압 상황에서 자유의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개인의 자각과 소외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4.19 혁명을 통해 고양된 의식의 각성은 한국 사회가 후진적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재적 동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문학적으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각성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자아, 개인에 대한 각성은 결국 조직, 사회, 국가 속에서 개인의 왜소함을 발견하게 되고 개인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개인의 소외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 들어 고양된 개인의 의식이 초래한 소외의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1960년대 소설가 중 당대의 문제를 적확하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 작가로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지식인의 정치적 소외, 자본주의 체제 진입의 실패로 인한 소외,

자기 세계를 통한 개인의 소외를 보여주고 있다.

2. 소외의 개념과 현상

소외(alienation)의 라틴어 어원은 alienation라는 명사로 이는 ‘남의 것으로 만든다’, ‘제거한다’의 뜻이 있는 동사 alienare에서 유래했다. 또한 alienare는 ‘남에게 속한다’라는 뜻을 가진 alienus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alius는 ‘남의’라는 형용사나 ‘다른 것’이라는 명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¹⁾ 이러한 어원에서 나온 소외라는 용어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양시키는 것, 인간의 지각과 감각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정신적 불안상태, 인간간의 따뜻한 관계가 차가운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재는 위의 의미 중에서 인간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아가 타인에 의해 배척되는 상태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후 소외의 개념은 헤겔, 포이에르바하, 마르크스, 프롬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소외와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헤겔과 포이에르바하의 이론을 통해, 후자는 마르크스와 프롬을 통해 이론이 개진되었다.

중세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신을 부정한 근대의 인간은 여전히 결국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자연현상이나 사회 등 불가해한 현실 앞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를 헤겔은 절대정신으로부터 따돌려진 개인의 의식을 소외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하는 오히려 종교가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따돌려진 것이라 말한다. 결국 신으로부터 독립한 근대의 인간에게 소외는 필연적인 것이 되고 만다.

마르크스는 소외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소외된 노동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다. 그는 근대사회에서의 노동은 노동자의 외부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인간의 자발성과 자유를 박탈하여 그의 생산물이나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²⁾ 프롬은 ‘자본주의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문제는 소외현상이다’라고 단정하고 ‘소외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접촉이 끊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도 접촉이 단절되어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며 소외를 ‘자기소외’로 설명하였다.³⁾ 생산수단, 생산물로부터 경험하는 소외와 자기소외는 결국 자본주의를 축으로 하는 근대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 개념이 아니더라도 삶 자체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외 현상은 현대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신과의 관계,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소외 현상이 확산되고 보편화되었다는 점에서 소외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존재조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아의 문제와 소외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1) 한완상,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김주연 편, 『현대문화와 소외』, (현대사상사, 1976), pp. 71-72.

2)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pp. 66-67.

3) 신오현, 「소외이론의 구조와 유형」,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p. 37-38.

3. 정치 및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과 소외 양상

최인훈의 『회색인』에서 독고준은 유년시절 해방이후 남북한 정권 수립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공산정권 하에서 아버지의 월남으로 학교에서도 반동분자로 몰려 자아비판을 강요받는 등 지배 체제에 순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독고준의 학교 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책 속으로의 망명’을 선택한다. 책읽기는 의식 속에서 세계를 소유하게 해주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독고준에게 책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허구로 대체하여 상상 속에서나마 거꾸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책으로의 망명’은 자아를 패배시키는 외계에 대한 무관심과 연계되며 외부세계에서 좌절된 욕망의 리비도를 내면의 허구로 되돌림으로써 자신의 소외된 상을 재통합하려는 주체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패망 이후 북한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독고준의 가족은 가장을 상실한 채 남한의 대북 방송을 몰래 듣는 ‘망명 가족’의 처지가 되었다. 이는 부친의 월남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상황이지만 망명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지배 체제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독고준이 남한의 국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독고준은 북으로 진격하여 W시를 통과하는 남한의 국군을 접한 후 이질감에 다시 한번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그 속에 속할 수 없음을 느낀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신념 및 태도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원초적 집단(동료 집단, 가족 집단)의 신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사례⁵⁾로 볼 수 있다. 독고준이 정신적 망명 상태라 하더라도 그가 공산 정권 치하에서 교육받고 있었다는 사실, 여전히 소년단 지도원 선생이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집단신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가 비록 정신적 망명 상태였지만 남한 군인들이 농부에게 사과를 던지며 놀리는 행위에 실망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유년시절에 겪었던 정체성의 상실에서 기인한 독고준의 소외는 남한에 와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독고준과 그의 친구들은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일행 중 한명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연도에서 손뼉을 치는 것과 꼭 반대의 일을 하고 있던 말이야. 우리는, 지금.....”이라는 말로 독립 지사의 묘소를 참배하는 행위가 반정부 행위로 여겨져 스릴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현실의 정치 상황인 이승만 정권의 정체성과 괴리되기 때문이며 이들은 반대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혁명. 피. 역사. 정치. 자유. 그런 낱말들이 그들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장미꽃. 저녁 노을. 사랑. 모험. 등산 등과 같은 말과 얼마나 다른지는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무거운 낱말들--- 혁명. 피. 역사. 정치. 자유와 같은 사실의 책임을 질 만한 실제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었다. ‘사실’에 영향을 주고, ‘뉘’를 움직이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제 그림자를 쫓고 제 목소리가 되돌아온 메아리를 되짚는 수인(수인)의 언어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현실은 더욱 멀어 보였다. 언어와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를 뛰어 넘는 길은 막혀 있었다.(『회색인』, p.83.)⁶⁾

4) 김영찬, 「최인훈 소설의 기원과 존재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5, 2002), pp. 304-305.

5) 오세철, 『문화와 사회심리학 이론』, (박영사, 1979), pp. 232-247.

6) 최인훈,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1977, 재판, 1991) 이후 작품명과 인용면수만을 밝힌다.

현실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식했지만 스스로는 그 대상에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는 독고준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이라 생각한다. 독고준은 자신을 언어의 세계 안으로만 가둬버린 정치적 현실에 대해 분노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⁷⁾ 독고준을 포함한 그들은 현실의 정치 상황과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로 인한 혼란은 현실을 변화시키려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위축되고 소외될 뿐이다.

독고준의 친구 김학은 동인지 『간헐 세대』에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 후 정권을 인수했다면 이승만 정권 수립 과정에서 초래된 정치적 혼란과 친일파 단죄 및 민족사의 정통성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발표한다.⁸⁾ 그러나 김학은 이 글의 말미에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학생’인 자신만을 발견할 뿐이다. 결국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 및 상실은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의 괴리로 이어져 개인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만다. 하지만 김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혁명을 꿈꾸지만 독고준은 그 방법마저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싫어. 이것 봐. 혁명은 새 신화를 실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에 민주주의를 대신할 새 신화란 걸 생각할 수 있나? 없단 말야. 그렇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권 교체, 즉 사람을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난 새 신앙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교체는 위험스런 일이라고 봐. 이 자네 글에 있는 상황과는 달라. 자네 말처럼 상해의 권위를 장한다는 신화적인 후광이 있는 인물이나 집단인 경우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 어디 그런 인물이나 집단이 남아있나? 다 잡아먹었거나 멍이 들고 말지 않았나? 그렇다고 난 현상을 바꾸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야.”(『회색인』, pp. 292-293.)

결국 독고준은 현재의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변화시키는 혁명파도 거리를 둔다. 독고준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부정할 때에만 그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논리로 김학의 혁명이론을 거부하면서 양쪽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외를 넘어 고립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고준이 빠져들었던 책의 세계는 그에게 세상에 대한 회의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독만을 주었으며, 현실에서도 그는 세상과 화해하거나 투쟁하는 방법 모두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물러나는 관조의 모습을 보여준다.⁹⁾ 하지만 이러한 관조 또한 스스로 선택한 소외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부친의 사망 이후 남한에서 혼자가 된 독고준은 스스로 한국적 근대인의 유형을 발견한다. 서구에서 근대의 인간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획득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조상들과의 관계로 설정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으로 형상화된다. ‘사람이 그 속에서 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 가족이’며, 죽은 이후에도 가족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가문이 어땡고’라는 말로 가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의 삶을 지배해왔다. ‘그런 ‘가족’이 독고준에게는 제일 아득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족보라는 무형의 틀 속에서 자신을 위치지으려는 한국의 전통적 사유체계는 근대 인간의 독립과 자유를 가로막는 방해물인 것이다. 월남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된 독고준은 가족이 없는 상태에 대해 오히려 근대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인식한다. 결국 독고준은 가족관계의

7) 서은주, 「환멸에 대한 관념적 글쓰기」,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p. 390.

8)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미국과 소련 군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자격으로 환국한 결과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었고, 이들을 배제한 채 남북한에는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p.208. 및 허재일·정차근, 『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 (평민사, 1998), p. 64. 참고)

9) 이호규, 『1960년대 소설 연구』, (새미, 2001), p. 132.

상실 속에서 소외를 느끼고 스스로 근대인이라 자부한다.

혼자라는 이상한 생각이 감동을 주었다. 혼자다. 가족이 없는 나는 자유다.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다, 라고 예민한 서양의 선각자들은 느꼈다. 그들에게는 그 말이 옳다. 우리는 이렇다. 가족이 없다, 그러므로 자유다. 이것이 우리들의 근대 선언이다. 우리들의 신은 구약과 신약 속에 아니고 족보 속에 있어왔다. 우리들의 우상은 십자가에 박혀 스스로 죄를 짊어진 한 인간이 아니고, 항렬과 돌림자로 새겨진 족보였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신은 '집안'이요 '가문'이었다.(『회색인』, p. 110.)

서양의 인간이 신의 절대성을 부정한 이후 스스로 나약한 인간임을 확인하면서 개인의 존재를 인식한 결과 소외를 경험하였다면, 한국에서는 가문으로 확대되는 가족이라는 집단 이데올로기로 부터 벗어나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근대적 인간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단에서 벗어난 개인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대인의 비극이 시작된다 하겠다. 가족의 상실 이후 경험한 소외 상황에서 스스로 근대인이라 선언하는 독고준을 통해 스스로 소외를 선택함으로써 근대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대적 개인에게 소외가 필연적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 자본주의 체제 진입의 실패와 소외 양상

이청준은 전후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전후의 젊은이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다. 지역차별의 문제로 인해 취직이 되지 않기도 하며, 전통적 기예는 천대받고 소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굴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로 취직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통해 사회 체제 진입의 실패로 인한 소외의 양상을 보여준다.

X 지방 출신은 철저히 배격한다는 소문이 있는 M일보사에 지원한 '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입사시험에 응시한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M일보사 기획실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간 후 깨지게 된다. 선배는 특정 지역 출신과 편모슬하의 지원자를 탈락시킨다는 회사의 불문율을 알려주며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접접한 얘기지만 안 될걸로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불문을 같은 게 있지. X 지방 출신과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로 제외되고 있어. 뭐 그런 사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야.”

소문대로였다. 하지만 편모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없으면 취직을 안 해도 좋은 무슨 보장이라도 있답디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순종의 미덕이 없고, 역심(逆心)이 많다더군. 사고를 큼직하게 저지르는 측은 대개 그 쪽이고 한마디로 부리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이청준, 「굴레」, pp. 86-87.)¹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것 보다 오히려 그들이 ‘순종의 미덕’이 없고 ‘사고를 저지’

10) 이청준,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1), pp. 86-87. 이하 작품명과 인용면수만을 밝힌다.

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소외되도록 만들고, 이러한 처사가 오히려 사측이 말하는 역심(逆心)을 품도록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취직에 실패한 젊은이들은 사회 체제에 편입하지 못하고 체제 밖에서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취직을 해서 사회 체제에 진입한다고 해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굴레이기도 하다. 취직을 통해 사회 체제에 진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패기있는 젊은이들을 기존의 질서에 순응시켜 조직의 일부분으로 소외시키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을 갓 나와 철없이 패기에 차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녀석들을 무더기로 끌어다가 콧대를 꺾어 놓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령 면접 시험관 같은 것 말입니다. 이놈들에겐 우선 합격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게 한 다음, 풀이 죽어서 애원하는 눈초리를 하고 제 앞에서 있게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맛을 보여주면 젊은 녀석들 거리에서 철없이 굴지도 않고 세상은 좀더 주무르기가 편하게 될 테지요.....”(『굴레』, p. 93.)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선호하는데, 이는 조직에 속한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조직이 비대화 복잡화 하면서 조직은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관료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관료제 체제에서 조직 속의 인간은 자기에겐 위임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한다. 기계의 부속품처럼 거대한 사회조직 속에서 원자로서의 기능만 할 뿐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은 원자화, 규격화, 상품화 되면서 자기 생활의 심적 불안감과 긴장,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¹¹⁾ 인간이 조직 속에서 주체로서의 존재를 상실 할 때 인간은 소외되고 비인간화 된다.

결국 취직이 안 되어 사회 체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도 소외이지만, 취직하여 사회 체제에 진입해도 소외는 숙명처럼 다가올 뿐이다. 결국 ‘굴레’는 X도 출신과 편모사유가 취직 불가사유의 굴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굴레이기도 한 것이다.

젊은이의 취직이 자본주의 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소외라면, 전통적 기예도 근대화로 표상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줄」, 「과녁」, 「매잡이」 등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기예가 주류 예술로부터 소외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자본주의화라고 할 수 있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 기예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줄광대, 궁사, 매사냥꾼 등은 근대 이전의 전통적 사회 체제에서 신분적으로 높은 대우받지 못했지만 고난도의 수련 과정과 장인이라는 자존심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인 교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다 피해자가 될 뿐’¹²⁾이었다. 이들은 ‘현실과 적응할 수 없는 정신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로인해 급변하는 상업주의나 약삭빠른 실리주의가 무모하게 강하고, 저열한 욕망에 의하여 야비하게 횡행하는 세상에서 좀더 냉정히 사물을 살피면서 조심성 있게 또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선량하면서도 굳은 의지를 안으로 지닌 사람들이며, 또 지나간 시대의 인물들로서 지나간 시대의 고매한 전통적 생활 윤리를 정신주의의 한 규범으로 계승하는 사람들’¹³⁾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빈곤해져 갔고 사회적 지위는 더욱 하

11) 김영모,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pp. 411-412.

12) 김치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편,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p. 97.

13) 신동욱, 「진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 (김치수 외, 『이청준 론』, 삼인행, 1991), pp. 136-137.

락하였다. 또한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정신적 가치마저도 짓밟혀 자존심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줄」의 허노인은 줄광대가 지켜야 할 법도와 미학을 고집하지만 묘기를 통해 관객의 흥분을 유도하여 관객 증가와 수입 증대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압박하는 서커스단장과의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승천하듯 줄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과녁」의 궁사 가족은 궁도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속물적인 지역 유지들의 한갓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가족 중 한명을 사고로 잃게 된다. 「매잡이」의 광서방은 매사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자본주의적 물신주의의 영향을 받아 전과 변한 것을 느끼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 잃어버린 매를 찾는 과정에서 그는 세태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매잡이가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다 매와 함께 굶고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결국 이들 기예의 소유자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서 천대받으며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전승이 중단되어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¹⁴⁾

5. 자기세계의 확립과 소외 양상

김승옥은 글쓰기의 중심을 자아 의식에 두는 창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그들 세대가 겪었던 희망과 절망, 가능성과 좌절, 자부심과 패배 의식을 동시에 체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19세대인 김승옥은 현실 속에서 겪은 좌절을 문학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현실을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개별 자아의 내면 세계를 절대화하는 창작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시적 삶의 양식 속에서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없는 개인은 자기 세계를 찾아 내면을 탐구하지만 이는 소외를 더욱 공고히 할 따름이다.

김승옥의 소설은 도시로 대표되는 근대적 삶의 양식과 도시에 입성했지만 도시적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 「역사(力士)」, 「차나 한잔」, 「들놀이」 등이다.

「역사(力士)」는 양옥집으로 대표되는 도시적 삶의 양식과 창신동의 판잣집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변두리 인생과의 대비를 보여준다. 연극을 전공하는 가난한 대학생인 ‘나’는 타락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친구의 주선으로 양옥집으로 이사 오게 된다. 하지만 ‘1주일이 방 하나와 친밀해 지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나 역시 생각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느낌 속에 창신동 하숙방을 자신의 방으로 생각하는 ‘기억의 단절’을 경험한다.

‘나’가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얀 양옥집의 삶은 모든 생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침 기상시간, 출근 및 등교, 가사일, 저녁 식사, 취침 시간 등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이 집 식구들의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규칙적 생활은 근대적 합리성을 표방하지만 가장인 할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가족 구성원은 아무 저항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유교 이념의 현대적 변형, 즉, 유교적 위계질서와 자본주의의 개인 윤리가 이상야릇하게 접합된 것’¹⁵⁾일 뿐이다.

14) 졸고, 「근대화와 전통적 기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2002), p. 335.

15)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1985), p. 181.

‘나’가 양옥집의 생활을 낯설게 여기고 혐오하게 된 까닭은 비합리성으로 점철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할 수 있었던 창신동의 판잣집에서 하숙을 하던 시절에 만난 ‘서씨’라는 사람 때문이다. 힘이 장사인 서씨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역사의 능력을 타고 났지만 근대적 삶의 양식에서 그의 능력은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한갓 완력에 불과했다. 서씨는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부하고 비밀리에 동대문 성곽의 돌덩어리 위치를 바꿔놓는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확인한다.

서씨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한 의미의 성실이 아닌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몽상적 의미에서의 성실’(『역사』, p. 84)일 뿐이다. 서씨의 행위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만의 성실일 뿐이며, 비밀스런 행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데 현실의 강고함이 있다. 서씨의 경우처럼 육체적인 힘은 더 이상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똑같은 힘이지만 그 사회적 의미는 달라졌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 자본과 권력을 확대재생산 할 수 있는 기능과 지식이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¹⁶⁾

서씨의 존재는 창신동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양옥집의 ‘빈 껍데기의 생활’에 대한 ‘혐오증’으로 바꾸어 주지만, 창신동 역시 ‘나’가 전적으로 긍정하는 공간은 아니다. ‘나’는 서씨를 긍정하지만 동경하지는 않는다. ‘나’는 창신동에 대해 공포와 애정을 동시에 갖고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 창신동과 양옥집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나’는 결국 ‘창신동에 대한 동경을 외면함과 동시에 양옥에 대한 혐오를 수락하는 자기 기만과 소외’¹⁷⁾를 경험한다.

도시적 삶이 단순히 속악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기만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적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악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편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세상이 속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에서 근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속악할 뿐 아니라 이미 강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 체제에 끼어 들어가기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비극을 겪게 된다. 『차나 한잔』, 『들놀이』 등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구체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차나 한잔』의 만화가는 신문 연재만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해고당한다. 신문사측에서는 직접 해고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하여 만화가의 만화를 신문에 실어주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연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즉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개인을 쫓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조직에서 빠져나갔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에 의해 평가된 능력의 부족은 도태를 의미하고 이는 곧 조직으로부터의 소외를 뜻한다.

또한 도시 생활의 어법은 많은 숨김과 속임을 포함한다. ‘도회의 어법’에 진정성은 없다. 비록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심을 면제시켜주려는 배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완곡 어법은 너무나 속편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안겨줄 뿐이다.¹⁸⁾ ‘차나 한잔 하자’는 문화부장의 말은 곧 ‘당신은

16) 이호규, 『1960년대 소설 연구』, (새미, 2001), pp. 181-182.

17) 김태빈, 『김승옥 소설의 소외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교학원, 2002), p. 34.

18) 유종호, 『슬픈 도회의 어법』, (『유종호 전집 5 :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p. 190.

해고'라는 말의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들놀이」는 산업화에 따른 조직사회에서 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에 의해 겪게 되는 소외와 이로 인한 자기 소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권위적인 사장의 들놀이 제안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그만 회사에서 들놀이 초대장을 받지 못한 말단 회사원 맹상진의 고민은 사회적 약자에게 명령의 거부라는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받지 못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당사자로서 그 모임에 가야하는 것인지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안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사회적 약자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경우에도 개인은 조직에 의해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맹상진의 고민은 단순히 들놀이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데 있다.

맹군은 이군의 침묵이 아무래도 겁이 났고 점점 이군이 마땅하지 못했다. 아마 자기 아내와 말다툼이라도 한 모양인데 집안 싸움을 친구에게까지 옮길 이유는 없지 않은가. 딱, 딱, 딱, 딱, 딱..... 맹군이 다섯 점을 이긴 첫판을 끝내고 둘째 판을 두고 있을 때 이군의 침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맹군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사 사람들, 지금쯤 우이동에 가 있겠지?”
라고 이군이 말을 꺼냈던 것이다.
“가 있겠지. 사장의 훈화 같은 연설이 한바탕 있었겠고....”
아아, 이군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부터 자기가 이군의 침묵을 겁내고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들놀이」, pp. 239-240.)¹⁹⁾

들놀이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맹상진은 이 사실을 직장 동료 이군에게 말하고 조언을 구한다. 이군은 맹상진과 함께 야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야유회가 열리는 일요일에 같이 만나 바둑을 두지만 그들이 불참한 들놀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회사라는 조직이나 체제의 횡포에 두려워하면서도 그 횡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 다만 그곳에 편입하여 안주하고 싶어하지만 그 기회조차도 이들에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들놀이 아아 귀찮은 들놀이.....’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조직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불참하기로 한 들놀이에 대해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심리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귀찮은 들놀이’라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자기소외²⁰⁾의 양상을 보여준다.

도시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좌절과 소외를 경험한 이들은 결국 자기 세계를 통해 이를 타개해 가려 하지만 결국 고립된 개인의 소외를 경험할 뿐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처럼 소외 현상을 즐기거나 피할 뿐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은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 관계가 주로 언어를 통해 매개 된다는 점에서 ‘나’와 ‘안’의 대화는 문제적이다. ‘나’와 ‘안’은 자기소개를 하지만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김형, 안형, 아저씨 같이 익명으로 등장한다. 이는 대중사회의 인간은 익명적 존재이며, 익명의 인간이란 교체 가능한 인간

19)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1』(문학동네, 1995) 이후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을 밝힌다.

20) 자기소외란 ‘어떤 존재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 외화하고, 그것을 타자로 삼아 자기와 대립하는 남처럼 서먹서먹하며, 자기와 거리가 멀고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철학대사전』, 학원사, 1963, p. 921.)

임을 의미한다.²¹⁾ 결국 교체 가능하다는 점은 사회 조직에서 부품으로 기능할 뿐이며, 부품화된 인간은 결국 조직에서 소외될 뿐이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기 세계 속으로 도피하려한다. 결국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세계 속으로 도피함으로서 소외를 경험한다. 말장난에 가까운 인물들의 무의미한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소통의 부재 상황과 개인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 시장 앞에서 줄지어 선 가로등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 그리고 화신 백화점 옥 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 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안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서른두 명 있는데 그 중 여자가 열일곱 명이고 어린애는 다섯 명, 젊은이는 스물한 명, 노인이 여섯 명입니다.”

“그건 언제 일이지요?”

“오늘 저녁 일곱 시 십오 분 현재입니다.”

(중략 : 인용자)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 형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서울 1964년 겨울』, pp. 207-208.)

‘나’와 ‘안’이 나누는 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화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독백의 교체일 뿐이다. 그들이 초점 없는 요설은 그들의 권태와 무위의 시간 소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연한 익명의 부딪침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도회적 삶의 국면을 드러낸다.²²⁾ 그들의 대화에서 중심 화제는 서로 상대방이 모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완전한 개인의 소유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대화의 형식을 빌린 독백을 통해 자기세계로 고립되는 소외의 방법일 뿐이다. 이들에게 대화는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세계의 구축과 이를 통해 스스로 소외를 즐기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아내가 사망한 월부 책장사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관에서 각자 방을 잡기로 한다. 이들에게 월부 책장사의 합류는 오직 돈 때문이었다. 아내의 시신을 판 돈을 다 쓰려고 작정한 사내는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이라는 말과 함께 합류하게 된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폐에 의한 교환의 관계’²³⁾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월부 책장사의 자살을 방치함으로서 이들은 ‘혼자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결국은 혼자로 남아 방황하는 소외된 인물들’²⁴⁾이라는 개인주의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안’의 근대적 이성중심주의 사상도 개인 중심주의와 개인의 소외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1)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2002), p. 358

22) 유종호, 앞의 책, p. 186.

23) 정과리, 앞의 책, p. 179.

24) 김명석, 『일상성의 경험과 탈출의 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연구』, 1998), p. 363.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인훈, 이청준, 김승옥의 작품들을 통해 소외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정치적 근대화와 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된 1960년대 작품들 중 최인훈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정체성의 괴리 또는 상실로 인해 소외를 경험한다. 이들에게 정치적 정체성의 상실은 정신적 망명을 의미할 정도로 소외감은 크게 나타난다. 이청준은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조직의 체계에 편입을 하든지 편입하지 못하든지 간에 인간은 조직의 일원으로 소외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전통적 기예가 소외되고 소멸되는 양상도 보여준다. 김승옥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조직 사회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소외의 양상이 개인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곳에 빠져 들어가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소외 상황을 즐긴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 김명석. 「일상성의 경험과 탈출의 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편, 『1960년대 문학연구』, 1998.
-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박사논문, 연세대. 2000.
- 김민수. 『1960년대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박사논문, 중앙대. 1999
- 김영모. 1999.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 김영찬. 2002. 「최인훈 소설의 기원과 존재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5』(한국근대문학회). 2002.
- 김주연 편. 『현대문화와 소외』, 현대사상사, 1976.
- 김치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권오룡 편,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 김태빈. 『김승옥 소설의 소외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교학원. 2002
- 서은주. 「환멸에 대한 관념적 글쓰기」,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김치수 외, 『이청준 론』 삼인행. 1991.
-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 양윤모. 『최인훈 소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 1999.
- 양윤모. 2002. 「근대화와 전통적 기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5』(한국근대문학회), 2002.
- 양윤모. 『정체성 탐구와 소설의 형식』 박이정. 2003.
- 오세철. 『문화와 사회심리학 이론』 박영사. 1979.
- 유종호. 『유종호 전집 5 : 문학의 즐거움』, 민음사. 1995.
- 이승준. 『김승옥론』, 석사논문, 고려대 . 1996.
-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 2002.

- 이호규. 『1960년대 소설 연구』 새미. 2001.
- 정과리. 『문학, 존재의 변증법』 문학과 지성사. 1985.
- 정문길 편. 『소외』 문학과지성사. 1984.
-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 파펜하임, F. 『현대인의 소외』(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 허재일·정차근. 『해방전후사의 바른 이해』 평민사. 1991.
- Schacht, R. 『*Alienation*』, Doubleday & Company, Inc. 1971.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양상: 「관부연락선」과 「변명」을 중심으로

손혜숙 (남서울대학교)

목차

1. 이병주 소설과 기억
2. 사물의 기억을 통한 망각의 복원
3. 망자추모와 애도, 역사 다시쓰기
4. 결론

1. 이병주 소설과 기억

많은 소설들이 기억과 착종되어 있지만 이병주 소설에서 ‘기억’은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병주 소설들은 기억을 근본 뿌리로 삼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를 재구축하는 핵심 키워드로 작용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병주는 역사의 고깃길 마다에서 된서리를 맞으며 직접 체험을 통해 역사에 대해 인지하고 통찰했다.

그는 식민지 시기에는 학병으로 동원되었으며 해방이후 죄의식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회색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해방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이병주가 재직하고 있었던 학내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까지 좌/우로 분열되어 대립구도가 첨예화되었다. 당시 이병주는 ‘가치관이 혼란하고 있어 무엇이 선(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正)인지 자신을 가지고 보편적 상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고수한 채 교사로서 열세에 물리는 학생들을 보듬었다. 그가 중립적 입장을 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학병에 동원되었다는 과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수기나 소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학병체험은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의식을 부여했고,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뉘그러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또한 독서 취미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건디어 냈던 그는 이미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더욱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 양날의 칼이 되어 그를 역사의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전쟁 당시 사상적인 이유로 두 번의 체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빨치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병주는 이때의 생각과 감정을 전쟁이후 두 편의 논설로 발표하는데 이 논설 때문에 용공분자로 몰려 또다시 억울한

희생자가 된다.

이처럼 시대의 질곡을 몸으로 겪은 이병주는 출감 당시 “소설을 통하여 우리 현대사의 전통과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또는 할 수 없는 그 함정들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일념을 가졌다”¹⁾면서 논설쓰기에서 소설 쓰기로 선회할 뜻을 밝힌다. 이러한 뜻은 그의 파란만장한 역사 체험에 대한 사적 기억의 재생을 통해, 공적인 역사에 의해 은폐되고 망각되었던 사실의 복원을 통해 드러난다. 체험은 과거의 일이고, 과거는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재생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간극과 분리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는 선택과 배제라는 이중의 활동이 존재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주관적이고 현재의 관심사에 의해 형성되기에 항상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곧 기억이란 과거 요소들의 특정한 구성이고, 그 구성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은 망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병주 소설에서 사적인 기억은 선택과 조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를 기록하고 재현하는 수단이 된다. 동시에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희생자들에 대한 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주변의 현실 상황들에 대한 탐색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공적인 역사의 선택과 배제를 뛰어넘어 재구성된 이병주의 역사인식은 그것이 지닌 현실의 적극적 의미를 탐색하고, 나아가 당대를 역사로 기록하는 토대가 된다.

일반적인 기억이 집단적 성향이 강한데 비해 문학에서의 기억은 대개 개인의 특수한 체험을 근간으로 한다.²⁾ 그리고 문학에서의 서사양식은 현재의 시점에서 망각된 과거를 소환하여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는 창조적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병주는 소설에서 자신의 역사체험 기억을 소환해 내어 집단 기억에 의해 정전화된 공적인 역사와 원체험에 근거한 사적인 기억 사이의 틈을 보여준다. 나아가 역사의 행간에 묻힌 인물들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여 공적인 역사가 망각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한다. 이렇듯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통해 배제되고 탈각된 역사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이병주의 ‘역사의식’은 과거의 해명,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간의 연관 속에서 나타난다. 이때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동시에 역사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에 대한 공적인 담론의 허구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병주는 역사를 정치 지도자나 영웅 등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술된 공적인 서사양식으로 본다. 그리고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침묵된 기억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다시 기술한다. 때문에 그의 소설에서 기억은 과거를 신성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반성 내지는 트라우마 극복, 또는 망각된 기억의 복원 및 잊혀진 자들에 대한 애도를 향하고 있다. 이처럼 이병주 소설에서 역사와 기억은 일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장기억(역사)은 다양한 기능기억(기억)의 콘텍스트로서 그것의 외적 지평을 형성하고, 그런 지평에서부터 과거에 대한 협소한 관점들이 상대화되고 비판되며 변화된다.³⁾ 때문에 기능기억과 저장기억, 중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해 그의 소설을 독해하는

1) 『국제신문』, 2006. 4. 23

2) 발터 벤야민은 서사 양식이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예술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야기체 형식이 경험의 소통이라 지칭하면서 이때 듣는 이에게 중요한 점은 듣은 이야기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며, 이를 기억이라 규정한다. (발터 벤야민, 『문예비평과 이론』, 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7, 100~132쪽 참조)

3)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이란 용어로 문학 작품을 비롯한 각종 텍스트, 문서보관소, 기념물 및 기념 장소 등 다양한 문화적 매체를 통해 기억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형식을 규명한다. 그리고 집단기억을 역사와 대치시키고 있는 니체나 알박스, 노라와는 달리 활성화 기억과 비활성적 기억의 관계를 회상기억의 두 가지 상보적 양태로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도 기억의 큰 틀 안으로 통합시킨다. 여기서 활성화 기억과 비활성적 기억은 기억과 역사를 양극으로 보느냐 동일시하느냐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준거틀로 작용하는데 그녀는 활성화 기억을 ‘기능기억’이라 명명하고 비활성적 기억을 ‘저장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를 기억의 큰 틀 안으로 통합시켜 이병주 소설의 역사서술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물의 기억을 통한 망각의 복원

「關釜連絡船」⁴⁾은 일본 유학생인 유태림이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관부연락선’을 조사하면서 기록한 수기와 해설자 이선생이 유태림의 삶을 서술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유태림의 수기가 관부연락선을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면 해설자 이선생의 서사는 ‘유태림’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고 그를 추모하는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흔히 구체적인 영상이나 상징물, 이미지들은 기억의 촉매제로 작용하며 이것들은 각각 내러티브를 담지하고 있다. 소설 「關釜連絡船」에서 ‘관부연락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많은 역사와 의미들이 함의된 상징물이다. 즉 그것은 1905년을 전후한 한·일 정세 및 당대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비유이다.⁵⁾ 여기서 비유는 잔여물의 성격, 곧 조명되어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망각이나 억압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저장 기억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이것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다락의 잡동사니처럼 의식의 그늘에서 견고해진다.⁶⁾

榮光과 屈辱의 通路

관부연락선이 바로 이런 명칭으로 처음에 취항하게 된 것은 1905년 9월 25일이다. 최초의 연락선의 이름은 이키마루(壹岐丸), 1천 6백 92톤의 신조선이다. 이어 11월 5일 1천 6백 91톤짜리 쓰시마마루(對馬丸)가 취항하고 매일 1회 부산, 시모노세키 양지에서 출항하게 되었다.

관부연락선이 처음으로 취항하게 된 1905년 전후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연락선의 영광적 의미와 굴욕적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9월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을 맺고 세계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권(優越權)을 인정받았다. (중략)

기억’이라 명명한다. 이때 ‘기능기억’은 집단 관련성, 선택, 관련 가치, 목적의식 등을 특징으로 갖는 데 반해 ‘저장기억’은 역사 학문으로서 기능기억에 비하면 이차적 질서의 기억, 즉 현재와의 활성적 관계를 상실한 것을 기록한 기억들이다. 저장기억이 기능기억을 입증하고 교정하는 만큼, 기능기억은 저장기억에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이면서 “서로 내적 차이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외부로 발현하는” 다양한 문화현상이 된다. 결국 아스만은 역사와 기억을 상호 간에 배제하지도, 억압하지도 않아야 할 양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망각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기억은 일반적으로 소통 속에서 유지되는데, 소통이란 기억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가운데 그 의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기억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들이 변형되거나 소거되었을 때 형성되는 것이 망각이라고 한다. 망각된 사건들은 기억공동체 속에서 정치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공론화될 수 없는 성질을 갖는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역,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90~99쪽, 169쪽, 178쪽.) 이러한 부분, 즉 공론화 되지 못한 망각된 사건들에 이병주는 끊임없이 천착한다. 그리고 망각된 사건들을 소환하여 사회적 의미들을 부여하고 다시금 소통을 시도한다.

4) 이 작품은 1968년 4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월간중앙』에 연재되었고, 이후 1989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신경남일보』에 「아아! 그들의 청춘」으로 제목만 바뀌어 반복 연재되었다.

5) 작가는 ‘관부연락선’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해방 후 이 땅의 文學은 반드시 清算文學의 단계를 겪어야 했었다. 自虐할 정도로 反省하고 自嘲할 정도로 自覺해야 했고 日帝에의 隸屬을 文學者 개인의 책임으로서 解剖하고 分析해서 그러한 清算이 이루어진 끝에 새로운 文學이 시작되어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를도 없이 文學者들은 對立抗爭하기 시작했고 저 마다의 주장만 앞세우고 나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解放을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解放의 기쁨에 感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前에 感激해 버린 것이다. 이런 결코 文學者의 態度가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껏 이 나라의 文學은 이 나라의 精神을 主導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晩時의 曠은 있지만 나는 이 作品에서 日帝의 時代부터 6.25動亂까지의 사이, 時代와 더불어 動搖한 知識人을 그림으로써 韓國의 近代를 그 意味를 알아보고자 한다. 關釜連絡船은 그런 뜻에서 歷史의으로도 象徵의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交通手段이며 舞臺다.” (이병주, 『關釜連絡船』, 『월간중앙』, 1968. 4, 427쪽)

6)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앞의 책, 204쪽.

그러니 관부연락선은 이 전승(戰勝)의 영광과 더불어 취항해선 일본의 대륙 경영에의 영광스러운 통로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통로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이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왔다.⁷⁾

‘일본 대륙 경영의 통로’로 구축된 ‘관부연락선’은 한·일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집약시켜 놓은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관부연락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가는 일본 사람들은 지배하기 위해서였고”, “일본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호구지책으로 노예가 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유태림은 “연락선이 한국 사람을 수인 취급을 한다는 건 지배자인 일본인이 피지배자인 한국인을 수인취급하고 있다는 집약적 표현일 따름”이라며 관부연락선을 수인선이라 치부한다. 실제로 관부연락선이 취항된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박탈당했으며, 관부연락선의 이용도는 대륙진출을 꾀하는 일본인들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를 시작으로 식민지 정책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작품 속 유태림이 제시해 놓은 연도별 취항선의 상황이나 실제 관부연락선의 취항 자료를 보면 관부연락선의 취항 선박은 물론이고 승객이나 화물량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품 속에서 유태림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하류 계층이 한국이나 만주지역으로 진출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배경으로 새로운 생활 거점을 위해 대륙으로 밀려왔기 때문이다.”⁸⁾

이병주는 유태림이라는 분신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 간의 상징적 통로인 ‘관부연락선’을 연구, 정리하여 보여준다.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도버 칼레 간의 연락선 시결호’에서였다. 그는 갑판 위 벤치에 앉아 자신이 머물렀던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를 생각하다가 ‘관부연락선’을 상기한다. 그가 기억하는 ‘관부연락선’의 3등 손님들은 갑판 위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할뿐더러 창고 같은 선저(船底)에 갇혔다가 목적지에 이르러서야 해방이 된다. 그리고 관부연락선을 탈 때나 내릴 때도 형사들 앞에서 극도로 조심을 해야 한다. 당시 관부연락선의 선실은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등실은 고관이나 귀족들만 탈 수 있었으며 2등실은 누구나 사용가능했지만 배 값이 비쌌다. 때문에 조선인들은 대부분 3등실을 이용했다.⁹⁾ 이처럼 관부연락선은 조선인들에게는 일제 식민지 수탈의 비애가 서려 있는 트라우마의 공간이다. 반면, 일본인들에게는 지배를 통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보고(寶庫)였다.

결국 ‘관부연락선’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우월/열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각인시키고 식민화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셈이다. 동시에 유태림, 나아가 작가가 기억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¹⁰⁾ 이때 기억은 이미지와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미지는 특정한 지식 내용의 감정적인 각인을, 그리고 장소는 각인된 기억의 배열과 기억의 재발견에 대한 것으로 이용된다.’¹¹⁾ 이병주에게 혹은 유태림에게 관부연락선은 취항 목적 및 이용 승객의 실태를 통한 민족 차별이 각인된 이미지이다.

7) 이병주, 『關釜連絡船』, 앞의 책, 1968. 8, 426쪽. (이후 날짜와 쪽수만 표기)

8) 김재승, 『關釜連絡船 40年 ③』, 『해사실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2, 60~61쪽. (“1905년 韓日合邦이 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관부연락선 항로의 이용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인들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1911년 연간 여객수가 17만 5천여 명에 달했던 것이 1912년에 들어와서 20만 명을 돌파했고, 화물의 수송량 역시 1911년 8만 2천여 톤에서 1912년에는 9만 2천여 톤, 1913년에는 12만 6천여 톤으로 현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9) 이귀원,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부산경남역사연구소, 늘함께, 1999, 256쪽.

10) 기억하기란 특정한 장소들을 선택해서, 의식 속에 간직해 두려는 사물들에 대해 정신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들을 예의 의식적 장소들로 결부시키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Verlag C.H.Beck München, 1992, 24쪽. (정주아,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기억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28쪽에서 재인용)

1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앞의 책, 391쪽.

1940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유태림은 일본인 친구 E와 함께 시모노세키에서 원주신에 대해 조사하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자 부산으로 향하는 관부연락선을 탄다. 그런데 둘은 ‘관부연락선’의 선포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된다. 일본인이면서 관부연락선을 처음 타 보는 E에게 관부연락선은 이동수단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태림에게 있어 그것은 트라우마의 장소인 동시에 기억의 장소이다. 즉, 민족의 비굴과 비애가 봉합되지 않은 상흔으로 고착되어 있는 동시에 ‘식민지 시대’와 관련한 역사적 관심의 기초가 된 장소이다. 특히 이 소설에서 ‘관부연락선’이라는 장소는 기억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기억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장소는 회상을 구체적으로 지상에 위치시키면서 그 회상을 공고히 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인공물로 구체화된 개인과 시대 그리고 문화의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단기적인 기억을 능가하는 지속성을 구현한다.¹²⁾

이처럼 이병주는 유태림의 수기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관부연락선’이란 공간을 “과거의 말없는 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장소에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해 주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때 관부연락선은 이중기호로 작용하는데, 이 이중기호는 기억뿐만 아니라 망각도 코드화하고 있다. 그 기호들은 소실되고 망각된, 즉 역사의 차원에서 이미 낯설게 된 과거를 드러나게 해 준다. 즉 그것은 시대가 파기하고 파면시킨 것을 다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¹³⁾

日露戰爭에 勝利한 그해 日本은 關釜連絡船을 始航하고 2次 大戰에 敗北한 해에 終航했다는 데 歷史로서의 또 다른 意味가 있기도 하다.
마지막 關釜連絡船이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다. 25년이 지난 이 時間 속에서 關釜連絡船을 回想하려는 노릇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 더러는 散失하고 없어진 것도 大部分인데 그것을 모아 그대로 瓶을 再構成하려는 노릇과 비슷하다. 하물며 이 배를 타고가고, 타고 온 數百萬 사람들의 感懷를 集約하고 反映할 수 있는 어떠한 手段도 없다.
그리고 바다의 無常엔 陸地의 無常이 겨눌 바가 못 된다. 陸地 위의 建物は 灣만하면 數百 年을 견딜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만 作用하면 廢墟를 통해 數千 年의 記憶을 간직할 수가 있다. 그러나 陸地의 建物を 標準으로 하면 數10層의 빌딩에 비교할 수 있는 豪華船도 1百 年의 세월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만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스크랩의 堆積으로 變해서 드디어 蒸發하듯 없어지고 만다. (1970. 3, 436~437쪽)

위 인용은 관부연락선의 작자 부기이다. 다소 길지만 작가의 의도, 관부연락선의 의미, 그리고 공간을 통한 기억의 재구축 등 소설 「關釜連絡船」의 중요한 지점들이 이 대목에 집약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인용해 보았다. 이 소설에서 러일전쟁에 승리한 해에 시항하여 2차 대전에 패배한 해에 종항했다는 ‘관부연락선’은 역사의 은유이며,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기억의 상징물로 형상화되어 있다.¹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주는 ‘관부연락선’이라는 사물의 기억을 통해 공적인 역사에서 탈각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2) 위의 책, 392쪽.

13) 위의 책, 409~410쪽.

14)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작고 평범하며 진부한 사물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신이 새롭고 근사한 어떤 것에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히 저급하거나 비천한 것, 이상한 것, 위대한 것, 믿을 수 없는 것이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각인된다.(…)그러니 우리는 기억에 가장 오래 달라붙어 있을 이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눈에 띄는 비유를 찾아야만 한다. 즉 말 못하는 모호한 이미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Rhetorica Ad Herennium, III, XXII, hg. von Theoder Nüßlein, Zürich 1994, 174~177, vgl. Frances A. Yates, The Art of Memory, London 1992, 25~26.(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앞의 책, 286쪽에서 재인용) 「관부연락선」에서 작가는 ‘관부연락선’을 오래 각인될 수 있는 능동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3. 망자추모와 애도, 역사 다시쓰기

한 국가의 정체성 또는 민족의 역사의식은 선별되어 해석된 사건들이 기억되고 학습된 것이다.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지배 담론이 모든 개별적·사적 기억들을 동질적 집단 기억으로 통합해 내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개별적 기억들은 과편화되어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든지 주변부로 밀려난 채 침묵을 강요당하든지 한다. 이때 생존을 위해 또는 사회적 삶을 위해 지배적인 기억에 스스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하며 권력에 의해 선별된 기억들이 자발적으로 기억되고 학습된다.¹⁵⁾ 따라서 구성적인 차원을 지닌 기억으로서의 역사/이야기는 과거의 변형과 굴절인 동시에 그 이외의 부분의 배제이므로 역사/이야기에는 필연적으로 망각이 함께 작용한다.¹⁶⁾ 이러한 지점이 바로 역사에 의해 희생되었지만 정작 공적인 역사에서는 침묵되어왔던 인물들에게 이병주가 천착하는 이유가 된다. 즉 작가 이병주는 역사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들을 다시 불러와 “과거의 기억이 망각되지 않게 글로써 기억을 저장하면서 그 당위성을 망각에서 이끌어 내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되어 왔던 인물들이 공적인 역사와 함께 기술될 때 비로소 온전한 역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이병주가 문학을 통해 역사를 말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자료와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고, 공적인 역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웅보다는 배제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패배의 기록이나 체험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권력과 맞서 싸우는 행동과 작용이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과정에 관한 관심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도 한다.¹⁷⁾ 그리고 이때 그가 작품 속에 담아 놓은 기억들은 원체험을 수반한 개인적이며 불연속적인 대항기억이며¹⁸⁾ 동시에 그것은 공식화된 기억들로 고착된 역사에 대한 비판적 전략으로 읽힌다.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사건이나 인물을 선택해 역사의 자장 안에 재배치하는 행위는 작가의 ‘역사의식’과 관계가 있다. 반면 기록과 자료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 혹은 해석을 유보한 채 그대로 명시하는 방식은 ‘역사인식’의 표출이다. 즉 이병주 소설에서 역사서술 동기인 ‘역사의식’과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인 ‘역사인식’은 착종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그의 역사 기록 방식이 역사를 주관적으로 전유하는 역사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인식’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장에서는 ‘관부연락선’이라는 공간을 중심축으로 그것과 관련된 망각된 역사를 복원하고 공적인 역사의 틈을 메우려는 작가의 태도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사물 뿐만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유태림은 작가의 분신이자 “일본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은 식민지 청년의 한 유형”으로 역사의 파고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품 속에서 유태림은 학병체험에 대한 죄의식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소거

15) 황병주, 「기억의 역사화-통합의 서사전략과 분열증적 기억들」, 『문학동네』, 2003 봄, 339쪽.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12쪽.

16) 조경식, 「망각의 담론, 기능 그리고 역사」, 최문규 외, 위의 책, 302쪽.

17) Harvey J. Kaye, 『과거의 힘』, 오인영 역, 삼인, 2004, 225쪽.

18) 푸코는 우리에게 기억된 역사란 대부분 지배 권력의 담론이 구성된 승리자의 역사임을 주장하면서 ‘대항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배 권력의 기억된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대항기억’이란 사회적 연속성의 기억에 맞서 오히려 우연적 요인들로 간주된 미세한 일탈들이 만들어내는 불연속적, 단층적 출발점들에 대한 기억이다. (Michel Foucault: Nietzsche, die Genealogie, die Historie. Von der Subversion des Wissens, Frankfurt/M.1987. S. 69f. (김영목, 「역사적 기억과 망각된 역사」, 『뫼히너와 현대문학』23호, 한국뫼히너 학회, 2004, 232쪽에서 재인용.)

한 채 회색분자적 태도로 시대를 건디어내다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다.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도 항상 유대림을 짓누르는 것은 학병동원에 대한 죄의식이었다. 때문에 유대림은 역사에 대한 냉철한 인식능력으로 매 상황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만 자신을 “코스모폴리탄이란 건식을 모방하여 민족과 조국의 절박한 문제를 회피한 망명인”이라 자인하며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

關釜連絡船으로서 就航했던 10數隻의 배들도 그 가운데 1,2隻을 除外하곤 이미 古鐵이 되었을 것이다. 그 배들에 對한 기억도 數百萬 乘客의 腦理에 雲散하고 세월과 더불어 霧消할 상황에 있다. 그런 이유로 作者는 자기가 나지도 않았던 時間의 일까지를 虛構하고, 他人의 感精을 模倣하며 가냘픈 經驗에서 眞實을 描出하는 等의 強行的 作業을 포기하고 柳泰林이란 非運의 青年에다 關釜連絡船을 通路로 한 知識青年의 一部를 代表하는 任務를 맡긴 것이다.

末期世代의 悲劇

柳泰林的 悲劇은 6.25동란에 휩쓸려 犧牲된 수많은 사람들의 悲劇과 痛忿되는 部分도 있지만 日本에서 日本人의 教育을 받은 植民地 青年의 하나의 類型을 그에게서 發見할 수 있는 그만큼 關釜連絡船 末期世代에 屬하는 그의 悲劇에 對한 責任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學兵으로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쓴 그의 편지를 지금의 意識으로 읽어 볼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가슴 속에 億萬의 말과 萬斛의 감정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더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게 졸렬하게 表現할 수밖에 없었던 그 心情이 바로 地獄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저러나 小說에서 볼 때 關釜連絡船은 다시, 달리 씌어져야 하는 것이다. (1970. 3. 436~437쪽)

위 인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병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부연락선에 응축되어 있던 역사, 인물, 감정들이 사라져 감을 의식하고 과거 기억을 소환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리고 다시 쓰인 역사의 재전유(再專有)를 통해 학병지원에 대한 자신의 비겁함을 자인하는 동시에 자신도 나약한 시대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공고히 한다. 이것은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지니며 어두운 나날을 보내다가, 젊음의 절정을 일본군(日本軍)의 용병(傭兵) 신세로” 지내고 “좌우충돌(左右衝突)의 회오리 속에서 생사지간(生死之間)을 방황해야 했던”¹⁹⁾ 자신에게 청춘은 없었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유대림 뿐만 아니라 “아침에 나갔던 청춘이 저녁에 청춘을 잃고 돌아”왔던 학병세대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자신에게나 작품 속 주인공 유대림에게 학병에 대한 과거는 망각하고 싶은 기억이다. 망각은 인상과 장면, 체험 등의 지식의 망각, 의도의 망각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적 망각은 전염될 경우 집단 심리학의 한 현상인 ‘집단적’ 망각으로 전이될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병주는 자신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기꺼이 끄집어내어 그것을 매개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적 망각’을 방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학병체험에 관한 과거를 통해 역사의 고삐길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과거의 상실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애도의 이미지로 읽힌다.

이렇게 볼 때 유대림이란 인물을 추모하려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학병 동원에 대한 자기반성을 포함해 어쩌면 역사의 피해자였을 학병세대들의 심경을 대변하

19) 이병주, 「세우지 않은 碑銘-歷城의 風, 華山の 月」, 『한국문학』, 한국문학사, 1980. 6. 72쪽.

20) Sigmund Freud, Zur Psychopathologie des Alltagslebens, 전집Gesammelte Werke 4권, Frankfurt a. M.: Fischer Verlag, 1978/1941, 48쪽.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 and 서사적 진실」,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12쪽에서 재인용.)

고자 함이요, 다른 하나는 침묵되어 온 과거를 복원하여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함이다. 나아가 ‘유태림’이란 인물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행위는 역사에서 생략되어버린 인물을 복원해내려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것은 역사의 행간에 묻힌 망자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역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힘을 호소하는”²¹⁾ 작용을 한다.

이병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희생된 영웅에 초점을 두기보다 유태림과 같이 주변의 부각되지 않은 희생자들에게 주목한다. 즉 구성된 역사들 사이에 있는 틈새들을 성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현재와 과거의 대화주체는 사회, 민족 혹은 계급과 같은 어느 하나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다원적 주체이기에 그들에 의해 구성된 역사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일 수밖에 없다.”는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라는 역사인식론에서 출발하고 있다.²²⁾ 때문에 이병주는 역사의 행간에 묻혀 있는 희생자들을 소환해 내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들의 재평가를 통해 우리 시대의 정치사나 역사에 새로운 개안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유태림이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1940년대 용병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공적인 역사에서 망각되어 왔던 과거이면서,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 복원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辨明」에서 ‘탁인수’라는 인물의 부활을 통해 연이어 표출된다.

「辨明」의 서술자는 “2차 대전 중 동원된 22만의 한국인 가운데 2만 2000명 가량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그 일부인 2,315명의 유골이 일본 후생성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다가” 이제야 그 명단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 씁쓸해 한다. 서술자는 성은 일본식이고 이름은 한국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명단과 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전사한 지명을 보며 이국 땅 전역에 우리 동포의 핏자국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 눈물은 그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전이된다.

서술자가 생각할 때 그들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희생도, 조국을 위한 봉사도, 어떤 사상, 어떤 신념을 위한 순교도 아니다.” 단지 변명할 여지도 없는 노예로서의 죽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본의 아니게 전쟁에 끌려 나가선 안 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명분이 뚜렷하지 못할 땐 무기를 들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에 의한 목적 없는 죽음을 노예의 죽음이라 생각하는 서술자는 ‘카이로 선언’이 있을 무렵 일본군에 끌려간 자신의 이력을 들먹이며 스스로를 ‘비굴한 놈’이라 자책한다.

일주일 동안 연재 발표된 명단 속에서 서술자는 본적, 전사지명도 밝혀져 있지 않고 이름도 한국식 이름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탁인수’라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이름을 접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서술자가 탁인수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은 소주(蘇州)에서 일본 병정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게 되면서 기밀문서 소각 임무를 맡아 이행할 때였다. 서술자는 문서들을 소각하려고 문서를 살피던 당시 군법회의록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발견하여 그 부분을 찢어 챙겨 놓았던 것이다. 작가는 이 군법회의록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보여준다.

성명 탁인수. 본적 경북 X군 X면 X리. 생년월일 대정大正 10년 X월 X일. 학력 동경 W대학 경제학부 졸. 이자는 소화(昭和) 19년(1944) 1월 20일 조선 용산부대를 거쳐 동년 2월 5일 중지(中支) 파견군 제 70사단 제21부대에 입주. 상주(常州)에서 초년병 교육을 마치고 동년 7월 진강 분견대

21)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앞의 책, 59쪽 참조.

22) 김기봉 외,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57쪽 참조.

에 파견되자 일주일 후인 7월 17일, 부대를 이탈 중국 충의구국군(忠義救國軍)으로 분적(奔敵) 황군(皇軍)의 기밀을 팔아 충구군 참령(少佐相當階級)으로 임명되어 이적행위를 거듭했음. 그러고는 소화 20년(1945) 1월, 조선인을 규합하여 충구군 내에 조선인 부대를 만들 목적으로 상해에 잠입, 인원포섭과 자금조달의 공작을 시작했음. 그동안 십 수 명의 조선인을 포섭(人名省略), 약간의 자금도 모았는데 이 동태를 찰지(察知)한 상해 화성돈로(華盛頓路) XX 번에 거주하는 조선인 장병중(張秉仲)이 제보해왔으므로 2월 3일 오전 7시 장강반점(長江飯店)에 투숙중인 것을 상해 헌병대가 체포했음.

이어 군법회장에서의 문답내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응수가 있었다.

문 탈출한 동기는 무엇이나.

답 나는 입대할 때부터 탈출할 기회만 노려왔다.

문 동기와 이유를 말하라니까.

답 조선인이 일본의 병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신념이 탈출의 동기이고 이유다. (중략)

문 너는 가족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너의 불충·불효·불손한 행위가 너의 가족에게 미칠 화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답 나의 불효는 장차 역사가 보상해주리라고 믿는다.

적전(敵前) 부대이탈, 분적, 이적 등의 죄명으로 판결은 사형. 1945년 6월 15일 상해 경비사령부에서 법무장교 입회하에 교수형 집행. 이란 대목으로서 그 문서는 끝나고 있었다.²³⁾

역사가 자신의 불행을 보상해 줄 것이라 믿은 탁인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서술자가 생각했을 때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다. 그에 비하면 아무런 저항 없이 용병 생활을 마치고 살아 돌아온 자신은 ‘한 마리의 버러지’에 불과하며 “그 엄숙한 탁인수의 역사 속”에 자신이 기여할 자리는 없다. 오직 자신이 할 일은 탁인수의 희생이 역사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장병중이란 자를 찾아내어 그를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올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던 중 고국으로 돌아온 서술자는 스치듯 장병중과 한 번 마주쳤지만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볼 방도를 찾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을 통해 장병중이 K도 D군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는 “이때를 놓치면 탁인수 사건에 대한 나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기회는 영영 없어질 것”이란 생각에 직장에 일주일 휴가원을 내놓고 K도의 D군으로 무작정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치 대단한 독립운동가인양 행세하며 득의양양하게 연설하는 장병중의 모습에 서술자는 울분이 치밀어 오름을 느낀다. 이에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탁인수 사건의 기록을 재생해 인쇄물로 만들어 장병중의 만행을 드러낼 생각으로 함께 용병생활을 했던 M이란 친구를 찾아가 의논을 한다. 그러나 M은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의 시국에서는 서술자의 그런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렇게 한 뒤의 법률문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입후보한 놈들 가운데 장병중이 같은 놈이 어디 한두 사람뿐인 줄 아나? 일제 때 경찰한 놈도 입후보하고 있고, 일제 때 헌병 노릇한 놈도 입후보하고 있고, 일제에 아부해서 출세하려고 덤빈 별의별 놈들이 입후보하고 있는 판인데 자네가 장병중을 방해한다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올바로 될 줄 아나? 내버려 뒀, 국회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소굴이 되건, 사기꾼의 집합소가 되건.” (93쪽)

위 인용은 청산해야 할 과거의 문제(특히 친일파 청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과오가 현재에도 되풀이되며, 그로 인해 부조리한 현재를 창출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시에 전후 공간에서 정작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방관하며 자신들의 이권 쟁취기에 급급한

23) 이병주, 「辨明」, 『문학사상』, 1972. 12, 87~88쪽.(이후 쪽수만 표기)

정계의 모순을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술자나 M의 태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병폐를 보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서술자의 경우 역사의 간접적인 목격자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 받아 마땅할 자를 묵도하는 것을 순응과 복종이 습관화된 용병의식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그와 함께 당시의 허무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던 나약한 지식인 군상의 한 단면을 병치해야 이해가 가능해진다.

역사의 피해자였던 탁인수는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에 반해 역사의 가해자였던 장병중은 무수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이것 역시 작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면서 작가로 하여금 “역사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소설에서 망자 소환과 그에 대한 애도와 추모는 잊혀지고 억압된 기억들을 들춰내어 현재의 역사가 잘못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때문에 『辨明』의 서술자는 용병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순국열사로서의 탁인수의 송덕비를 세우고, 그를 추모하는 행위를 통해 망각된 과거를 재소환하여 역사 바로 쓰기에 동참한다. 이때의 기념비는 “미래지향적이고 역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힘을 호소하는 혁명적 기념비”²⁴⁾로 작용하고 있다. 송덕비 건립을 통한 애도²⁵⁾와 망자추모를 통해 탁인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공적인 역사에서 삭제된 기억은 복구되어 다시금 제 자리를 찾게 된다.

이처럼 송덕비를 세우는 일련의 행위로 탁인수에 대한 추모의 과정을 거쳤지만 서술자에게는 여전히 탁인수에 대한 “소명의 명분을 다하지 못했고, 자신의 게으름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섭리의 톱니를 어긋나게 비틀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때문에 서술자는 다시 마르크 블로크를 불러온다.

이런 경우 나는 부득이 마르크 블로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된다.

(중략)

“탁인수나 당신 같은 희생자를 한 세대에 수백만 명씩 생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앉아 역사의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블로크 교수!”

“.....”

“인과의 섭리가 행해지지 않고 악인(惡因)을 쌓은 인간들이 아직도 히틀러처럼, 무솔리니처럼 설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역사를 위한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역사가 인생에 유익하려면 악의 원인을 철저히 캐내어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서 겨우 블로크 교수는 입을 연다.

“(중략) 역사는 원인의 파도를 파악해야 한다.” (중략)

나는 초조하게 반박해본다.

“역사를 위한 변명이 가능하라면 섭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마르크 브로크 교수

24) 기념비의 역사는 중심과 변방 사이의 긴장이 한 치 양보의 기미가 없다. 그것이 일치하든 차이를 보이든 간에 다양한 역사적 관점들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다양화됨으로써 기념비 문제로 제기되는 정치적인 요구들을 자기편에서 관철하고자 투쟁한다. 시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자기 확실성이 강화될수록 기념비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 더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념비들은 후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시대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그것들은 현재를 영원한 역사로 만들고 역사적 과정을 부정하려는 도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한다. 그러한 안정을 위한 기념비들 이외에도 미래 지향적이고 역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힘을 호소하는 혁명적 기념비들이 있었다. (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앞의 책, 59쪽)

25) 애도(Trauer)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추상적인 것. 이를테면 조국, 자유,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Sigmund Freud, 『슬픔과 우울증』, 윤희기역,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9, 248쪽 참고)

는 내게 부드러운 웃음을 보내며 말한다.

“서둘지 말아라. 자네는 아직 젊다. 자네는 역사를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써라. 역사가 생명을 얻자면 섭리의 힘을 빌릴 것이 아니라 소설의 힘, 문학의 힘을 빌어야만 된다.” (95~96쪽)

작가 이병주에게 있어 블록 또한 역사가 제대로 기술되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주는 유령이 된다.²⁶⁾ 그리고 이 유령은 끊임없이 출몰해 “역사가 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섭리에 의해 무엇인가 召命받은 者가 인간으로서, 소명 받은 자로서 제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는”²⁷⁾ 작가에게 문학을 통해 역사 바로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부여해 준다. 동시에 역사를 변명하기 위해서,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소설을 쓰라는 블록의 울림은 역사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채 힘없이 잊혀진 자들을 보아온 이병주를 소설가로 만든 동인으로 작용한다.²⁸⁾

살펴보았듯이 이병주는 ‘기억’이라는 형태를 통해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인물이나 사건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희생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이 과정에서 복원된 서사는 체제를 폭로하고 공적인 기억에 균열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텍스트 내로 호명된 역사는 기억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다시 기술된다. 이것은 공적 기억의 억압과 배제로 인해 소거되었던 역사 복원을 통해 관계적으로 구축된 기억들을 재배치하고, 학습된 역사를 체험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발로다. 동시에 역사의 뒤편에서 생략되어 왔던 사실들의 복원을 통해 역사의 틈을 메우고자 했던 그의 창작관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26) 데리다는 애도작업에 대해 ‘유령의 귀환’이라는 의미를 통해 설명한다. 그는 유령의 출몰이 잊혀진 기억을 끄집어내어 미래를 인지하게 하는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유령은 현재의 지배적 역사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트라우마적 기억 혹은 공적인 역사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대중의 기억이다.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 양운덕 역, 한뜻, 1996.)

27) 필자와의 대화, 「辨明」, 『문학사상』, 앞의 책, 95쪽.

28) “日本 私小説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음을 이 기회에 고백하죠. 「辨明」은 실화입니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왜 내가 뒤늦게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변명했어요.” (金柱演, 「政治的 敗北와 人間補償」, 『서울평론』73호, 1975. 4, 29쪽)

애도와 물신 사이에서: 『조선영화』를 중심으로 본 1990년대 북한영화*

김선아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목차

1. 김일성, 죽다
2. 1990년대 조선영화해
- 1) 침체기
- 2) 제 2차 문예혁명기
- 3) 다시 침체기
3. 실패한 문예혁명?

1. 김일성, 죽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은 사망했다. 1989년 독일의 통일 이후 80년대 지속적으로 흔들리던 사회주의의 원대한 유토피아적 기획은 20세기 역사의 화석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수령’유일영도체제를 내세운 북한에서 수령인 김일성이 사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외부인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1990년 김일성은 신년사 및 제 6기 제 17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공산주의 세계사의 해체에 척력(斥力)을 가한 바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김일성이 죽은 후 아들 김정일은 유혼통치라는 국가 삼년상을 발표한다. 수령의 실제적 죽음은 공산주의 세계사의 해체라는 정치적 난국과 경제난을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식적인 애도의 과정으로 통합한다. 여기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 nation’은 가라타니 고진의 네이션 개념과 유사하다. 고진은 네이션을 혈연과 부족, 또는 언어공동체 등을 넘어선 것이며 실제의 친족이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네이션이 진정으로 형성된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¹⁾ 북한이 인민들에게 이러한 민족감정을 요구한 것은 ‘우리 식’ 주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산주의 해체가 가속화

1) 중앙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용으로 쓴 미완성 원고입니다.

1)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문자와 국가』 25~27쪽, 도서출판 b, 2011. 그는 오네이션과 미학에서 네이션에 대한 귀속 감정은 호혜적인 경제 관계, 즉 수탈당하고 있음에도 증여받고 있다고 사고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싹튼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네이션에 대한 감정은 단순히 상상적이거나 신비화가 아닌, 경제적인 양식에 기반해 있는 감정이다. 고진, 조영일 옮김, 『오네이션과 미학』 14~29쪽, 도서출판b, 2004.

될 무렵인 1980년대 중반에 북한의 위기담론은 절정에 치닫는 듯 했다. 당시에 쏟아져 나온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정치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론 등은 오히려 고전적인 주체사상보다 더 강조되었다. 북한이 위기 때마다 제기한 다른 이름의 민족주의론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약탈 및 재분배를 수령의 ‘증여’로 전치시킨 네이션의 감정이며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기에 매우 효과적인 봉인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됐든 김일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애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숭배와 제의의 물신으로 다시 수령을 놓으면서 승화된다. 북한은 1995년 곧바로 조선로동당 창건 50돐을 기념하면서 다시 승리의 기념비적 역사를 세우기 시작한다.

이 글을 쓰게 된 발단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의문점은 수령유일제 사회에서의 수령의 죽음과 조선로동당 창건을 기념하는 승리의 역사 사이에 놓인 북한사회의 ‘감정구조’였다.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수령의 죽음까지 겹친 총체적인 난국의 한 복판에 놓여 있던 북한은 지나치게 빠르게 죽음에 대한 감정을 수렴하고 있었다. 이후에 펼쳐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김일성의 실제적인 죽음은 인정되면서 상징적인 죽음은 부인되었다. 아니 오히려 상징적인 죽음에 대한 물신화 작업은 이전보다 더욱 강고해 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잡지인 『조선영화』는 이러한 일련의 집단적 감정구조의 형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영화』를 검토하던 중 생겨났던 이러한 의문점은 90년대 북한영화의 역사와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확산되었다. 당의 정치적 노선과 정책을 허구의 거꾸집에서 빚어내는 북한 영화 및 담론(『조선영화』)은 정치의 예술화 과정을 통해 정치와 예술 간의 상동성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 논문에서 풀어 가려는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제시하려 한다.

- ① 김일성의 죽음은 북한영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②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이행 과정에서 영화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 ③ 1992년 제 2차 문예혁명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2. 1990년대 『조선영화』

『조선영화』는 1957년 7월에 창간되어 1997년에 폐간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발행의 유일한 영화전문잡지이다. 『조선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세기에 빛나는 업적’ 과 당이 영화예술인들에게 요구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담은 ‘론설’ 및 ‘연단’, 그리고 해당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 본보기가 될 만한 영화를 소개하고 분석하거나 과거의 명작영화를 역사적으로 논하는 ‘평론’, 실제 영화 창작인이나 배우의 ‘창작수기’, 관객들의 영화감상문을 짧게 실은 ‘영화와 관중’, 시나리오 및 영화음악 등 여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는 기술상식, 해외영화제 소식, 통신원자료 등이 고정란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시국에 따라 불규칙하게 실리는 기사는 러시아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동향이나 남한의 ‘진보적’ 영화(한국의 80년대 중후반 독립영화를 일컫는다)나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 등 서구의 비판적 사실주의 영화역사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있다. 90년대 『조선영화』또한 커다란 변화 없이 이 틀을 유지하면서 간행되었다.

90년대 『조선영화』는 특정한 시기에 발행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동참을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해당년도 9~10월호 및 11~12월호는 합본호로 간행되었고, 그로부터 3

년이 지난 1997년 10월과 12월에는 각각 특간호를 간행한 바 있다. 10월호는 김정일이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특간호 형식을 띠었으며, 12월은 『조선영화』가 약 40여 년간의 잡지 발행을 마감한 마지막 호수 기념을 이유로 특간호로 간행되었다. 1997년 10월 조선영화 특간호는 김정일의 총비서 임명 발표문을 10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특별보도 형식으로 첫 쪽에 실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영화잡지에 이런 정치관련 성명서가 채택되는 건 남한에서는 낯설지만, 영화를 곧 당의 사실로 여기는 북한에서는 익숙한 정치적 장치이다. 오히려 영화는 수령의 영도로 이끌어가는 유일당과 인민의 가교 역할을 가장 감정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파괴력 있는 근대 매체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첫 번째 간행된 『조선영화』는 8월호이다. 94년 8월호는 바로 다음인 9~10월호가 합본호가 발행된 걸 보면 8월호가 김일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편집 기획된 호라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호에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시작으로 생전에 김일성의 사진과 영결식 사진 등으로 김일성의 일대기를 시각적으로 엮은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추도대회 보도, 영화인들의 추도문 등으로 전체 80쪽 중 절반인 40쪽을 김일성 사망에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조선영화』의 발행 형식에 변화가 온 시기는 1994년과 1997년이었으며 이는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독자적인) 등장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조선영화』는 김일성의 사망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심각한 단절을 보여준다. 김일성의 사망은 짧게 붙었던 제 2차 문예혁명의 바람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다른 어떤 영화장르(영화의 주제 및 소재를 포함한 장르)보다 특히 사회주의 현실주제 영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조선영화에는 유훈통치와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한 가족사진이 연속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함께 하거나 따로 또 같이 한 이 둘의 사진에서는 사적인 가족 앨범과 공적인 기념사진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 순간 수령유일체제와 수령후계자유일체제가 겹쳐지면서 역사의 이중인화가 시각적으로 각인된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으로 각기 분리되어 있는 두 개체는 유일권력이라는 집단적 생명의 자리를 함께 차지한다.

1990년대 『조선영화』의 이러한 역사적 굴곡과 추이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침체기: 1986~1991년

1990년대 북한영화는 그 출발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영화의 침체기는 8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80년대 북한영화는 대표적인 수령형상영화인 <조선의 별>, <불멸의 역사> 등이 시리즈로 쏟아져 나온 시기였으나, 모든 영화를 수령형상영화만으로 채우는 건 관객들을 견인시키지 못할뿐더러, 김정일이 주창한 비반복적이며 탈유사성 예술원칙에도 심대하게 어긋나는 일이었다. 김정일은 1986년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²⁾라는 로작을 통해 종합적으로 당시의 예술을 논한 바 있다. 『조선영화』에서 김정일의 로작 중 가장 많이 인용되

2) 김정일, 1986년 5월 17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오임정일 선집8책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년

는 담화문 중 하나인 이 글은 김정일이 당시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시대라고 규정, 문화혁명이 사상과 기술 혁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학예술부문 창작자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북한영화 및 문학예술 전반에 대한 김정일의 평가가 담겨있는 담화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창작가, 예술인들은 창조와 건설로 들끓고 영웅적 위훈으로 가득 찬 오늘의 현실을 문학예술작품에 생동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호소성이 강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지 못하고 있다.
- ◎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혁명소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삼지연대기념비가 그 예이다)
- ◎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 항일혁명선렬, 애국선렬, 애국자(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가 우리 시대의 인간 전형이다.
- ◎ 군민관계를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 ◎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조선혁명의 이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 ◎ 자연주의, 형식주의, 수정주의, 복고주의, 도식주의적 경향과 유사성을 없애자.

흥미롭게 김정일은 당시의 음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의 일신된 창작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는 김정일이 특히 강하게 비판한 예술분야 중 하나였다. ‘영화예술부문에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좋은 영화를 많이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작된 영화들을 보아도 당이 제시한 사상사업방침을 반영한 작품이 거의나 없습니다.3)’, ‘최근에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인간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 영화와 남녀간의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를 만들어 사회적인 물의까지 일으켰습니다....구라파식이며 부르주아미학관의 표현,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전형이 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허무감과 절망감만을 줄 뿐입니다. 인민의 도덕생활과도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없습니다.4)’

80년대 북한 영화는 1987년 평양에서 최초로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침체기를 벗어나려 시도한다. 북한은 대규모의 국제영화관을 평양에 설립해서 1987년 9월 ‘제 1차 뽀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영화축전’을 공식 명칭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내세운 ‘평양영화축전’이 최

3) 김정일, 372쪽.

4) 김정일, 390쪽.

초로 개최한다. 영화축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이 개최하는 가장 커다란 국제 문화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영화제이다. 개최한 첫 해에 북한영화 <도라지꽃>이 햇불금상을 수상하고, 이로써 <도라지꽃>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몇 편 안되는 북한 영화 중 한 편으로 기록되게 된다. 대외적으로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꿈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무렵 북한은 거꾸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국제적 사회주의 연대라는 또 하나의 이념적 공동체를 제시한다. 제 2회 평양영화축전이 개최된 1990년 김일성은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신년사로 제시한 바 있다. 대외적인 붕괴와 연대의 균열은 우리 식대로 살자는 당의 인생관과 사업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90년 『조선영화』2월호에는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당의 령도에 충성다하는 것을 영화예술발전의 근본담보’라는 글을 게재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사실주의’를 더욱 고양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글은 당시 북한영화계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지금 적지 않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영화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예술적 기량이 높지 못하다 보니 현실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도 그것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 1990년 북한영화계는 북한영화계 자체가 일정 정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었다.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내세운 것은 영화인의 예술적 기량을 증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60년대 천리마 시기 북한영화를 따르자는 당 차원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성찰이나 반성을 위한 지체나 중단이란 있을 수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조선영화』9월호에서 ‘상승발전의 한길을 걷는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을 통해 역사의 상승 발전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 이 글은 80년대 영화예술의 성과를 정리한 글로서 <민족의 태양>, <조선의 별> 등 수령형상영화를 대표로 당일군과 숨은 영웅 형상영화, 노동계급 전형창조, 군사물주제와 조국통일주제, 현실주제영화 등 다양한 주제와 예술적 창조성을 보여줬던 80년대 각종 영화를 모범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다. 대외적인 변화는 『조선영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북통일주제 영화나 남한 영화, 남북뉴욕영화제 등 통일과 관련된 글이 91년도 전반기를 장식했다.

영화는 1973년 『영화예술론』의 출간을 계기로 70년대 일었던 제 1차 문예혁명의 기운은 많은 빠져 있었다. 앞의 논의는 당의 사업정책을 영예롭고 선도적으로 담아내었던 영화가 낡은 매체가 되자 국제영화축제 등을 개최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문예혁명을 꿈꾸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과정입니다...창작가, 예술인들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반대하고 진보적이며 혁신적이며 혁명적인 것을 지향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⁵⁾

‘새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일신된 사회주의의 꿈은 의외로 곧장 이루어진 듯 했다. 『주체문학론』을 비롯해서 각종 예술론이 김정일의 이름으로 간행되고,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되었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시리즈⁶⁾가 최초로 선을 보이던 1992년에

5) 김정일, 375쪽.

6) <민족과 운명>시리즈 분석 및 그것의 영화미학과 정치적 변화간의 관계는 또 다른 지면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과

말이다.

2) 제 2차 문예혁명기: 1992~1994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적 영화예술발전력사의 총화로 되는 기념비적대결작’으로 90년대 전체 북한 영화의 대표적인 시리즈로 자리를 잡게 된다. 『조선영화』는 폐간되던 1997년까지 <민족과 운명>을 매 호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으며, 1992년 김정일의 또 다른 로작인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⁷⁾는 <민족과 운명>의 제작에서 해석(영화기획에서 비평)까지의 맥락을 제공한다. 1991년에 나온 <내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가요로 토대로 김정일이 직접 기획한 <민족과 운명>은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라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이전에 제시한 지배담론인 사회정치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사회주의대가정론 등의 위기담론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영화-눈으로 증명한 작품이며, 그렇기에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작품으로 일컬어졌다.

1992년 김정일이 로작을 쓸 당시 <민족과 운명>은 최현덕편과 차흥기편인 1~7부까지 제작되었고, 이후 홍영자편, 리정모편, 윤상민편 등 15부까지 영화문학과 연출대본이 완성되었으며, 허정순편, 귀화한 일본녀성편, 노동계급편, <카프>작가편, 최현편에 이르는 50부까지 영화줄거리가 이미 92년 영화 기획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⁸⁾ 김정일이 <민족과 운명>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지배적인 위기담론(문자)의 시각적 이미지화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보다 ‘새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 ‘새 것’은 영화미학이나 문학예술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를 디스토피아로 바꾸면서 전 세계를 자본의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일신된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일신된 공산주의의 형상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말하는 ‘우리 식’ 주체문학예술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글은 92년 이후 『조선영화』가 압도적인 양으로 할애하고 있는 <민족과 운명>에 대한 담론의 메타담론이기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 ◎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를 훌륭히 구현한 작품이며 예술적으로 볼 때에는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작품이다.
- ◎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 과정에 사상적대를 세우는 문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문제, 인물들의 극적과제를 설정하고 역사적 사건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이야기줄거리를 엮고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 문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과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 형상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것을 다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해결하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는 대표작이다.
- ◎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다. 민족의 운명의 문제는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운명>시리즈에 대한 북한영화‘담론’분석에 집중하겠다.

7) 김정일,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년 5월 23일, 오김정일 선집13책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8) 김정일, 위의 글, 100~101쪽. 김정일은 <민족과 운명> 50부까지의 선기획 작업이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 즉 ‘집단주의적창작 기풍과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 창작에서는 목표를 크게 내세우고 노리는 것이 있어야 하며 감정조직을 잘하는 것이 우리 식 연출방법이다.
- ◎ <민족과 운명>은 조선의 낯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다. 조선의 낯은 다름 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다.
- ◎ <민족과 운명>의 일관된 기본사상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다.
- ◎ <민족과 운명>은 북과 남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데서 선도자역할을 해야 한다.
- ◎ <민족과 운명>은 내가 직접 종자를 잡아주고 나의 구상과 의도 밑에 창작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어야 한다.
- ◎ 주체문학예술은 수령과 인민 사이에 아버지과 자식사이와 같은 혈연적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한 가정처럼 굳게 결합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옹기 바짝 반영해야 한다.
- ◎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주체사실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새것을 어떻게 대담하게 개척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새겨보고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

『주체문학론』에서 처음 사용된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에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정치적생명체 담론을 중첩시킨 북한 고유의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영화예술론』에서 제기한 영화미학에 위기 때마다 형성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추가한 것이 바로 앞의 김정일의 글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분석은 문학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여타 학문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범박하게 종합한다면 국가-당-인민의 기존 사회주의로 기초 공사를 하고 수령-민족-(대)가족 구도라는 유교 가부장제라는 외관과 스타일로 마감 한 북한식 통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영화예술은 기본적으로 극예술에 속하며, 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조직인 인간관계조직, 사건조직, 감정조직 중에 감정조직을 가장 우위에 두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가-당-인민이라는 사회주의 기계는 피(혈연), 정서 및 감정을 지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재탄생한다는 의미는 숭고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지닌 인간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영화는 기계를 인간화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계-눈 장치인 것이다.

제 2차 문예혁명 70년대 제 1차 문예혁명 이후 1992년 김정일이 <민족과 운명> 1~7부를 세계적인 걸작이자 주체문학예술의 대표작이며 총화작으로 꼽고 있으며, 인민들 사이에서도 근래의 영화들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영화가 되면서 시작되는 듯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는 김정일이 자신의 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가 텅 빈 주인 기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듯 했다. 1980년대에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중 가장 더딘 혁명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었지만, 90년대 들어 <민족과 운명>이 『주체문학론』과 더불어 닦을 올린 문화예술 혁명은 오히려 대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북한의 사상과 더딘 자력갱생의 기술을 건인해 내거나 이를 은폐할 수 있는 부분 혁명이었다. 이에 더해 92년 말에 출간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여전히 수령은 건재하며 고로 북한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외관은 외부의 타격에도 굴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1994년 『조선예술』은 신년 사설로 ‘주체적인 영화예술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미래지향적인 글을 내놓는다. 이는 북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시간관 중 하나인 과거의 귀환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김정일 체제라는 선군시대까지도 지속되는 북한 고유의 미적 시간관과는 달리 <민족과 운명>시리즈가 시작되어 94년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북한문학예술은 짧은 시기이지만 이러한 지배적인 시간관과는 달리 방사되고 분산된 다성적인 시간관을 보여주는 듯 했다.⁹⁾ 1994년 신년 사설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다성적인 시간관을 지닌 채 등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4년 북한영화예술계에 놓인 세 가지 당면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낙천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30돐을 맞이하여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를 위한 계급교양주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현실과 미래를 낙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건 ‘영화예술 부문에서는 또한 올해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밝은 양상의 아담한 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웅적 로동계급의 전형을 형상한 혁명적이고 낙천적인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일성이 발표한 사회주의농촌테제 3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이 천명한 농업제일주의방침은 영화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¹⁰⁾ 1994년 중반기까지 우리 식 사회주의가 현실화된 농촌을 영화로 제시하려는 북한의 움직임 을 볼 수 있다. 한편 전후 세대를 지나 3, 4세대를 위한 영화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93년 평양연극 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이 제작한 <도시 처녀 시집와요>에 대해 조선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평론과 창작방법론을 쏟아내었다는 데에 있다. <도시 처녀 시집와요>는 비단 신세대를 위한 영화만이 아니라 (사회주의농촌) 현실주제영화이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밝은 양상의 아담한 작품’이기에 어떻게 보면 94년 신년호 사설에서 밝힌 영화예술계의 세 가지 방향을 통합시킨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밝은 양상의 낙천적인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여주자는 신년 초의 다짐은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조선영화』는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징후를 드러냈다. 그 중 하나는 ‘주체사실주의’라는 개념의 본격적인 사용이다. 김일성이 죽기 이전에 간행된 『조선영화』에는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주체적 영화예술’¹¹⁾, ‘주체성은 우리 식 영화문학의 생명’¹²⁾ 등의 글을 통해 주체적 영화예술 혹은 우리 식 영화예술 등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다가 김일성 사망 이후인 12월호에 ‘주체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본격 미학사상으로 이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박철호는 그 해 12월호에 ‘영화예술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는 글을 통해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는 용어를 영화예술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듬해인 1995년 5월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실주의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빛나는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론을 논한 바 있다. 결국 영화 분야

9) 김성수는 2000년대 북한문학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학양식으로 ‘액자형 회상기 양식’을 든 바 있다. 김성수, ‘선군과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오북한문학의 지형도2: 선군시대의 문학해 청동거울*, 2009.

10) 김린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완성에 적극 이바지한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 2월호, 오창봉,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에 대한 예술적 형상-예술영화 <농산기수>에 대하여’, 3월호, 장영, ‘농촌문제의 종국적 결과 영화예술’, 5월호

11) 리현숙, *조선영화해* 1994년 3월호

12) 김숙, *조선영화해* 1994년 4월호

에서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일의 <민족과 운명>에 관한 글과 『주체문학론』에서 먼저 제기되었지만 김일성 사후에 본격적으로 천명된 예술담론으로 봐야할 것이다.

박철호가 천명한 ‘주체사실주의’란 ‘선행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미학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화예술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린다라는 것은 현실을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라는 것이며 현실의 변화발전과정도 사람의 활동과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보고 그린다라는 것을 말한다’¹³⁾, ‘영화예술창조에서 주체사실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주체사실주의가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 내용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내용, 사람의 제일생명은 정치적 생명이며 사람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세워나가는 내용을 비롯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발양시키고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예술작품에 담아야 할 사회주의적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자주성을 인간과 생활의 본성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시대의 영화예술 앞에 나선 역사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할 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¹⁴⁾ 문제는 주체사실주의라는 미학적 원칙을 강하게 대두되면 될 수록 현실주제 영화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

죽음은 다시 관념적이며 폭력적인 전쟁의 수사학으로 현실을 봉인하고 삶을 지배한다. 유훈통치와 ‘고난의 행군’ 시기는 김일성의 죽음을 김정일의 삶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애도기간은 김일성의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을 김정일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낙관과 긍정으로 전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과 운명>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시에 보여주는 쇼트들을 반복하면서-<귀화한 일본녀성편>-,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연공주의자들을 보여주면서 향토애와 조국애를 절합시키고-<최현덕편>-, 천리마 운동에서 비혈연 가족이 만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동계급편>-등 권력의 전치의 과정이 지닌 불연속성과 폭력성 등의 근본적인 모순을 봉합시켜 주었다.

<도시처녀 시집와요> 와 같은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들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여남관계로 드러내는 영화이다. 영화는 평양의 의류 공장에서 유능한 재단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인 리향과 오리 농법으로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꿈을 지닌 건실한 남성인 성식을 연인 관계로 놓고 있다. <도시처녀 시집와요>는 당시 국가가 조직한 향토애, 조국애, 가족애 감정을 가장 이탈한 민족 구성원으로 ‘여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며, 1986년 <도라지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영화』에서 1993~94년 김일성의 사망 이전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로작은 ‘사회주의농촌테제’였으며, 평론은 사회주의 농촌현실 영화를 반복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당대 북한의 가장 불안정한 잠재적 대는 ‘여성’과 ‘주변부’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현실주제 더 나아가 사회주의현실주제 영화가 내재한 징후, 즉 공산주의의 합법칙성, 인과관계, 구조적 필연성을 내세운 생활의 미학 논리가 결국 ‘생활’과 ‘인민’의 부재와 공백의 구조

13) 박철호, 『조선영화해탈』 1994년 12월호, 47쪽.

14) 박철호, 앞의 글, 48쪽.

라는 점은 김일성이 사망하자 갑작스럽게 폐제된다.

3) 다시 침체기: 1995~1997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판타지는 전쟁의 수사학이다. 북한에서 전쟁을 환기하는 언어들이 주는 몰입감과 위기감은 일상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붉은기 정신, <트.ㄷ>운동(김일성이 일제시대에 결성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어), 강행군,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 실력전 등의 사람이 사는 공동체 공간은 일촉즉발의 전쟁터이자 정치사업터로 전치되고 개인은 자율성을 탈락한 채 당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는 ‘인민’으로 정체성의 분열을 겪는다. 1995년은 김일성 사후 1주년에 대한 애도보다 조선로동당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쟁의 수사들이 난무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1996~1997)는 이 전쟁의 수사학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그 만큼 북한의 균등한 재화의 분배라는 공산주의의 이상은 그야말로 영원히 이데아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영화』는 1월호부터 96년 한 해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공표한 바 있다. ‘당과 혁명 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르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며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락관주의정신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 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¹⁵⁾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펼쳐진 북한예술 지배담론은 수령의 사망에 대한 애도의 비극보다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라는 (기약 없는) 미래에의 낙관으로 습관처럼 기울어진다.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을 성대하게 경축한 역사적인 1995년을 보내고 보다 희망찬 새해 1996년을 맞이하였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우리 당 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인 영화예술창조에서 레년에 없던 영화대풍을 마련하였다...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트.ㄷ>>를 결성하신 70돐이 되는 올해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떨치는 역사적인 해, 행운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¹⁶⁾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년상이 되는 올해에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용을 더 자랑스럽게, 더 떳떳하게, 더 높이 온 세상을 떨칠 신념과 의지가 조국강토에 뜨겁게 굽이친다.’¹⁷⁾ ‘현 시기 우리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있는 붉은기 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 당의 인생관을 구현한 작품이다....창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오늘의 최후돌격전에서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¹⁸⁾

<민족과 운명>은 기약 없는 사회주의 유토피아 담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절합한 핵

15) 사설, ‘주체영화예술의 붉은기를 들고 더 높이 비약하자’, 『조선영화』997년 1월호, 19쪽.

16) 앞의 글, 17쪽.

17) 김성남, ‘높이 들자 붉은 기’, 『조선영화』 1997년 4월호, 17~19쪽.

18) 황신호,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영화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영화』997년 11월호, 27~29쪽.

심적인 시리즈물이다.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과 카프작가편이 1996~97년에 연이어 완성되면서 김일성의 시대와 김정일의 시대는 더 이상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김정일동지이시고 김정일동지는 곧 수령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 깊이 아로새겨진 신념이고 의지이다.'¹⁹⁾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수령이 전치되면서 오는 권력의 틈과 공백을 봉합하는 데에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없어서는 안 될 봉합 이미지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언급해야 할 지점은 기록영화로 밖에 제작되지 않았던 김일성의 역사-이미지가 극영화에 재진입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수령형상영화는 기록영화로만, 즉 시사성 actuality 과 기록성을 극영화보다 더 중시하는 영화에서만 등장했다. <위대한 생애의 1994년>,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등등이 사후에 시리즈로 연이어 제작된 바 기록영화들이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공식적으로 종언한 후 김정일 체제를 선언한 1997년 극영화(예술영화)에는 다시 수령형상영화 <화성의숙에서의 한해 여름>(1~2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작, 김영호 연출)가 등장한다. 영화는 '주체의 붉은기를 휘날리기 시작하신 불멸의 업적을 휘날리기 시작하신 불멸의 업적을 사실주의적인 빛나는 예술적 화폭으로 구현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초기공산주의 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의 실태와 그 제한성을 꿰뚫어보시고 새 형의 공산주의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²⁰⁾.' 김일성의 사망을 미메시스 mimesis 에 기초한 기록영화에서 디에제시스 diegesis 의 세계에 기반한 허구영화로 이전해서 다루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정치의 예술화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청년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중인화 작업을 통한 권력상속은 비단 영화만이 아니라 문학예술 전반의 총체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조선문학』에서는 『불멸의 영상』과 『상봉』이 수령형상단편소설로 등장하면서 비평에 있어서도 '수령형상'에 뚜렷하게 집중하고 있었다.²¹⁾ 미술분야에도 수령형상을 매개로 항일혁명기 내지는 '북한 초기'에 해당하는 이른바 민주건설시기(1945.8~1950.6)의 젊은 수령 김일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은 회화에서 늘 청장년의 강인한 남성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 노동하는 폐허 위의 개척자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김정일은 분명(젊은) 김일성이었으며 김일성처럼 새로운 조국을 개척하기 위해 '역사'가 요구하는 인물이자 피로 이은 그의 분신이 된다. 항일혁명 시기 및 조국건설 시기의 김일성처럼 김정일은 당대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된다. 예술은 역사를 비반복적으로 반복하면서 현실을 다시 구성하게 해준다.

19) 앞의 글, 18쪽.

20) 조선영화해 1997년 11월호,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17쪽.

21) 오창은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문학이 크게 수령형상 창조와 '붉은기 사상'에 집중하면서, 혁명적 낭만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문학평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2: 선군시대의 문학해』 청동거울, 2009, 46~70쪽.

3. 실패한 문예혁명?

김일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 실제 죽음은 오히려 전도된 상징적 죽음을 미이라로 만들어 죽어도 결코 죽지 않은 ‘정신’의 자리를 획득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의 이상의 자리를 획득한 김일성 수령 아래에 다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꿈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술작품이 지닌 숭배와 제의의 아우라적 가치는 그것이 재생산, 복제, 반복될수록 사라지기 마련이다. 김일성이라는 뇌수에 대한 대를 이은 충효-수령결사옹위, 총폭탄, 총대 등등-는 그 아우라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을 부인하는 물신화는 죽음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주체사상의 핵심이었다. 북한에서 작동하는 물신주의적 경향은 현실의 충격을 완화시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네이션의 감정(민족감정)이다. 그는 정신의 자리를 점하는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며, 마술처럼 살아 북한의 (혁명전통)역사와 등치된다. 영화 및 예술은 생활/ 사업, 개인/ 인민, 공적/ 사적, 하나/ 전체, 오늘/ 내일, 일상/ 전쟁,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이분법 속에서 후자의 지배가 강고해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두려운 현실을 완화하기 위한 물신적 대상의 구조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북한영화 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긴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① 90년대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 ② 생활과 현실간의 모순 ③ 인력과 전인의 프레임에 갇힌 폐쇄적 영화미학 ④ 비반복적 ‘새 것’의 미학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 b, 2011.
-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김정일 선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년 5월 23일’, 『김정일 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현순, 『사회주의영화예술건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슬라보예 지젝 지음,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강수영 옮김, 『전쟁은 없다』, 인간사랑, 2004/2011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편, 『북한문학의 지형도2: 선군시대의 문학』, 청동거울, 2009
- 정태수 책임편집, 『남북한 영화사 비교연구: 1945-2006』, 국학자료원, 2007
-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 『조선영화』, 1990~1997.

中央語文學會 第26次 全國 學術大會

인 쇄 : 2011년 5월 19일
발 행 : 2011년 5월 21일
편 저 자 : 중앙어문학회
E-mail : lisamilk@naver.com
홈페이지 : <http://cakoll.or.kr>

퍼 낸 이 : 고영호
퍼 낸 곳 : 도서출판 이삭
주소 : 서울 동작구 흑석동207-1호
전화 : 02-813-5796
팩스 : 02-3280-5796

<비 매 품>